제1회 인류학사연구회 일정 안내

□제목: 한국도서민속 연구와 의민(宜民) 이두현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13:00~18:00
□장소: 국립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중회의실
□주최: 인류학사연구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및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한국문화인류학회

13:00~13:10	**개회사** 홍석준(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장)	
	격려사 이창언(한국문화인류학회장)	
1부 일본 인류학자의 눈으로 본 진도 민속 (사회 홍석준 목포대 교수)		
13:10~14:10	**발표**	**발표자**
	일본의 민속학에 의한 연해도서사회 연구	이토 아비토(도쿄대 명예교수)
14:10~14:20	휴식	
2부 의민 이두현의 학문과 생애 (사회 임경택 전북대 교수)		
14:20~16:00	**발표**	**발표자**
	의민 이두현 국가유산청 기증자료의 현황과 의의	오창현(목포대 교수)
	학자, 의민 이두현 선생의 주요 저작과 몇 가지 단상	왕한석(서울대 명예교수)
	문화인류학을 지향했던 이두현	전경수(서울대 명예교수)
16:00~16:20	휴식	
16:20~16:40	아버지의 기억 (이진원, 의민 이두현 선생의 장자)	
16:40~18:00	**좌담회**	
	(좌장) 전경수(서울대 명예교수)	
	이토 아비토(도쿄대 명예교수)	
	정상박(동아대 명예교수)	
	이종철(전 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전 국립민속박물관장)	
	안경자(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졸)	
	야마 요시유키(関西学院大学 교수)	
	(좌담회 기록) 이민재(목포대 전임연구원) 이도정(전북대 전임연구원)	
인류학사연구회 총회		

목차

가족 감사의 말씀: 아버지의 기억

1부 일본 인류학자의 눈으로 본 진도 민속

일본의 민속학에 의한 연해도서사회(沿海島嶼社会) 연구(이토 아비토, 도쿄대 명예교수)

2부 의민 이두현의 학문과 생애

의민 이두현 국가유산청 기증자료의 현황과 의의(오창현, 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소장)
학자, 의민 이두현 선생의 주요 저작과 몇 가지 단상(왕한석, 서울대 명예교수)
문화인류학을 지향했던 이두현 (전경수, 서울대 명예교수)

가족 감사의 말씀: 아버지의 기억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아버님을 기억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벌써 멀어져가는 아버님의 기억이지만, 우선 가정적으로 몇 가지 꼽아 보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참으로 멋지고 로맨틱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산에 자주 동반하셨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도봉산 망월사에 오르면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잘 올라왔구나 하며 칭찬받았던 일이 떠오릅니다. 시원한 물에 손을 씻고 바람 부는 그늘에 누워있으면, 그때부터 아버지는 버나에 불을 붙이고, 맛있는 찌개와 고솔고솔한 밥으로 따뜻한 점심을 혼자 준비하셨습니다. 저희도 자식을 키워보니, 정말 힘든 일이었구나 싶습니다.
또 여름 방학이면 만리포에 데리고 가셔서 거의 한 방학을 놀며 보내게 하셨습니다. 솔가지를 모아다 모닥불도 피워주시고, 공부에 관계없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9월이면 성적이 떨어진다고 아쉬워하는 소리를 하셔도, '애들은 잘 놀아야 크는거야' 라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덕분에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여름을 보냈던가요? 산나리를 꺾고, 따게비나 홍합을 한 양동이 잡아 오고, 바다에 누워 떠있는 뭉게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또 일상에 충실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여자도 자신의 일을 가져야 한다고 지나가듯 말씀하셨었는데, 그래서인지 우리집 여자들은 모두 일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처음 학교에 부임했을 때, " 학생들에게 베풀 때는 돌려받을 생각을 말고(pay back) 너의 베품을 받은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대신 베풀도록 가르쳐라" 라고 당부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집안일에는 별 관심이 없으셨는지, 당시 우리집 캐비넷 번호를 외우시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당장 녹음기를 가지고 답사 가셔야 하는데, 어머니와 큰 누나가 마침 없어서 캐비넷을 열지 못해서 난리가 났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 후에도 번호를 외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일에는 항시 깔끔하고 준비성이 많으셨습니다. 그 많던 자료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자손들이 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장될 뻔했던 그 많던 테이프를 기증하셔서 무가집으로 보존되었으니, 국립문화재연구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문적으로는 큰 누나 전공인 연극학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인류학 분야는 더 잘 아시리라 믿어서, 감히 언급을 삼가겠습니다. 『한국 신극사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966)를 필두로 『한국가면극』(1973)을 발표하며 한국 연극사의 기틀을 다지고, 1973년 드디어 『한국연극사』를 발표하셨습니다.[1] 본 저서는 처음으로'한국 연극의 분류와 시대구분'의 장을 따로 두고, 비록 시대구분을 일반사와 같이 하였지만 고대부터 광복이후의 연극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일례지만 우스개소리로 지금도 『한국 신극사 연구』의 오자가 그대로 사용되며, 무슨 신문이라고 인용된답니다. 김재철의 『조선연극사』(1933) 이래 연극사 제 1세대는 문헌자료에 의한 연구와 현지 조사를 통한 민속지 작성을 병행하면서 한국 연극사의 기틀을 놓았으니, 아버님에 의해 이러한 연구 성과가 집대성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지금도 가장 기본이 되는 연극사 서적입니다. 이런 학문적 열정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인류학과 연극을 연결시킨 『한국무속과 연희』 (서울대 출판부, 1996)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연극계 일도 하셨으니, 한국연극학회 초대회장, 국립극장 자문위원, ITI 사무국장, 탈놀이 등 전통극의 무대화 사업으로 미국, 유럽 등의 투어를 직접 인도하며 전통극의 세계화에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같은 분야에 있을수록 그 어려움을 잘 알기에, 그 많은 일을 하신 아버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꾸준히 좋아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심미안을 가진 미학도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겨울밤 마당에서 반짝이는 별자리를 세고, 여름 정원의 가득했던 꽃들도 모두 아버지가 가꾸셨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유용하지 않을지라도 아름다운 모든 것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항시 꿈과 동경으로 가득하셨던 로맨티스트셨고, 저희 자식들에게도 꿈을 동경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잘 정리된 서재에서(아버지의 서재는 항시 저희 자식들이 들어가 보고 싶어하는 동경의 장소였습니다), 원고를 쓰고 독서를 하시거나, 문틈으로 들여다보는 손주들에게 빨간 체리를 나누어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 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

1) 이 책은 민중서관에서 초판이 1973년에 발표되고, 학연사에서 1985년과 1999년(한글판)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1부 일본 인류학자의 눈으로 본 진도 민속

일본에 있어서 민속학자의 연해도서사회(沿海島嶼社会)의 연구

이토오 아비또(伊藤亞人)
(東京大学　名誉教授)

머리말

한국도 일본도 대륙의 일각을 차지하는 반도와 해양에 위치하는 열도라고 하는 차이는 있으나 농업생산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어느 쪽의 사회에 있어서도 압도적이었다. 연해도서부나 산간부 등의 지리적 주변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고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조차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에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양쪽 사회의 공통점이나 차이에 다소 언급하자고 한다면 반드시 반론을 만나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 평지에 살아 농본주의를 표방해 온 사람들에 있어서 산간부나 연해도서부 주민의 주변성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조차 양쪽 사회에서는 산이 차지하는 위치에 있어서 의외의 차이가 보인다. 나는 이전 이 점에 대해서 짧은 논고를 쓴 적이 있다. 산도 바다도 그 사회적인 위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사회 통합에 기초가 되어 온 중앙집권체제 혹은 지방분권적 체제, 거기에 따르는 국토의 질서의식과 공간인식까지 고찰을 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체계화에 따르는 중심성과 주변성을 둘러싼 구조적인 dilemma를 극복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며, 주변화된 지방사회의 쇠퇴를 막는 길은 어떻게 하면 열릴 것인가, 이것을 현실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주체와 생활에 관계된 문제다. 특히 문인지식층이 주도성을 발휘해야 할 인간 생활에 대한 시점에 깊게 관련될 것이다. 그 점에서, 우선 일본에서의 민속학도가 관찰해 기술해 온 작업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뒤돌아보고 싶다.

지방분권과 도서사회

일본열도는 도서성과 연해성이 뚜렷하다는 것에 비해 한국사회는 세 방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지만 도서사회 혹은 연해지방에 대한 관심이나 인식 그리고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된다.

사회는 훨씬 가까운 세계이고 그 생활조건에 유래한다. 갈등은 지역마다 생활 속에서 경험과 대응해 온 과제이며, 이것을 내륙의 지식인이 특별히 집어 들어서 남의 일처럼 연구 대상로 하는 것에 다소의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방분권을 중시해 온 열도사회에서는, 산간부의 농촌에서도 연해도서부의 어촌에서도 각 지역에서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 수장제 (首長制) 를 경과하고 장원제(荘園制)나 호족 지배를 지나 전국영주가 할거하는 시대가 전개되었다. 드디어 번(藩)의 영토자치적인 통치체제를 경과하여 근대의 배타적 국가체제를 기조로 국제 사회의 대응을 재촉받고, 군주제에 의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이행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중앙집권적 국가의 통합기능을 최우선 하는 사이에 모든 분야에서 국가주의가 강조되는 바람에 그 역기능이 아직도 강하다.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적인 전통이 약화되었다 해도 지금도 뿌리가 깊은 면이 있다.

게다가 교통·통신의 발전에 의한 정보화와 사회의 시스템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부상했다. 우리들의 생활에서 공식이라고 여겨지던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하는 사이, 비공식의

영역에 눈을 돌려 온 것이 민속학이었지만, 이러한 사회 조류 밑에서 전체는 보기 어려워질 뿐이고 큰 문제는 보류되어, 위기감은 없어지고 자기만족에 빠져 있었다고 비판받아도 반론할 수 없을 것이다. 민속학이 대상으로 해야 할 생활은 현대사회의 공식 시스템에 편입됨과 동시에 주변화되어 온 생활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전에 막번체제(幕藩体制) 아래에서 연해지방에 영지를 소유한 번에서는 취약한 그 지방주민의 생활기반에 비추어 농촌과 분리된 행정을 깔고 있었던 예가 적지 않았다. 연해지방에 위치한 번만 아니라 농촌부보다도 연해도서부를 주된 영지로서 어업이나 해운에 재정기반을 두어 온 번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특수한 예라고는 해도,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고 어업을 생업기반으로 하여 기동력을 살린 수운과 군사적 일면을 가져서 해상세력으로서 존재감을 가지는 집단도 존재하고, 고우노(河野)씨나 무라카미(村上)씨와 같이 해적영주이라고 칭하는 세력도 성립할 수 있었다. 세토나이카이(瀨戸內海)의 이러한 번에는, 도서사회와 영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독특한 산업의 발전을 낳는 기반이 되고, 메이지기(明治期) 이후 오늘까지 그 전통을 받아 계속되어 온 예도 있다.[2] 게다가, 바다의 세계는 잠재적으로 유동성이 많고, 넓은 해역에 열리고 있기에, 이렇게 했던 해상세력의 양상을 갖춘 전업어민 안에는, 최근까지 기동성을 살려 넓은 해역에서 어업을 전개해왔다.

지방 분권의 체제 아래, 연해도서부 주민은 번의 영국민으로 위치가 부여되고 연해도서사회는 이러한 지방정부(번의 행정)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 지방분권 체제 아래에서는 국가의 존망에 미치는 것 같은 심각한 사태가 아닌 한, 중앙정부의 기록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좋다. 주민의 생활이나 동정은 지방행정의 과제이며, 주민의 도서 지역으로 이동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에 맡길 수밖에 없어, 그 실태를 반영하는 기록은 중앙에는 집약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 기재된 지방주민의 불법적 유동 관련 보고나 건의, 추쇄(推刷) 지시 혹은 유민대책으로서 목(牧)의 설치, 농지 개간, 염전 설치 등의 논의는 일본에서는 지방 번의 행정 과제에 지나지 않았다. 메이지(明治) 이후 지방행정자료는 번의 행정을 이어받은 현의 행정자료실에 보관되고 있다.

나가사키현(長崎県)의 구 오무라번(大村藩) 및 마쓰우라번(松浦藩)의 영민 안에는 선상생활을 보내는「에부네 (家船) 」라고 불리는 어민집단이 존재했다. 메이지기 번의 폐지 이후 번의 행정 아래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었던 에부네 어민의 육상 정착, 어장의 관행 특권, 민법, 의무교육, 병역의무 등의 문제가 부상했고 현의 행정에 이 문제를 이어받았다. 그들의 어로생활은 근대화·국민화 과정에서 더욱 주변적·비공식인 존재가 되어 연구자의 사이에서도 잠시동안「에부네」의 실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간지식인의 변경지방에 대한 관심

일본에서는 도시부의 상업 발달을 배경으로 등장한 지식층·독서층 사이에서 변경의 땅에서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저작이 나타났고, 제국의 풍물·역사 안내나 여행기와 함께 민속학적인 내용도 평판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소개하는 스가에 마스미(菅江眞澄)와 스즈키 보구시(鈴木牧之)의 저작은, 연해 도서사

2) 지상의 지역 전통산업과 같은 식으로, 연해도서성을 기반으로서「해사산업 (海事産業) 」이 집적된 사례 중 하나가, 예전에 해적중(海賊衆)으로 알려진 구루시마(来島)번의 가신단을 구심력으로 하는 이마바리(今治)이다. 그것은 노르웨이의 예와 비할 만하게 해양성, 어민, 기동성, 산업이 특정한 지역사회로서 발전한 예라고 하는 점이 현지인들의 인식이며 자부심이다.

회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지만, 일본에서의 민속학 성립배경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것이며, 한국에서는 그다지 소개되는 적이 없었다고 생각되므로 간단히 소개해 두고 싶다.
스가에 마스미(菅江眞澄, 1757～1829)는 국학과 본초학을 배우고 또 묘사 기능을 익혔다. 30세 이전에 고향인 오카자키(岡崎)를 출발하여 일본 중부지방에서 동북지방, 에조치(蝦夷地, 홋카이도 北海道)를 거치면서 여행했고 그 일기와 방대한 기행문(紀行文)을 남겼다. 그동안 각지에서 문인과 교류하고, 호농(豪農)이나 재산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아키타번(秋田藩)의 지원 아래에서 한코우(藩校) 및 사타케씨(佐竹氏)의 후대를 받아 46년간에 걸쳐 여행과 저술로 생애를 보냈다. 그림을 병용한 방대한 여행기는 언어, 생활습속, 신앙행사 등을 대상으로 삼아 민간인의 시점에서 상세하게 기록한 전에 없는 것이며, 민속지 자료로서도 귀중하다. 1822년에 저작과 자필 자료를 일괄해서 번에 헌납하고 그것이 『마스미유람기(眞澄遊覽記)』 89권으로서 출판되었다. 메이지(明治) 이후는 아키타현(秋田県)의 유형문화재로 뒤에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받았다.
민간인에 의한 민속학적인 저작으로서는 스즈키 보구시(鈴木牧之, 1770～1842)의 예도 획기적이다. 스즈키(鈴木)는 에치고(越後) 시오자와(塩沢)에서 직물(치지미) 중매를 가업으로 하는 호상(豪商)의 집에 출생했다. 그는 가도를 왕래하는 문인들과 교류를 거듭하고 또 스가에(菅江)와 같은 식으로 회화의 기량을 익히고 있었다. 19세에 처음으로 에도(江戸)로 나갔는데 에도 사람들이 설국의 심한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에 충격을 받고, 스스로 고향의 산촌 생활을 상세하게 그려서 도회의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에도(江戸)에서 출판하는 것을 생각했다.
그 저작 『호구에츠셋부(北越雪譜)』는 눈에 관한 상세한 관찰을 비롯해 산촌생활 전반에 미치는 민속지에 어울리는 내용이었다. 지방의 한 민간인이 지원자도 없이 자신의 뜻으로 기록한 저작이 에도(江戸)의 발행소에 의해 출판될 때까지는 30년을 필요로 했다. 이 책이 출판되자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두 편으로 이루어지는 목판본은 메이지(明治) 말인 1912년까지 간행이 계속되었다. 그 반향에 응해서 집필 중이었던 제 삼편은 아깝게도 미완으로 끝났다. 하지만 스즈키는 이외에도 『아키야마기행(秋山紀行)』에서 일본 내 으뜸의 적설지로 알려진 아키야마고(秋山郷)라는 한 촌락의 민속지를 일본 최초로 저술했다. 이 저술은 지역의 생활을 망라하는 박물학적인 내용이 높게 평가받았다. 활자판은 1936년에 이와나미(岩波) 서점에서 간행되었다.
도서사회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는 곤도 도미조(近藤富藏, 1805～1887)의 『하치죠 지츠기(八丈實記)』가 있다. 이 저술은 스스로 평생을 바쳐서 멀리 떨어진 섬의 주변성을 구현한 것으로 너무나 극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지시마(千島)·에토로후도(択捉島)의 답사(寛政10)를 통한 저작으로 알려진 곤도 주조(近藤重藏, 1805～1887)의 장남이었지만, 살인의 중죄에 의해 1827년에 이즈하치지마(伊豆八丈島)에 유형되었다. 1880년(明治13) 사면될 때까지 53년간에 걸쳐 섬에서 생활했다. 그동안 섬의 지리·역사·언어·신사(神社)·불각·유배인을 비롯, 도민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문헌자료 수집 및 도민 청취와 관찰에 의한 방대한 저작을 남겼다. 메이지(明治) 원년에 「추방형의 집행정지」 조치가 내렸을 때도 특별사면의 대상으로는 제외되었다.
그는, 그동안의 저작을 『하치죠 지츠기(八丈實記)』 72권으로 정리해서 이것을 정부에 헌납해서 특별사면을 청원했다. 그것을 받고 당시 도쿄부(東京府)는 역인을 파견해서 내용을 음미하고 그 저작의 실적을 인정해서 그것을 매상하고 1880년에 형을 사면하였다. 그는 고향을 방문해서 성묘와 인사를 끝마치고, 시코쿠(四國八十八ヵ所) 순례를 마친 후, 다시 하치죠섬(八丈

島)에 되돌아와서 1887년에 생애를 마감했다.
이 저작은 뒤에 시부사와(澁澤)에 의해 삼부의 사본이 만들어져, 시부사와 게이조 (澁澤敬三), 야나기타 구니오 (柳田国男) , 오리구치 시노부(折口信夫)에 의해 전에 없는 민속지로 높게 평가받으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야나기타는 곤도 도미조(近藤富藏)를 일본민속학의 부조(父祖)라고 부르며, 야나기타 자신도 이 저작을 계기로 하치죠섬(八丈島)을 방문해 아오가시마(青ヶ島)에 대한 저작을 잡지『시마(嶋)』에 연재했다.
이들 3점은 모두 지극히 특수한 배경 밑에서 출세한 저작으로 18～19세기의 지방주민 생활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서 대단히 귀중한 것이다. 특이한 인물의 뜻과 기술이 주변 사회를 세상에 알린 것으로, 변경지역의 생활을 현대사회의 문맥으로 따져 묻는 손잡이로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민속학에 의한 연해도서사회의 연구

민속학자라고 말해진 사람들은 크게 거주지와 활동권, 관심 분야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다.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国男)를 비롯해서 대도시를 거점으로 전국을 널리 여행한 경험이 풍요로운 한 무리(예를 들면 하시우라 야스오(橋浦泰雄), 사쿠라다 가쓰노리(櫻田勝德), 하야카와 고타로(早川孝太郎), 뒤에는 미야모토 쓰네이치(宮本常一)로 대표된다)가 있다. 한편으로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활동한 지역의 박식자(博識者)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외에 구두전승이나 사회관습 등 특정 분야에 특화하여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3)]
한쪽에서 야나기타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전국을 시야에 넣은 민속학도 한 무리는 역사학이나 농촌사회학 혹은 민족학을 배경에 가진 연구자와 함께 뒤에 민속학회를 조직하는 데에 모체적인 존재가 되었다. 오키나와(沖繩) 등의 남서제도(南西諸島)는 언어, 문화, 역사 등의 측면에서 독자적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현지연구자의 존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해왔다.[4)]
야나기타의 지도성은 원래의 국학적인 교양에 더해서 국가 고급행정관의 시점을 대비하고 또 국제적인 민족학의 동향도 자각하며, 전국의 민간지식인과 연계를 중시하는 전망도 가졌다는 점에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각지의 다채로운 현지연구자와의 연계를 깊게 하여 참가를 촉진시켰다. 학회 설립을 비롯한 연구 교류와 공동조사 그리고 계몽적 잡지를 포함한 출판기획이 진행되었다. 학회로서의 체제와 병행되고 야나기타는 지역의 사회문화 총체로서 대상으로 삼는 「향토연구」의 이념을 내걸고 이미 메이지(明治) 말기에는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와 함께 연구회를 발판으로 잡지를 간행하고 또 오카 마사오(岡正雄)와 함께 『민족』을 간행했다.
한편 계몽을 겸한 출판으로서 『노변총서 (炉辺叢書)』를 창간하여, 뒤이어서 간행된 잡지 『여행과 전설(旅と伝説)』(1928～1944)은 당시의 여행 붐을 반영한 것으로 몇 개의 특집도 짜여지고 있다.[5)]

---

3) 지방마다 활동라는 연구상황은, 번제시대 (藩制時代) 이래의 언어를 비롯한 주민의 생활문화의 지방 특색에 대한 관심만 아니라 지도층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담화회」나 「사담회」와 같은 모임도 반영한 것이다.
4)) 이러한 지방 재지의 지식층 안에는, 지방의 재산가나 독농가 집안에 태어나서, 한번은 뜻을 품어서 도회에 유학하고, 불운하게도 병을 얻어서 귀향하고, 거기에서 새롭게 향토의 문화나 관습에 눈을 뜨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5) 이들의 잡지의 발간에 볼 수 있게, 민속학과 여행의 관계는 인연이 깊다, 도쿄(東京)의 시바우라(芝浦)를 발착하는 도카이 기선(東海汽船)의 취항에 따라, 이즈제도(伊豆諸島) 여행이 섬의 민속에 접촉하는 여정을 일으키는 매력이 되고 있었던 시기다. 문호 이부세 마스지 (井伏鱒二)도 오리그치시노부 (折口

1933년에는 도서연구에 찬동하는 200여 명의 동인에 의해 『시마(嶋)』가 창간되어, 그 지면에서 야나기타 자신도 「아오가시마 왕환기(「青ヶ島往還記」)」를 공표했다. 1935년에는 『민속』이 창간되어, 이것이 1949년의 민속학회 창립 후 그 기관지가 되고, 1953년 이후는 학회지 『일본민속학』에서 이어받았다.

이렇게 해서 민속학이 지방재주의 지식층의 발굴과 연계를 깊게 하면서 시민권을 얻어서 학회의 체재와 실질을 얻어 가는 도정은, 그것 자체가 일본사회에 있어서 제도화와 집약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전국의 지식층과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의 전통문화 연구에 참가를 촉구했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이러한 다양한 잡지나 총서는 당초는 중앙에서 알 수 없는 지방 재래의 생활의 정보원이 되면서 민속어휘를 단서로 하는 자료의 집적은 민속지식의 공유라고 하는 일면이 있었다.[6)]

연해도서의 연구 속에서도 그 지리적·생태학적 조건을 반영한 생활 양식이나 문화전통을 충분히 의식한 연구도 있으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사례연구도 적지 않다.

본래 연해도서사회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그 도서 특유의 생활상·사회층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도서사회의 고립성이나 사회변동이나 유동성 등을 시야로 넣은 연구가 요구된 것에 틀림없다.

그것은, 종래의 민속학이 집약적인 기술을 중시하는 나머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보다 광범한 지역에서의 연해도서지방의 위치 부여이며, 내륙의 농업사회나 도시 나아가 국가 규모의 사회경제적인 시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과제다.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많은 도서사회의 민속지가 공표되고 있어, 그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검증할 여유는 없지만, 번의 행정을 대신하는 국가체제의 밑에서 연해도서사회가 경험해 온 사회변화는, 그 후도 오늘에 이르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상해 온 과제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경의 부분 사회가 보다 큰 시스템에 통합되는 과정이며, 그와 동시에 주변화되는 과정이었다. 그러한 크고 장기적인 전망에 비추어 되돌아보면, 예전에 민속학이나 향토연구가 정면에서 대응해 온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중요한 국민적인 과제가 시사되어 온 것을 알게 된다. 그 하나가, 연해도서지역의 어촌주민과 내륙의 농촌주민과 사이에 보여지는 어획물과 농산물의 물물교환과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교류다.

信夫)를 통해서 읽은 『하치죠지츠기(八丈實記)』를 바탕으로 하치죠(八丈島)을 둘러싼 역사소설을 쓰고 많은 독자가 멀리 떨어진 섬 생활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6) 이 점에 대해서 『시마(嶋)』의 편집자가 창간호에서 내건 간행의 취의와 전망을 소개해 두자. 취의로서 야나기타는, 「… (섬의 생활의) 소위 외부의 사람들도 지금은 아직 많은 지식에 굶주리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타향취미와 한정된 비교를 가지고 만족할 일 없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랫 동안 떨어져 사는 동포의 사이에도, 여전히 약간의 끊을 수 없는 연쇄가 있어, 부인을 못할 공통점인 강점 과 약점이 있는 것을 깨닫고, 장기적으로는 자기들도 또 한개의 큰 섬의 도민이었던 것을 자각하는 것에 이르러야 한다.…」이라고 적고 있다. 또, 권말에서는 다음과 같이 편집방침을 내보이고 있다.

一、『시마(嶋)』는 일본을 보다 자세하게 알자로 하는 사람들, 특히 여행자의 의논 상대가 되는 이외에, 또 섬의 주민을 해서 서로 서로 알게 하는 중개 기관으러서 스스로 임명으로 한다. 그러므로 학자의 독점에 돌아 가는 것 같은 어려운 논의는, 상당히 평이에 고쳐 쓰지 않으면 내지 않는다.

一、 그러나 장래의 연구자를 위해서 참고가 되어야 할 사실은, 힘 모아 수록해서 보존한다고 생각이다. 그러므로 다른 많은 보통 잡지와는 반대로, 시간이 흐를 만큼 그 가치는 가해져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一、당분간 게재하자고 생각하고 있는 기사는 다음과 같지만, 이것은 앞으로는 범위가 확장될 것이다. (가) 각 섬의 생활지의 기술, (나) 섬의 지리적 생물학적 연구, (다) 교통의 현상과 새로운 기행, (라) 수산농림기타의 산업실정, (마) 섬의 연혁과 구비, (바) 습속 및 여러가지 제도, (아) 언어사실의 조사, (자) 옛날기록류의 수색 및 소개, (차) 제도에 관한 문헌의 색인목록, (파) 특색 있는 사진 스케치 등, (하) 여행 안내기타.

그것은, 연해도서지방에 있어서의 자연환경을 강하게 반영한 과제이며, 해변주민과 내륙농촌주민과의 생태학적인 살아 나눔과 분업에 기인하는 격리와 상호의존이라고 하는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다. 주식물을 농산물에 의존하는 생활에 있어서, 어업에 특화한 주민이 내륙의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확보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농민과 어떻게 안정된 관계를 쌓을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다. 그것은, 농민의 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과제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소금과 단백질원의 입수에 영향을 미친다.

『바닷가 촌락의 생활연구 (海村生活の研究) 』

이하에서는 처음에 일본의 민속학자가 1937～1939년에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실시한 연해도서사회에 대한 공동조사의 성과 (1949년, 柳田国男編『海村生活の研究』)을 음미하고 싶다. 이 조사 프로젝트는 전국의 연해도서부의 생활 다양성에 대응하여 전국에서 대표적인 도서·어촌지역 30곳을 선택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연구자 11명이 조사지를 분담하여 100개의 조사항목을 1937년부터 1939년에 걸쳐 실시한 현지조사를 집약한 것이다. 당초에는 규슈(九州) 전역 및 남서제도(南西諸島)도 포함하여 실시하는 계획이었지만, 전시체제 아래의 재정난으로 규슈 이남에서는 오이타현(大分県)의 2곳에 머무르고, 보고서도 종전 후인 1949년으로 늦어졌다. 30곳의 마을과 지역은 모두 연해도서부로 어업에 크게 의존하는 마을이었다. 이미 현지조사에 의한 민속지가 공표되고 있는 마을이나 선상생활어민(에부네)이 정착한 촌락처럼 극단적으로 바다에 의존하는 마을은, 그 특수성을 고려했던지 혹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의도적으로 피한 것 같다.
100개의 항목은 25개의 대항목으로 정리되어, 전반 4할의 지면은 어로에 관한 항목에 충당되고, 그 이외는 가족과 친족, 연령조직, 의례 등은 어로생활을 반영한 것이지만, 다만 촌락·지역 내부의 생활을 집어들고 있다. 더욱 인생의례나 의식주, 물질문화, 신앙 등은 일반 농촌이나 산촌에서의 사례를 근거로 준비된 항목이며, 연해도서사회 특유의 맥락은 기술에 그다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짧은 기술이여도 모두 각 지역주민의 생활 배경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각각의 민속적인 사항을 병렬적으로 분류 기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러한 사항이 내포하는 사회적 함의를 읽어내고 보다 큰 뿌리 깊은 배경이나 전망을 근거로 한 편집이 필요했다고 생각되지만 당시의 민속학도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았다.

어촌과 농촌의 교섭

연해도서사회의 핵심이라고 해야 할 항목은 무엇보다 어로에 관련한 사회적인 관계와 관습이다. 어로의 노무조직·공동조직·어장에 관한 규제·어획물의 분배·어로의 재래기술 등은 어로를 생업으로 하는 지역사회를 규정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또, 배, 운송수단과 교통도 그 시대의 기술이나 제도의 영향을 직접 반영하는 분야이다.
어촌내부의 조직이나 관습 이외에 도서생활의 존립에 직접 관련되는 분야로서 주목받는 것이 배후 농촌과의 교섭이며, 그것은 어촌부인들의 노동이다.
재래의 연해도서와 외부농촌 사이에는 각양각색인 교섭이 있었는데 국가 규모로 진행되는 근대화와 민주화, 행정의 확충과 침투, 경제시스템 등의 전개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민사회·국민경제와 관련이 긴밀하기 전의 초기 조건이라고도 할 만한 관습들을 기술한 부분이다.

자연환경의 제약으로 농업이 충분한 생활기반이 될 수 없는 조건 아래에서, 또 가령 어업에 유리한 조건에 있어도 대도시 등의 소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연해도서부에서는 농산물을 구하기 위해서 주민 자신이 직접 농촌부와 교섭하는 것이 불가결했다.

그것은, 어업 중에서도 계절적인 회유어를 대상으로 하여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그물에 의한 어법이 가능한 해역이나, 육상의 소나 말에 의한 운반이나 중매선으로 어획물을 운반하는 상인이 있는 지방에서는, 어민은 어업에 전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도 내륙농촌의 소금 수요에 응하고 어산물의 마른 포나 염장을 위한 소금은 불가결했다. 그래서 해변에서 떨어진 어촌에서도 소금을 끓여서 생산하는 예가 많았고 대량의 땔나무가 필요했다.[7)]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어업의 안정도 보장되어 있어도, 운반과 판매가 전업화 되지 못할 도서부에서는, 해상의 작업뿐 아니라 간단한 가공과 운반 그리고 소매거래까지 어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었다. 어촌-농촌 간의 교섭을 둘러싼 관습으로 연해도서지방의 생활은 유지되었다. 이 관습을 기술하는 것이 당시 민속학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외부에서 초래되는 기술이나 제도 등의 영향에 노출되면 주민은 새로운 대응을 재촉받았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사회경제사적인 측면은 통계자료도 충분하지 못하여, 또 재래의 생활에 갖추어진 비공식인 경제라고도 말해야 하는 영역이며, 당시의 민속학계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경제로서 기술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를 부족하며 사회적이다 문화적인 맥락을 근거로 하기에는 민속지적인 예비지식도 부족했다.[8)]

아무튼 연해도서지방에 있어서의 이러한 습속에 대해는 여성연구자인 세가와기요코(瀨川淸子)를 비롯한 민속학자의 해녀 마을이나 전업 어민(專業漁民) 관련 연구성과가 귀중하다.[9)]

이러한 여성에 의한 물물교환은 연해도서부와 농촌 사이만 아니라, 예전에는 산촌과 농촌, 산중에서 물레를 이용한 그릇을 만둔 기지시(木地師)와 농촌 사이에도 보인다.[10)]

---

7) 소금의 생산과 공급은 번의 행정에서도 지역자치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었다. 지역의 산물로서 번의 직영 혹은 보호 아래에 경영된 염전은 각지에서 보인다. 이와 비교해 연해도서부의 주민이 식료수요에 응해서 재래방식으로 만들고 있었던 소금에 대해서는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다. 솥으로 끓여서 만드는 소규모 시설이지만 그 솥의 제조와 공급은 지역 내에서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번의 보호와 관리 속에서 솥을 제조하고 마을들에 대출하는 방식을 취한 가가번(加賀藩) 같은 번도 있었다. 혹은 더욱 소규모인 재래방식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량의 땔나무가 필요하며, 이 나무, 즉 「시오기(塩木)」를 얻기 위해서도 물물교환이 필수적이었다.

8) 세가와(瀨川)에 의한 보고는 에히메현(愛知県) 마사키(松前)의 오타타-산 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의 물물교환, 도쿠시마현(德島県)의 가이후군(海部郡) 일대의 이타다키라고 불린 여성들의 교환활동, 시마네현(島根県) 나미고 (波子) 의 어촌 부인들이 물고기의 물물교환으로부터 행상에 발전한 사례, 후쿠오카현(福岡県) 가네가사기 (鐘ヶ崎) 의 해녀촌락과 내륙농촌과의 교환·교류 관계, 이토시마(糸島) 반도일대에 널리 보여진 시가라고 하는 교환습속, 교토부(京都府) 단고(丹後) 반도의 소데시(袖志) 주변의 해녀촌락과 농촌의 교환, 야마구치현(山口県) 타마에우라(玉江浦)의 여성들의 가네리, 시마(志摩) 반도의 해녀촌락의 사례등 중부이남의 일본각지에 달하고 있다 (주).

9))해녀·해사에 대해서는, 규슈(九州)의 鐘ヶ崎, 이토시마(糸島) 반도, 오이타현(大分県)의 쓰루(都留), 사가노세키(佐賀關), 쓰시마(對馬)의 마가리 (曲) , 야마구치현(山口県)의 오우라(大浦), 단고(丹後)반도의 소데시(袖志), 에치젠 (越前)의 오지마(雄島), 노토(能登)의 와지마 (輪島) , 이와테현(岩手県) 코소데 (小袖) , 시마(志摩)의 구자기(國崎), 오우사츠(相差), 이지카 (石鏡) , 기타 보슈(房州)나 이즈(伊豆)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세가와 기요코(瀨川淸子)에 의한 현지조사에 빚지는 곳이 많다 (세가와『아마 (海女) 』,『販女』).

10) 일본의 동북지방에 대해서는 민속학자가 그다지 관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거의 보고되지 않았지만, 나는 어머니에게서 예전에 연해어촌의 여성들이 물고기를 가지도 산을 넘어서 판매하러 와 있었던 것을 듣고 있었다. 또 학생시절에 산리쿠(三陸)를 여행했을 때에 벽지인 땅 끝에 위치하는 어촌에서, 여성들이 바다고기의 포나 미역등을 가지고 행상에 외출하는 것을 듣고, 반신반의해서 이시노마키(石卷)의 역 가까이 정해진 숙소를 찾아가서 바다고기를 마른 포나 미역을 대량으로 맡겨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여성의 활동은 지방에서는 어디서나 보여진 것 같다.

도비시마(飛島)의 사츠키부네(五月船)

그다음으로 주목받은 것이 여성에게 한하지 않고 온 가족으로, 게다가 어업촌락이 전체로 상의해서 매년 날짜를 정해서 일제히 각자 배를 타고, 농산물과 교환을 하는 예다. 야마가타현(山形県)의 도비시마(飛島)와 이시카와현(石川県) 노토반도(能登半島) 예가 알려져 있다. 도비시마(飛島) 사례는 하야카와 고타로(早川孝太郎)가 노변정서 중의 한권에서 이 섬의 소개를 겸한 여행기 같은 소책자로 보고했다.
도비시마(飛島)는 야마가타현(山形県) 사카타(酒田)의 앞바다 30여 km에 위치하는 섬이다. 예부터 이 해역은 겨울 강풍의 시기 유일한 피난항이었다. 세 개 촌락의 총 호수는 1877년 160호, 인구 1,001명이며, 1920년대에는 170여 호, 인구 1,500으로 증가했다. 밭이 될 만한 땅은 한정되어 섬 전체가 어업에 의존하는 섬이다. 번정시대에는 쓰루오카(鶴岡)번에 말린 오징어를 헌납하였다. 메이지(明治)이후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쓰루오카(鶴岡)의 사카이(酒井)씨에게 오징어를 납부하고 있었다. 해변의 해초 채취 등의 작업은 거의 다 공동으로 행해져, 미역을 건조한 것과 우뭇가사리, 소금 누룩에 담근 정어리를 저장해 두고, 5월에 바다 건너편 농촌과 교환했다. 이 관습은 적어도 300년 전부터 행해졌고, 매년 미리 날을 정해서 가족마다 자가의 배에 올라타, 섬의 배 모두가 기를 세우고 일제히 배를 냈다. 각 가정에서는 미역을 썰고 바다 고기를 담아두는 등의 준비를 했다. 노인이나 어린이는 일부만 집에 남겨두고 가족 거의 모두가 배에 올라탔다. 배는 건너편의 후쿠라(福良) 항구에 정류했고 항구 가까이에 숙소를 정하였고 농촌과의 교환의 장부 (帳簿) 를 보완하는 등 농가와의 중개역도 해내고 있었다. 가정마다 짐을 업고 내륙농촌의 단골집을 소꿉친구의 농가에게 외출, 농가의 측에서는 이미 슬슬 올 때라고 생각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오월 모내기 시기에 나가는 배를「사츠키부네」혹은「하루부네」라고 하였고 수확이 마친 가을에 다시 같이 배를 내보내고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받았다. 교환대상은 야마가타현(山形県)의 농촌지방이며 배마다 교환 상대의 농가가 정해지어 있어서「단가」라고 부르고 있었다.「단가」의 실태에 대해서는 그후 시오다 데이이치(鹽田定一)에 의한 보고가 있어, 170여 호의 어민이 건너편의 농촌부에 가진「단가」수는 11, 000호에 달했다. 한집당 평균 65호 정도가 된다 (鹽田, 1934).
도비시마(飛島)의 사츠키부네에 의한 교환관계는 식량의 물물교환에 머무르지 않는다.
예전에는「단가」와의 사이에는 노동력의 면에도 상호관계가 보였다. 농가 측에서는 농번기에 한정해서 도비시마(飛島)의 딸들을「봉공 (奉公) 」으로 받아들이고 또 도비시마(飛島) 측에서는 농가의 어린이를 「모라이고 (貰い子) 」로 받았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러한「모라이고 (貰い子) 」의 관습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있었던 연해지방에서 먹는 식구 (食いぶち) 를 줄이기 위한 관습으로서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또 교환 상대인 농가와의 사이에는 혼인 관계도 보고되어 있다. 도비시마(飛島)에서는 옛날부터 인구가 1000명을 넘으면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늘어나는 식구를 이런 식으로 섬 외에 내보내는 길을 준비했다. 건너편 농촌부 이외에도 이 섬을 중계지로서 홋카이도 (北海道) 나 가라후토(樺太)에 출어하는 배가 기항하면 그 어부로서 고용되어 가며, 혹은 서쪽의 규슈(九州)나 조선해역으로도 나갔고, 메이지(明治) 이후 여성은 직물공장에 여공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고 했다.

와지마 (輪島) 아마마치(海士町)의「나다 마와리 (灘廻り) 」

노토반도(能登半島)의 와지마의 (輪島) 어촌과 농촌사이의 교환도 많은 관심을 불러왔다. 와

지마의 아마마치(海士町)와 헤구라지마 (舳倉島) 를 거점으로 하는 해녀 어민의 생활은 연해 도서지방의 전업 어민의 생태로서 중요한 사례를 제공해 왔다. 이 어민집단은 규슈(九州) 가네가사키(鐘ヶ崎)의 해녀가 계절적인 출어를 되풀이하면서 각지로 분산해소 정착한 집단의 하나와 알려져 있다. 가네가사키의 해녀는 후쿠오카(福岡)의 시카노시마(志賀島) 및 이키섬(壹岐島), 쓰시마(對馬)의 해녀 집단과 계보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고, 그 서쪽의 이토시마(糸島) 반도의 해녀와 함께 규슈(九州) 북부해역을 널리 영해로 영위한 표류적 성격을 띤 어민집단이라고 보아도 좋다. 그 역사는 예부터 문헌에 나타나고 쓰시마(對馬)의 국방 때문에 물자운반에 동원되어서 바다에서 죽은 아라오(荒雄)라는 어부를 애도하는 노래는 만요집(万葉集)에도 수록되고 있다. 세가와(瀨川)는 가네가사키(鐘ヶ崎)의 아마(海女, 海士)는 규슈(九州)만 아니라 계절출어로 조슈(長州) 오우라(大浦)를 비롯, 단고(丹後)반도의 소데시(袖志), 노토반도(能登半島), 북방으로는 오가(男鹿) 반도나 홋카이도의 이시리(利尻島)까지 나가서 해변에 가설된 판자집에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노토반도(能登半島)에는 1569년에 하쿠이(羽咋)군 바닷가에 13명이 상륙하여 157년까지 여름은 노토(能登)로 겨울은 규슈(九州)에서 지내는 계절이동을 되풀이하였다. 1594년에는 노토(能登)의 해안에 집을 빌려서 정주를 시작해 1617년에는 와지마(輪島) 가까이 미츠우라(光浦)에서 집 14호를 세워서 정주하고 있었다.

1649년에는 가가번(加賀藩)에 전복을 헌상한 일을 기회로 번으로부터 와지마에 1000평의 대지를 받아서 그것이 오늘까지 아마마치(海士町)로 계승해 왔다 (이노쿠마(猪熊), 1950)[11]

정착 후에도 그 지역 재래의 어업촌락과 사이에 헤구라지마 (舳倉島)의 어장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었으나 최종적으로 1901년에 해결되었다. 그 후는 여름은 헤구라지마(舳倉島)에서 지내고 겨울은 와지마에 돌아오는 계절이동을 해왔다. 1993년 당시의 세대수는 와지마에 218가구, 헤구라지마(舳倉島) 등 노토(能登) 연해에 459가구로 보고되어 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육상에는 택지를 소유할 뿐이고 모든 세대가 전업으로 어업을 하고 있다. 여성에 의한 잠수 어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와지마 집단은「海士」라고 표기되고 있다.

와지마의 아마마치(海士町)의 주민은, 여름의 3개월 반을 헤구라지마(舳倉島)에서 어업생활로 보내고, 그것이 끝나면 어획한 어패류(魚介類)를 누룩에 담그고, 소금절임, 해초 등을 배에 쌓고, 10월 하순으로부터 40일 간 정도를「나다마와리」라고 해서 노토반도(能登半島)의 농촌지방을 돌면서 농가와 물물교환을 했다(沖谷, 1934). 노토반도(能登半島)에서도 주로 동쪽의 우치우라(內浦)의 농촌을 상대로서, 전성기에는 100척 가까운 배가 일시적으로 배 위에나 빈집 임대, 바닷가에 오두막집을 세워 농가와 교환하려 다녔다. 도비시마(飛島)와 같은 방식으로 교환 상대의 농가는「단나바(旦那場)」라고 불리며 해산물과 농산물 교환에 머무르지 않고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옛날부터 해온 습속으로 발전을 바랄 수 없는 영세한 거래에 지나지 않고, 산업으로서의 경제진흥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어선의 동력화, 대형화에 따라 아마마치(海士町) 어민의 교역 활동은 지리적으로 동북으로는 홋카이도에까지 펼쳐지고, 서쪽으로는 산인(山陰) - 규슈(九州)까지 펼쳐졌다고 하지만 확인된 바는 아니다.

한편으로 최근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아침시장의 인기가 늘고 있다. 이것도 부인들이 상대와 대면해서 직접 거래한다는 점에서는「나다마와리」와 비슷하지만 관광객은 지나가는 그때만의

---

11) 13세기의 설화집『콘쟈쿠모노가타리(今昔物語)』권 31 제21화에는 노토(能登)의 미츠우라(光浦)에서 벌써 어민이 전복을 채집하고 있었던 것, 전복을 헌상하도록 명하니 어민들은 에치고(越後) 쪽에 도망한 것이 적혀 있다. 이 연해지방에는 끊임 없이 이러한 어민이 계절마다 와서 통제하려고 해도 쉽게 굴 하지 않은 모양이 엿봐진다.

상대다. 관광진흥을 위해 행정은 주력하고 있지만 늘어 놓여 있는 해산물 속에 홋카이도산의 냉동된 왕게가 있는 것을 보아 나의 심정은 복잡해진다.

에부네 (家船)

전업어민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에부네 어민이었다. 일반 어민과 달리 예전에는 육지에는 집도 땅도 가지지 못하고 배 위에서 살림한다는 점에서 연해농촌과 공간적으로도 사회적인 면에서도 분리된 어민집단이라고 여겨왔다. 그 실태를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점이 많다. 배를 타고 넓은 해역에서 어업을 했다고 해도 번정시대에는 번의 행정 아래에서 특별한 관행으로 지정된 근거지에서 정유하여 집단이 모였다. 농촌과의 분업체제이자 상호의존하는 관계가 주목된다. 에부네가 돌아다니는 해역의 연해 지역 해변(바닷가)에 그들의 배가 정류하면 여성이 생선을 두상에 이고 가서 가까운 농가와 농산물을 교환했다.
그들이 잡는 해산물은 해변에 있는 물고기나 조개류이며, 잠수 기량과 시각에 의하는 채집수렵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계절적으로 유람해 오는 물고기를 포획하는 것 같은 어법이 아니다. 이러한 어획물은 물결이나 흐름 때문에 기량을 요구되지만, 전문성의 높이와, 경합한다 어민이 없기 때문 생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면도 있다.
에부네는 4~5척(가족) 단위로 이동해서 한 해역에서 몇일 간 조업하고 농가와 물물교환하면서 돌아다녔다. 해변의 바위나 암초의 해산물은 하루에 잡는 어획은 적어도 계절에 그다지 좌우되지 않는 안정된 어장이며, 또 대량유통체제로부터는 벗어나고 있지만, 부인이 혼자로 농가와 대면해서 교환하는 유리한 메리트도 있다.
에부네 가족마다 거래 상대인 농가는 고정되고 있다. 농가 쪽에서는 에부네가 해변에 오면 둘도 없는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 있다. 농산물은 그 날에 받지 않아도 가을의 수확 시기에 받을 수도 있다. 또 땔나무를 뒷산에서 벤다거나, 우물이나 목욕탕을 빌리거나, 폭풍이 치는 날에는 쉰다거나 여려 면에서 도와주기도 했다.
물물교환은 어항 시설과 수산시장의 설치, 연해 지방의 교통로 정비, 유통 업자의 성립에 따라 쇠퇴 일로를 걸었다. 에부네 어민 중에는 육상생활로 이행함에 따라 생선집으로 전직한 사람도 나타났다.
이렇게 에부네 어민과 농촌의 사이의 직접적인 물물교환은 규슈에서는 일찍이 사라지고 다만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에서는 1960년대에도 교통이 불편한 농촌이나 떨어진 섬에서 예외적으로 남아 있었다. 에부네만 아니라 거래 상대인 농촌의 생활도 연해지방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크게 바뀌고, 지역의 산업진흥, 교통과 유통의 개선 등이 지방행정의 과제가 되어 온 것이다.
한편, 대도회로부터 떨어져 관광객도 방문하지 않는 연해도서에는, 해변의 바위나 암초의 어패류(魚介類)를 채집하는 전통어법은 이미 생활을 꾸리는 생업이 되지 못하다. 예전에 에부네의 정박지였던 섬은 매립되어 육지와 연속이 되고, 연해지방의 농촌도 그전의 에부네 후손들과 함께 노령화와 과소화가 진행되어 있다 (伊藤, 1972, 1983, 1992, 2000).
이것이 나가사키현(長崎県)의 모소에서 내가 학생 시절에 현지조사한 에부네 어민과 연해농촌이 겪어나간 길이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서서히 육상사회로 이행이 재촉 되는 과정에서 예전에 번의 비호 아래에 있었던 에부네 집단도 국민으로서의 교육과 병역 의무를 부과받아 번이 제정했었던 어업특권은 상실되었다. 생활이 곤궁해질 때, 정주를 위해서 섬 그늘에 돌을 쌓아 정박지를 만들어준 것은 메이지정부가 아닌 구 영주였던 오무라씨였다. 에부네 집단은 어업

의존이 현저했던 반면, 선상생활과 표류적인 어로 형태는 메이지유신 후의 국민화에 따라 병역, 의무교육, 행정 서비스, 어업권의 상실 등을 배경으로 큰 변용을 피할 수 없었다. 연해도서사회에 대한 사회경제사적인 연구가 늦어진 가운데, 에부네 집단 연구는 극히 어려웠다.
일반 어민들은 산업정책으로 공식의 식료생산 일역을 담당해온 것에 비해서, 연해도서지방의 소규모 어촌은 종래의 민속적인 관습에 의존해 국가의 공식제도 주변부에 위치하게 된 결과, 지역의 자생적 생활상은 존속하는 길이 닫혔다. 기동성이 높은 전업 어민 중에서도 가장 표류적인 선상생활을 해온 에부네 어민은 현지조사도 못하는 상태였다. 그 사이에 생활도 알지 못했다.
에부네 어민 중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상생활을 하면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존속해 온 어망들이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의 일부 섬을 근거지로 삼아 넓은 해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다. 그들조차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에 직면해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모양이다.
사츠키부네로 알려졌던 도비시마(飛島)도 고령화와 인구 유출을 피하는 길을 찾으면서도 그 호수야말로 2004년 당시는 144호를 유지하면서 인구는 316명에 지나지 않고, 2024년의 인구는 더욱 146명까지 반감하고 있다.
도서사회의 민속학 연구가 알려진다고 하면, 주민들이 자기 손으로 생산으로부터 운반 그리고 식량의 교환까지, 수고를 싫어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해결해 온 인간의 원초적이다고도 해야 할 만한 모습을 제시한 점이다. 그 함의를 음미하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어떻게 위치를 부여할지가 우리들 인류학의 과제다.

결어

연해도서사회가 두어진 상황은 지리적으로 또 생태학적으로도 본토사회에서 보면 분명히 주변에 위치해 왔지만, 봉건체제인 번의 행정 하에서 메이지유신 이후로 소위 근대국민국가의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는, 주민의 손에 의한 재래의 지식, 기술, 제도, 조정에 의해 생활의 대부분의 해결이 의도되어 온 것은 더욱 주목되어도 좋다.
지방의 주민은 가정이나 마을이나 지역사회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상황에 따른 생활의 지혜나 기량이나 사회성을 익히는 것이 요구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본토에서 떨어진 도서사회에서는, 큰 섬을 제외하면, 일상의 생활에서 우선된 민속지식이라든가 민속기능은 주위의 자연환경과 부합되어 살려 온 경험, 지식, 신체기능이었다. 민속학이 관찰해 기술해 온 전통문화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 생활이라는 것은, 내륙의 규모가 크고 고도로 분업화나 전문화나 된 체제에 완전히 친숙해진 자의 시선으로 보면, 논리체계와는 분명히 무연한 것이며, 효율이나 생산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산업으로서의 발전성이나 전망이라는 점에서는 적합성을 결여된 것뿐이었다. 에부네의 사례는 너무나 특수라고는 해도, 그러한 생활도 일정한 조건의 밑에서 합리성을 가진 예로서 기억에 남겨야 할 것이다. 해녀어업을 비롯한 연해도서의 어민들의 영세한 생활상이라는 한정된 생태학적인 조건에서, 농촌과의 재래방식인 다원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켜 온 것이다. 그 생활상은 한정된 자연자원을 최대한에 활용하는 지혜나 감성을 살린 것으로, 야나기타가 『시마(嶋)』의 발간의 취지로 언급하다시피 “하나의 섬주민”으로서 공유해야 할 원초적인 생활상을 시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민속학이 시야에 넣어 기술해 온 연해도서사회에서는, 규모와 기술과 보편성에 의해 체계성을

자랑하는 사회의 주변의 일부이며, 적응을 도모하면서도 소외와 주변화를 체험해 온 사람들이 아마도 많았던 것은 틀림없다. 외부사회의 체계와 지역 재래의 비체계적인 생활과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고민은 도서사회에 내재화되어, 그것이 또 생활 현상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고, 혹은 극복의 하나의 길로서 외부사회에 몸을 옮기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인구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민속학의 성과라고 하면 연해도서사회에 한하지 않고 산촌의 생활에 있어서도, 나날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손과 신체로 해결하고 있었던 실천을 기술한 점에 있어, 당시의 지적엘리트가 뒤돌아 보지 않은 인간 생활의 리얼리티였다. 그 생활자가 국민국가라고 하는 통합으로부터 국제사회에 적응을 재촉받고, 현재로는 더욱 보편성이나 효율, 체계성을 지표로 하는 사회에의 적응·편입을 재촉받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에 의한 비인격적인 사회시스템에의 적응이며, 그 점에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며, 도서사회에 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체계성과는 정반대인 생활을 희구하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거리낌 없고 감성을 중시하는 생활, 대중문화, 스포츠나 건강지향, 관광객, 일본에서는「오타쿠」라고 표현되는 생활상 등을 보면 명확하다. 이것들은 가장 비공식이며 동시에 주변시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식이나 체계를 기조로 한는 세상에서는 과제로서 동정(identify)하기 어렵다. 비체계적이며 동시에 비공식이어서 감성을 우선하는 생활은 근대사회에 있어서 주변화되기 쉬운 것이며, 연해도서생활에도 현저한 것이었다.

비체계성과 생활의 구체성와 감성을 소중하는 영역은 관념기피라든가 탈사상이라든가 말해서 부정적으로만 사로잡아야 할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며 동시에 자연스러운 삶의 모양이라고 긍정적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혹은 현대 생활에 있어서 정신위생의 관점에서도 다시 물어봐야 할 과제이며, 이미 섬의 여정을 찾는 여행에도 그 징후가 보인다. 이것도 인류학적인 과제이기도 한다 (伊藤, 2017, 2019).

다행히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한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지만 생활의 충족을 청하여 떨어진 섬을 방문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했다. 먼저 소개한 계몽적인 잡지인『여행과 전설(旅と伝説)』이나『시마(嶋)』,『노변총서』를 보면 명확하다. 현지에서 교류를 통해서 몸으로 실감하는 것의 효용은, 체류형이라든가 참가형이라든가 학습형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새로운 관광으로서 제안되어왔다.

이러한 현지에서의 체험과 학습·교육을 떼어버리지 않고 행하여져 온 현지연수, 학습 투어는, 상호교류를 생애교육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학교육에서도 대학 자체를 지역의 일원이라고 자각해서 지역사회의 현실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도비시마(飛島)도 현지 야마가타현(山形縣)의 대학이 제도적으로 시도하는 것이『SHIMADAS』(日本離島センター、三州社、2004年)에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일본민속학회」에서도 민속학의 실천이라 해서 과제가 되어있다. 하지만 나는 그 현황에 대한 적임자는 아니다.[12)]

---

12) 2000년에 창간된『도서학회(島嶼学会)』의 게재 논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투고되고 있다. 섬의 경제의 지속성에 관계되는 테마, 섬의 생활 모델, 산업화가 아닌 일, 기타, 섬의 환경이나 자원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테마, 노령화에 따르는 문제, 관광에 따르는 문제, 등 도서성에 관련되는 테마가 포함되어 있어, 인류학적인 과제라고 본다.

参考文献

시오다 데이이치(鹽田定一)「도비시마(飛島) 시찰 보고」『시마(嶋)』1934년.
오키다니 다다유키(沖谷忠幸)「헤구라지마 (舳倉島) 의 해녀의 나다마와리」
『사회경제사학』4권 12호, 1934년.
이노쿠마 가네시게(猪熊兼繁)「와지마의 해사의 법사학적 고찰」『인문 (人文) 』4-1, 1950.
세가와 기요코(瀬川清子)「헤구라지마의 해녀 (舳倉島の海女) 」『시마(嶋)』1934년.
同 『해녀 (海女) 』
同 『판녀 (販女) 』
세가와 기요코(瀬川清子)·스즈키 지로(鈴木二郎)「와지마아마마치의 사회생활의 변천 (輪島海士町の社会生活の変遷)」『노토-자연·문화·사회-(能登 - 自然・文化・社会)』九学会連合能登調査委員会編), 平凡社, 1955년.
야나기타 쿠니오 (柳田国男)「아오가시마 왕황기 (상) (중) (하) (青ヶ島往還記) 」『시마(嶋)』4호, 5호 6호, 1933년.
同 『해촌생활의 연구 (海村生活の研究) 』日本民俗学会, 1949년.
하야카와 고타로(早川孝太郎)『우고도비시마 즈시 (「羽後飛島図誌」노변총서, 향토 연구사, 1925년.
스즈키 보구시(鈴木牧之) 『호구에츠셋부 (北越雪譜) 』岩波書店, 1936년.
스가에 마스미 (菅江真澄)「마스미유람기 (真澄遊覧記) 」平凡社東洋文庫、
곤도 도미조 (近藤富藏) 『하치죠 지츠기(八丈實記)』岩波書店, 1936년.
이토오 아비또 (伊藤亞人)「표류 어민의 생태 (漂流漁民の生態) 」 東京大学教養学科紀要(東京大學) 1972년.
同 「漁民集団とその活動」大林太良編『山民と海人』(日本民俗文化大系、第5巻) 小学館、1983年。
同 「中国と日本の漂海漁民」網野義彦編『東シナ海と西海文化』小学館、1992年。同 「海に生きるー糸満の漁民たち」宮田登編『日本列島に生きる人たち』岩波書店, 2000年.
同 『文化人類学で読む 日本の民俗社会』有斐閣、2017年。
同 『日本社会の周縁性』青灯社、2019年。

2부 의민 이두현의 학문과 생애

의민 이두현 기증자료의 현황과 의의

오창현(목포대)

1. 기증 자료 현황

의민 선생(1924.4.2.~ 2013.8.17.)이 기증한 자료의 규모나 내용은 현재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당시 수집해 소장하고 있던 장서, 사진, 녹음테이프 등의 자료를 200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국립문화재연구소(현재 국립문화유산연구소)에 기증하였다. 이때 2만 8천 매 이상[13]의 사진과, 6개 지역(서울, 경기, 황해, 호남, 동해안, 제주)의 현장연구를 통해 수집한 무가 66건이 기증되었다.[14]

이후 2014년 국립무형유산원이 개관하면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던 이두현 기증자료도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증자료 중 도서 21,744권이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이전되었다는 기록만 온라인에서 확인될 뿐, 도서 외 기증자료가 어떤 경로를 거쳐 이관되었는지는 현재로써는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기증자료는 모두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소장 중이다.

이 글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발간한 『이두현 기증 사진집』 6권과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20권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어 금년 7월에 국립무형유산원에 요청해 입수한 국립무형유산원에 보관되어 있는 이두현 기증자료 목록을 간단히 분류해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증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3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기증받은 사진 자료를 토대로 2009년과 2010년 양년에 걸쳐 제의, 무속, 가면극, 놀이를 주제로 『이두현 기증 사진집』 5권을 발간하였다. 각 책의 구성 및 내용, 그리고 해제와 메타정보를 작성한 연구자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발간 연도	제목	구성	내용	비고
2009	1권 제의	이두현 회고록 및 논문 사진해제	○신앙대상 - 장승 외 국사당, 대관령 산신당, 구산성황당 등의 각종 신당 ○제의 - 완도 장좌리 당제, 경기 광주 엄미리, 경기 양주 유양동 산신제, 경북 안동 토계리 서낭제 등	글 홍태한

13) <이두현 기증 사진집> 1권(2009,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러두기와 인사말 참조
14)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1권(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러두기

2009	2~3권 무속	논문 사진해제	(2권) 황도굿, 서울굿, 경기도굿 (3권) 동해안굿, 호남굿, 제주도굿	글 홍태한
2010	4~5권 가면극	논문 사진해제	(4권) 1960~1980 양주별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 (5권) 1960~1980 봉산탈춤, 은율탈춤, 강령탈춤, 북청사자놀음, 통영오광대, 송석하 수집 탈 등	글 박진태
2010	6권 놀이	논문 사진해제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안동차전놀이 등 (각지 민속경연대회 등 공연 사진 다수)	글 박진태

【표 1】 이두현 기증 사진집 구성 및 내용

기증자료집에 수록된 사진 중에는 촬영 장소나 일시가 기재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기증되었을 당시 사진 자료에 대한 메타정보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기증자료 전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진집이 제작되어 간행된 것도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기증자료 하나하나에 관한 연구보다도, 기증자료 전체를 분류한 뒤 이를 이두현 선생의 연구 업적이나 생애와 맞춰 고민해 봐야 각 사진의 촬영장소, 연대 등이 명확해진다.

기증사진집에 이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증한 무가(巫歌), 녹음 자료를 분류·선별해『이두현 기증 무가연구』20권으로 발간하였다. 권별 구성, 내용, 참여연구자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이두현 기증 무가연구』에 실린 무가 연행 사례에는 모두 연행 장소, 시기, 연행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발간하면서 규명된 메타정보는 필자가 금년 7월에 국립무형유산원으로부터 입수한 기증자료 목록에도 표기되어 있다.

발간 연도	제목	구성	내용	비고
2011	1권 경기 양주 유양리 국수당굿	무가, 악보, 논문, 음원, 관련 사진	일시)1974.11.26. 장소)유양리 서쪽 불곡산 중턱 국수당터 굿연행자)조영자 등	(책임) 홍태한 권선경 문봉석
2011	2권 경기 양주 대지동 도당당굿 (부록) 서울 서빙고동 부군당굿	무가, 악보, 논문, 음원, 관련 사진	일시)1972.11.9., 1976.11.26~27. 장소)대지동 도락산 산기슭 굿당 굿연행자)박영남 등	(책임) 홍태한 권선경 문봉석
2012	3~6권 경북 포항 다릿돌 별신굿	무가, 악보, 논문, 음원, 관련 사진	일시)1981.12.10~12.11. 장소) 구만리 일원 및 가설 굿당 굿연행자)김석출 등	(책임) 윤동환 정연락 손정진
2012	7~8권 전남 영암 씻김굿	무가, 악보, 논문, 음원, 관련 사진	일시)1992.9.22.~23. 장소)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2구 냉천동 굿연행자)정화점 외	(책임) 이경엽 김혜정

2013	9권 황해도 진오기굿 10권 황해도 만수대탁굿	무가, 악보, 논문, 음원, 관련 사진	일시)1981~1987 장소)소래포구, 서울 우이동 등 굿연행자)전대주, 김금화	(책임) 홍태한 김경희
2013	11권 제주도 성주풀이	무가, 악보, 논문, 음원, 관련 사진	일시)1980.2.24.~3.1. 장소)제주 이도1동, 신제주 굿연행자)안사인 외	(책임) 강정식 황나영
2013	12권 제주도 수산본향당 신과세제	무가, 악보, 논문, 음원, 관련 사진	일시)1980.2.17., 장소)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수산본향당 굿연행자)조인배 외	
2013	13~20권 동해안 망자혼례굿	무가, 악보, 논문, 음원, 관련 사진	일시)1981.12.13., 1983.5.6.~8. 장소)부산 기장군 대변리 굿연행자)김석출 외	(책임) 윤동환 정연락 손정진

【표 2】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위의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는 모두 11건의 현장연구 중에서 1970년대 초중반에 수집된 자료도 세 건 담고 있다. 그러나 1992년 연행된 전남 영암 씻김굿 무가를 수록한 2012년 7권과 8권을 제외하면 모두 198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현장연구 자료를 정리해 펴낸 것이다. 이두현 기증자료 전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서 단언하긴 어렵지만, 앞서 기증사진집 4권과 5권에 수록된 가면극 관련 사진이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 촬영된 것임을 감안하면, 의민 선생의 무가에 대한 현장연구 자료 수집은 1980년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제목	주무	연행일수	총시간	녹음일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김석출	2일	1260분	1981. 12. 10~12. 11
경남 대변리 오구굿	김석출	3일	900분	1983. 5. 6~5. 8
경남 대변 수망 오구굿	김석출	1일	600분	1981. 12. 13
경북 영일군 청하면 이가리 당제별신굿	김석출	2일	480분	1976. 10. 31~11. 1
이가리별신굿	김석출	1일	600분	1977. 10. 20
백석별신굿	김석출	2일	90분	1977. 11. 19~11. 20
재수굿	–	1일	120분	1977. 11. 12
송정별신굿	김석출	2일	180분	1977. 2. 25~2. 26
강릉단오굿	김석출	5일	720분	1973. 6. 1~6. 2

【표 3】 이두현 기증 동해안 음원자료

그러나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3권의 해제 「이두현 동해안 무속자료의 가치와 의의」에서 홍태한이 제시한 이두현 기증자료 중 동해안과 관련한 음원자료 목록(【표 3】)을 보면 1970년대 중반에 수집된 것도 적지 않다. 다만, 1970년대 의민 선생의 주요한 관심이 동해안 마을굿에서 무가에 있었는지, 아니면 마을굿 자체에 있었는지는 현재로써는 확인하기 어

렵다. 이와 관련, 홍태한은 의민 선생이 위에서 언급된 수집 자료 중 이가리별신굿을 「동해안별신굿」(『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제162호(문화재관리국, 1984))에서 소략하게 기술한 것을 제외하면 학계 일반에 공개된 바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이루어진 전국 마을굿 현장연구가 가면극처럼 논문 형태로 분석되어 공개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3. 전체 기증자료의 분류

필자는 금년 7월 국립무형유산원에 보관되어 있는 기증자료 중 시청각 자료 목록 엑셀 파일을 입수할 수 있었다. 기증자료 목록은 <붙임>과 같으며 모두 607건에 달한다. 다만, 국립무형유산원 측에서는 아직 유물 명세서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수량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기증자료를 유형별로 구분해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유형	세부유형	수량	총합
비디오테이프	VHS	13점	33,286점
음성테이프	카세트테이프	387점	
	릴테이프	109점	
	합계	496점	
필름	35mm	12,469점	
	포지티브 필름	2,302점	
	슬라이드 필름	13,976점	
	네거티브 필름	2,229점	
	인덱스	18점	
	필름	9점	
	합계	31,003	
CD		40점	
인화사진		1,734점	

【표 4】 이두현 기증 자료의 매체별 분류

비디오테이프가 13점, 음성테이프가 496점, 필름(인덱스 포함)이 31,003점, CD 40점, 인화사진 1,734점으로 총 33,286점에 달한다. 이중 CD는 슬라이드 필름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담아 둔 매체로 추정된다. 33,286점은 지금까지 민속학자가 기증한 자료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다.[15]

15) 필자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필자가 국립민속박물관에 있을 때 정리하고 기증자료집으로 발간한 국립민속박물관의 南剛 金泰坤(1936~1996) 기증자료가 최대 규모였다. 남강이 수집한 기증자

이두현 기증자료는 아카이브 자료가 개념적으로 “한 개인이나 조직이 만들거나 수집한 자료”로 “항구적인 가치를 가진 정보를 담고 있거나, 그것의 생산자(혹은 수집자)의 기능과 업적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의미에서 전형적인 아카이브 자료에 속한다.[16] 아카이브 자료의 핵심적인 가치는 자료 자체가 담고 있는 정보에서 나아가 그 ‘생산자’의 특정한 활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내력을 담고 있다는 점에 있다. 결국 기증자료 컬렉션이 갖는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생산자의 활동과 업적을 보존한다는 점이다.[17]

이러한 의미에서 기증자료 컬렉션을 개별적인 자료 하나하나로 쪼개어 정리하는 것은 아카이브 자료의 중대한 가치를 사상할 위험이 있다. 아카이브 자료를 개별적인 자료 수준에서가 아니라, 생산자의 연구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증자료를 ‘원질서’와 ‘출처’의 원칙에 따라 ‘계층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증자료의 집합군으로서의 특징을 드러내는 ‘집합적 기술’을 통해 생산자의 연구 생애 전반에서 이어진 수집 활동이 가진 의미를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현재로써는 필자가 이두현 기증자료를 직접 보면서 정리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입수한 기증자료 목록을 지역별, 주제별로 분류하는 선에서 의민 선생의 기증자료의 현황과 의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도별로 분류하는 것도 고민해 보았지만, 607건 33,286점 목록에는 연도, 장소 등의 메타정보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하였다. <붙임>에서 볼 수 있듯이 연도는 상당수 자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도 33,286점 중 33,024점이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지역을 알 수 있는 일부 자료에 한정해 분류해 보면 아래 【표 5】와 같다.

지역	세부지역	자료명	수량	총합
서울・경기권	서울	종묘대제	1점	61점
		김금화 만수대탁굿(우이동)	5점	
		서빙고동 부군당 도당굿	1점	
		김금화 신곡맞이굿(우이동)	4점	
		김금화 굿(우이동)	8점	
		김금화 지노귀굿(우이동)	1점	
	양주시 (양주군)	양주별산대놀이	11점	
		양주소놀이굿	3점	
		양주 국수당굿	6점	
		신사굿	3점	
		재수굿	3점	

료는 유물 1,299건 1,471점, 사진·영상·음성·서적·조사노트 등이 1,883건 30,198점으로, 총 31,669점이다. 이두현 기증자료는 남강 수집자료보다 약간 더 많다.

16) Richard Pearce-Moses,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5

17) Fredric. M. Miller, 조경구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진리탐구, 2002, 42~46쪽.

		지노귀굿	5점	
	경기도	경기도당굿	10점	
충청도	충정북도	충청북도	11점	11점
전라도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 씻김굿	11점	26점
		진도다시래기	2점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 씻김굿	11점	
		대담	2점	
경상도	경상북도 예천군	청단놀음	1점	74점
	경상북도 안동시	워싱턴의 하회마을 성황님(안동mbc)	1점	
		하회 별신굿 탈놀이	3점	
		안동수몰지구	8점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오광대	3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야류	1점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백중놀이(농악6)	1점	
	경상북도 영일군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20점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남 대변리 오구굿	10점	
		경남 대변 수망 오구굿	9점	
	경상북도 포항시	경남 영일군 청하면 이가리 당제별신굿	7점	
		이가리 별신굿	7점	
	경상북도 영덕군	백석 별신굿	1점	
	부산광역시	송정 별신굿	2점	
강원도	강릉시	강릉 단오굿	10점	10점
황해도	황해도 관련자료	봉산탈춤	10점	32점
		황해도민요	6점	
		전대주 만신 (황해도)백중굿	1점	
		전대주 만신 (황해도)지노귀굿	4점	
		전대주 만신 (황해도)신사굿(꽃말이굿)	1점	
		전대주 만신(황해도)만수대탁굿	4점	
		전대주 만신 탈상굿	4점	
		전대주 만신(황해도) 봄맞이굿	1점	
	평산	평산소놀음굿	1점	
함경도	함경남도	북청사자	2점	2점
제주도	제주도 관련자료	탐라민속예술제(제주민요)	3점	29점
		제주민속조사	1점	
		제주무속-칠성본풀이	1점	
		제주 무속 멩감제	2점	
		제주무속 성주굿	8점	

		제주무속 심왕맞이굿	7점	
		제주무속 안사인과의 대담	1점	
		제주무속 수산리 당굿	3점	
		제주 칠머리 당굿	2점	
		제주무속 조상본풀이	1점	
해외	중국	해외조사(중국)	4점	17점
	일본	해외조사(일본)	13점	
기타	지역을 알 수 없음	마당춤원본	5점	33,024점
		달맞이 축제 및 달집앞 제사광경	1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점	
		남사당놀이	2점	
		각종 민속요	8점	
		농악	5점	
		세시풍속	9점	
		민속조사	4점	
		수산리 세시풍속	2점	
		재수굿	2점	
		봄맞이 신사굿	2점	
		대지동도당굿	4점	
		전대주 무 장수거리	1점	
		우환굿 (박계순무)	1점	
		김옥선/이순자 무 대담	1점	
		원산굿(명사십리해당화)불사천왕굿 (임수월.김명화 무)	2점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서울놀이마당)	15점	
		한국민속예술대회	1점	
		김금화굿	4점	
		최인서 대담	1점	
		전만신굿	1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6점	
		외국축제	11점	
		판소리 및 음악	20점	
		이두현 육성녹음	9점	
		이두현 소형	40점	
		이두현 대형	68점	
		이두현 기증자료	56점	
		미구축 파일	1,734점	
		가면극	7,544점	
		무속	8,199점	
		민속	6,144점	
		풍물	3,486점	
		전국민속경연대회	1,138점	
		전만신 백종굿	1,193점	
		기타	3,283점	

			9,843	33,286

【표 5】 이두현 기증 자료의 지역별 주제별 분류

〈붙임〉 기증자료(시청각) 전체 목록 (편집 필자)2024년 11월 28일

순번	종목명	기증 자료명	원본형태(유형세부)	수량(건/점)	세부 수량 및 비고	생산연도
1		마당춤원본(1)	VHS	1건/1점		미상
2		마당춤원본(2)	VHS	1건/1점		미상
3		마당춤원본(3)	VHS	1건/1점		미상
4		마당춤원본(4)	VHS	1건/1점		미상
5		마당춤원본(5)	VHS	1건/1점		미상
6		종묘대제	VHS	1건/1점		1989
7		달맞이 축제 및 달집앞 제사 광경	VHS	1건/1점		미상
8		양주산대놀이(춤사위)	VHS	1건/1점		미상
9		청단놀음	VHS	1건/1점		미상
10		민속예술경연대회	VHS	1건/1점		1989
11		워싱턴의 하회마을 성황님(안동MBC)	VHS	1건/1점		미상
12		韓國 1993 揚州別山台-國立民族學博物館	VHS	1건/1점		1993
13		韓國 1993 大韓民國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 國立民族學博物館	VHS	1건/1점		1993
14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5
15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5
16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0
17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8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9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20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21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 8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22	양주별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 9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23	봉산탈춤	봉산탈춤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64
24	봉산탈춤	봉산탈춤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65
25	봉산탈춤	봉산탈춤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26	봉산탈춤	봉산탈춤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27	봉산탈춤	봉산탈춤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국립극장	1974
28	봉산탈춤	봉산탈춤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국립극장	1977
29	봉산탈춤	봉산탈춤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국립극장	1977
30	봉산탈춤	봉산탈춤 8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국립극장	1977
31	봉산탈춤	봉산탈춤 9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32	봉산탈춤	봉산탈춤 10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33	통영오광대	통영오광대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34	통영오광대	통영오광대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35	통영오광대	통영오광대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36	동래야류	동래야류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37	북청사자놀음	북청사자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38	북청사자놀음	북청사자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39	남사당놀이	남사당놀이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40	남사당놀이	남사당놀이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국립극장	1977
41	황해도평산소놀음굿	평산소놀음굿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6
42	양주소놀이굿	양주소놀이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5
43	양주소놀이굿	양주소놀이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5
44	양주소놀이굿	양주소놀이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5
45		황해도민요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46		황해도민요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47	서도소리	황해도민요 3(배뱅이굿)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48	서도소리	황해도민요 4(배뱅이굿)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49		황해도민요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50	서도소리	황해도민요 6(배뱅이굿)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51	강강술래	각종 민속요 1(진도들노래.강강술래)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진도	1972
52	강강술래	각종 민속요 2(강강술래(심우성 녹음))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53		각종 민속요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익산	1977
54		각종 민속요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울산	1986
55		각종 민속요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56		각종 민속요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전북	1979
57		각종 민속요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3
58		각종 민속요 8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59	농악	농악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60	농악	농악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61	농악	농악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62	농악	농악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3
63	농악	농악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3
64	밀양백중놀이	농악6(밀양백중놀이(잡귀막이굿, 모정자놀이, 농신제, 말놀음, 오북놀이, 끝놀이))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65		세시풍속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5
66		세시풍속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5
67		세시풍속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68		세시풍속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69		세시풍속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0
70		세시풍속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0
71		민속조사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72		민속조사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73		민속조사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74		민속조사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75		안동수몰지구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76		안동수몰지구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77		안동수몰지구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78		안동수몰지구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79		안동수몰지구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2
80		안동수몰지구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81		안동수몰지구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2
82		안동수몰지구 8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83		충청북도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84		충청북도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85		충청북도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86		충청북도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87		충청북도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88		충청북도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89		충청북도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90		충청북도 8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91		충청북도 9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92		충청북도 10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93		충청북도 1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5
94	제주민요	탐라민속예술제 1(제주민요)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95	제주민요	탐라민속예술제 2(제주민요)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96		탐라민속예술제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0
97		제주민속조사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98		수산리 세시풍속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99		수산리 세시풍속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100		세시풍속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101		세시풍속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102		세시풍속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0
103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04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05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06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07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08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09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10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8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11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9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12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10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13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1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14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1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15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1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16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1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17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1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18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1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19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1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20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18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21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19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1
122		경북 영일군 구만리 다리별신굿 20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구만리	1983
123		경남 대변리 오구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3

124		경남 대변리 오구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3
125		경남 대변리 오구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3
126		경남 대변리 오구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3
127		경남 대변리 오구굿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3
128		경남 대변리 오구굿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3
129		경남 대변리 오구굿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3
130		경남 대변리 오구굿 8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3
131		경남 대변리 오구굿 9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3
132		경남 대변리 오구굿 10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3
133		경남 대변 수망 오구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대변리	1981
134		경남 대변 수망 오구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대변리	1981
135		경남 대변 수망 오구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대변리	1981
136		경남 대변 수망 오구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대변리	1981
137		경남 대변 수망 오구굿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대변리	1981
138		경남 대변 수망 오구굿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대변리	1981
139		경남 대변 수망 오구굿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대변리	1981
140		경남 대변 수망 오구굿 8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대변리	1981
141		경남 대변 수망 오구굿 9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대변리	1981
142		경북 영일군 청하면 이가리 당제별신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이가리	1976
143		경북 영일군 청하면 이가리 당제별신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이가리	1976
144		경북 영일군 청하면 이가리 당제별신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이가리	1976
145		경북 영일군 청하면 이가리 당제별신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이가리	1976
146		경북 영일군 청하면 이가리 당제별신굿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이가리	1976
147		경북 영일군 청하면 이가리 당제별신굿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이가리	1976
148		경북 영일군 청하면 이가리 당제별신굿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이가리	1976
149		이가리 별신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50		이가리 별신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51		이가리 별신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52		이가리 별신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53		이가리 별신굿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54		이가리 별신굿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55		이가리 별신굿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56		백석 별신굿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57		재수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58		재수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59		송정 별신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60		송정 별신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61		강릉 단오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162		강릉 단오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163		강릉 단오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164		강릉 단오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165		강릉 단오굿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166		강릉 단오굿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167		강릉 단오굿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168		강릉 단오굿 8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169		강릉 단오굿 9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170		강릉 단오굿 10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171	진도씻김굿	진도 씻김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72	진도씻김굿	진도 씻김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73	진도씻김굿	진도 씻김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174	진도씻김굿	진도 씻김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1
175	진도씻김굿	진도 씻김굿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1
176	진도씻김굿	진도 씻김굿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1
177	진도씻김굿	진도 씻김굿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1
178	진도씻김굿	진도 씻김굿 8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1
179	진도씻김굿	진도 씻김굿 9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1
180	진도씻김굿	진도 씻김굿 10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1
181	진도씻김굿	진도 씻김굿 1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182	진도다시래기	진도다시래기(국립극장공연)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183	진도다시래기	진도다시래기(국립극장공연)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184		영암 씻김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2
185		영암 씻김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2
186		영암 씻김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2
187		영암 씻김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2
188		영암 씻김굿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2
189		영암 씻김굿 김만곤 경무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광주	1992
190		영암 씻김굿 김만곤 경무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광주	1992
191		영암 씻김굿 정화점 무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광주	1992
192		영암 씻김굿 정화점 무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광주	1992
193		영암 씻김굿 정화점 무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광주	1992
194		영암 씻김굿 정화점 무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광주	1992
195		대담(영암군)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영암	1991
196		대담(영암군)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영암	1991
197		양주 국수당 굿 조영자 무 일행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유양리	1974
198		양주 국수당 굿 조영자 무 일행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유양리	1974
199		양주 국수당 굿 조영자 무 일행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유양리	1974
200		양주 국수당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국수당리	1978
201		양주 국수당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국수당리	1978
202		양주 국수당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국수당리	1978
203		신사굿(김숙자 무)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가납리 장터	1977
204		신사굿(김숙자 무)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가납리 장터	1977
205		신사굿(김숙자 무)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2
206		봄맞이 신사굿(김봉순)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유양리	1977
207		봄맞이 신사굿(김봉순)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유양리	1977
208		재수굿(김경애 무. 중송진유미를 위한)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양주군	1980
209		재수굿(김경애 무. 중송진유미를 위한)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양주군	1980
210		재수굿(김경애 무. 중송진유미를 위한)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양주군	1980
211		지노귀굿(조영자 무)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양주군	1974
212		지노귀굿(조영자 무)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양주군	1981
213		지노귀굿(조영자 무)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양주군	1981
214		지노귀굿(조영자 무)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양주군	1990
215		지노귀굿(조영자 무)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양주군	1974
216		대지동도당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6
217		대지동도당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6
218		대지동도당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6
219		대지동도당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2
220	경기도도당굿	경기도당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인천시 동막	1990
221	경기도도당굿	경기도당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인천시 동막	1990
222	경기도도당굿	경기도당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인천시 동막	1990
223	경기도도당굿	경기도당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인천시 동막	1990
224	경기도도당굿	경기도당굿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인천시 동막	1990
225	경기도도당굿	경기도당굿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인천시 동막	1986
226	경기도도당굿	경기 도당굿(장말 도당굿)	카세트테이프	1건/1점	경기도 부천시	1990
227	경기도도당굿	경기 도당굿(이용우일행)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0
228	경기도도당굿	경기 도당굿(이용우일행)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0
229	경기도도당굿	경기 도당굿(최종민해설)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0
230		서빙고동 부군당 도당굿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서울 서빙고동	1978
231		김금화 무의 굿 (만수대탁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우이동 김씨 굿당	1987
232		김금화 무의 굿 (만수대탁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우이동 김씨 굿당	1987
233		김금화 무의 굿 (만수대탁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우이동 김씨 굿당	1987
234		만수대탁굿 (김금화)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0
235		만수대탁굿 (김금화)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0
236		김금화 신곡맞이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237		김금화 신곡맞이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238		신곡맞이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2
239		신곡맞이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2
240		김금화 굿 (채희아 내림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241		김금화 굿 (채희아 내림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242		김금화 굿 (산치성 : 살문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243		김금화 굿 (산치성 : 살문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244		김금화 굿 (산치성 : 살문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245		김금화 굿 (박씨가를위한재수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246		김금화 굿 (박씨가를위한재수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247		김금화 굿 (박씨가를위한재수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248		지노귀굿 (김금화 무)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6
249		김금화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1
250		김금화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251		김금화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252		김금화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253		전대주 만신 (황해도)백중굿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254		전대주 만신 (황해도)지노귀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255		전대주 만신 (황해도)지노귀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256		전대주 만신 (황해도)지노귀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257		전대주 만신 (황해도)지노귀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258		전대주 만신 (황해도)신사굿(꽃말이굿)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5
259		전대주 무 장수거리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260		전대주 만신(황해도) 봄맞이굿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6
261		전대주 만신(황해도)만수대탁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262		전대주 만신(황해도)만수대탁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263		전대주 만신(황해도)만수대탁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264		전대주 만신(황해도)만수대탁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265		전만신 굿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266		전대주 만신 탈상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267		전대주 만신 탈상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268		전대주 만신 탈상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269		전대주 만신 탈상굿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270		우환굿 (박계순무)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271		김옥선/이순자 무 대담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9
272		원산굿(명사십리해당화)불사천왕굿(임수월.김명화 무)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1
273		원산굿(명사십리해당화)불사천왕굿(임수월.김명화 무)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1
274		제주무속-칠성본풀이(안춘자 무 구송. 현용준 채록)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제주	1962
275		제주 무속 멩감제1 (안사인 신방)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제주	1980
276		제주무속 멩감제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제주	1980
277		제주무속 성주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제주	1980
278		제주무속 성주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제주	1980
279		제주무속 성주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제주	1980
280		제주무속 성주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제주	1980
281		제주무속 성주굿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제주	1980
282		제주무속 성주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제주	1980
283		제주무속 성주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제주	1980
284		제주무속 성주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제주	1980
285		제주무속 심왕맞이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수근동 문씨가	1979
286		제주무속 심왕맞이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수근동 문씨가	1979
287		제주무속 심왕맞이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수근동 문씨가	1979
288		제주무속 심왕맞이굿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수근동 문씨가	1979
289		제주무속 심왕맞이굿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수근동 문씨가	1979
290		제주무속 심왕맞이굿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수근동 문씨가	1979
291		제주무속 심왕맞이굿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수근동 문씨가	1979
292		제주무속 조상본풀이(안사인)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제주도	미상
293		제주무속 안사인과의 대담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제주도	1979
294		제주무속 수산리 당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제주도 수산리	1980
295		제주무속 수산리 당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제주도 수산리	1980
296		제주무속 수산리 당굿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제주도 수산리	미상
297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주 칠머리 당굿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2000
298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제주 칠머리 당굿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2000
299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 별신굿 탈놀이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풍산읍 하리2동	1978
300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 별신굿 탈놀이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부동123문화회관	1978
301	하회별신굿탈놀이	하회 별신굿 탈놀이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302		최인서 대담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303		해외조사(중국)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4
304		해외조사(중국)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4
305		해외조사(중국)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4
306		해외조사(중국)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4
307		해외조사(일본)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308		해외조사(일본)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309		해외조사(일본)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310		해외조사(일본)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311		해외조사(일본)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312		해외조사(일본)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313		해외조사(일본)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314		해외조사(일본) 8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15		해외조사(일본) 9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16		해외조사(일본) 10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17		해외조사(일본) 1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18		해외조사(일본) 1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19		해외조사(일본) 1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320	양주별산대놀이 동래야류 강령탈춤 밀양백중놀이 동해안별신굿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1 (마당종목,서울놀이마당) (A : 동해안별신굿 B: 동래야유(상여)→밀양백중놀이 →양주별산→강령탈춤)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서울놀이마당	1986
321	고성오광대 강강술래 북청사자놀음 남도들노래 은율탈춤 고성농요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2 (마당종목,서울놀이마당) (A :남도들노래→강강술래→ 북청사자 B :북청사자→고성농요→ 고성오광대→은율탈춤)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서울놀이마당	1986
322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3 (마당종목,서울놀이마당)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서울놀이마당	1986
323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4 (마당종목,서울놀이마당)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서울놀이마당	1986
324	통영오광대 이리농악 피리정악 및 대취타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5 (마당종목,서울놀이마당) (A : 통영오광대 B : 대취타,이리농악)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서울놀이마당	1990
325	양주별산대놀이 이리농악 양주소놀이굿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6 (마당종목,서울놀이마당) (A : 이리농악→양주소놀이 B : 양주별산대)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서울놀이마당	1990
326	평택농악 승무 발탈 태평무 살풀이춤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7 (마당종목,서울놀이마당) (A : 평택농악→이동안공연 →살풀이,승무 B : 태평무→엇중모리→ 신칼대신무→발탈)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서울놀이마당	1990
327	줄타기 발탈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8 (마당종목,서울놀이마당) (A : 발탈→줄타기, B : 없음)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서울놀이마당	1990
328	남사당놀이 강령탈춤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9 (마당종목,서울놀이마당) (강령탈춤, 꼭두각시놀음)	카세트테이프	1건/1점	서울놀이마당	1980
329	남사당놀이 고성오광대 북청사자놀음 강령탈춤 피리정악 및 대취타 고성농요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10 (마당종목,서울놀이마당) (A : 강령탈춤→고성농요 →북청사자 B : 대취타→남사당놀이(풍물, 꼭두각시놀음, 고성오광대))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6
330	통영오광대 강릉농악 동래야류 양주소놀이굿 진도다시래기 예천통명농요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11 (마당종목,서울놀이마당) (A : 진도다시래기→동래야유 →강릉농악→통영오광대 B :양주소놀이굿→예천통명→농요)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1
331	이리농악 은율탈춤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12 (마당종목,서울놀이마당) (A : 동명농요→은율탈춤 B : 은율탈춤→이리농악)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1
332	평택농악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13 (마당종목,서울놀이마당) (A : 진도들노래→평택농악 B : 농악)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1
333	평택농악 이리농악 봉산탈춤 강령탈춤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14 (마당종목,서울놀이마당)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1

	수영야류 남도들노래 좌수영어방놀이 하회별신굿탈놀이 예천통명농요	(A: 강령탈춤→이리농악 →예천통명농요→수영야류→좌수영 어방→봉산탈춤 B: 봉산탈춤→평택농악 →화회별신굿→남도들노래)				
334	남사당놀이 농악 강령탈춤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15 (마당종목,서울놀이마당) (A: 강령탈춤→무형문화재공연 (마당종목) B: 어덕수궁,농악,꼭두각시놀음)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1
335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336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2
337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5
338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5
339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5
340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5
341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342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8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343	강강술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9(강강수월래)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344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0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345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346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347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0
348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0
349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0
350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0
351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52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8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53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54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0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55	제주민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1 (A : 김천농악→임실들노래→ 제주도민요→뱃노래)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356	강령탈춤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2 (A :차산농악→제주방아돌→ 굴리는노래→강령탈춤→제주영감놀 이, B : 제주영감놀이→영감)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0
357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2
358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359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2
360	농악 좌수영어방놀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26 (A : 좌수영어방놀이, 소놀이굿 B : 농악)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361		외국축제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5
362		외국축제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63		외국축제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364		외국축제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365		외국축제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366		외국축제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367		외국축제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68		외국축제 8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69		외국축제 9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70		외국축제 10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71		외국축제 1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72	판소리	판소리 및 음악 1 (판소리(박동진-적벽가))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1
373	판소리	판소리 및 음악 2 (판소리(심청가) A : 박동진(심청가) B : 김소희(심청가))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374	판소리	판소리 및 음악 3 (심청가(김소희))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375	판소리	판소리 및 음악 4 (판소리(박초선외) A : 춘향가→수궁가→ 춘향가→수궁가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2

		B : 수궁가)				
376	판소리 진도다시래기	판소리 및 음악 5 (판소리.다시래기(진도) A : 단가→홍보가(하순자) B : 다시래기실황→가상제 →가래노래)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3
377		판소리 및 음악 6 (호적과 사물놀이(김석출))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378	종묘제례악	판소리 및 음악 7 (종묘제례악)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5
379		판소리 및 음악 8 (영산회상 A : 상영산→중영산→세영산→ 가악제지→삼현환입 →하현환입→염불환입 B : 군악→타령)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7
380	승무 태평무 살풀이춤	판소리 및 음악 9 (이애주 춤판(반주음악) A : 승무→살풀이→태평무 B : 태평무)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0
381	살풀이춤	판소리 및 음악 10 (김숙자 무무 A : 살풀이)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82	승무 영산재 살풀이춤	판소리 및 음악 11 (A : 범패→승무→검무→살풀이 →법고,나비춤→바라춤)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383	판소리	판소리 및 음악 12 (김동진 심청가 A : 4막 21장)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384	판소리	판소리 및 음악 13 (김동진 심청가)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8
385	제주칠머리당영등굿	판소리 및 음악 14 (제주 당굿.탈놀음굿 A : 제주도 칠머리당굿(안사인),법고 B : 탈놀음굿(김석출일행))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86	시나위 경기민요	판소리 및 음악 15 (경기민요(한국민속음악) A : 경기아리랑 (경복궁타령-전태룡)→ 노래가락→창부타령→가야금연주 B: 시나위합주→아쟁산조 →구아리랑(기악))	카세트테이프	1건/1점		미상
387	판소리	판소리 및 음악 16 (성우향춘향가 (1) A : 김세종제 춘향가 완창)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4
388	판소리	판소리 및 음악 17 (성우향춘향가 (2) A : 김세종제 춘향가 완창(사랑가, 춘향모친이 나옴))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4
389	판소리	판소리 및 음악 18 (성우향춘향가 (3) A : 김세종제 춘향가 완창(행군견월~돈타령) B : 사령뒤를~남원한량들이)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4
390	판소리	판소리 및 음악 19 (성우향춘향가 (4) A : 김세종제 춘향가 완창(사정이는 춘향을 얻고~농부가) B : 어사농부들과 농담~춘향모자랑)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4
391	판소리	판소리 및 음악 20 (성우향춘향가 (5) A : 김세종제 춘향가 완창(춘향모자랑~생일잔치) B : 금주미주는~더질더질)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94

392		이두현 육성녹음 1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393		이두현 육성녹음 2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4
394		이두현 육성녹음 3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6
395		이두현 육성녹음 4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81
396		이두현 육성녹음 5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397		이두현 육성녹음 6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398		이두현 육성녹음 7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399		이두현 육성녹음 8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3
400		이두현 육성녹음 9	카세트테이프	1건/1점		1974
401	양주별산대놀이	이두현소형070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02	양주별산대놀이	이두현소형071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03	통영오광대	이두현소형072	릴테이프	1건/1점		1964
404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이두현소형073	릴테이프	1건/1점		1964
405	고성오광대	이두현소형074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06		이두현소형075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07	동래야류	이두현소형076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08	동래야류	이두현소형077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09		이두현소형078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10		이두현소형079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11		이두현소형080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12		이두현소형081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13		이두현소형082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14		이두현소형083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15		이두현소형084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16		이두현소형085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17		이두현소형086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18		이두현소형087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19		이두현소형088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20		이두현소형089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21		이두현소형090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22		이두현소형091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23		이두현소형092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24		이두현소형093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25		이두현소형094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26		이두현소형095	릴테이프	1건/1점		1963
427		이두현소형096	릴테이프	1건/1점		1968
428		이두현소형097	릴테이프	1건/1점		1968
429		이두현소형098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30		이두현소형099	릴테이프	1건/1점		1968
431		이두현소형100	릴테이프	1건/1점		1968
432		이두현소형101	릴테이프	1건/1점		1968
433		이두현소형102	릴테이프	1건/1점		1968
434		이두현소형103	릴테이프	1건/1점		1968
435		이두현소형104	릴테이프	1건/1점		1968
436		이두현소형105	릴테이프	1건/1점		1968
437		이두현소형106	릴테이프	1건/1점		1968
438		이두현소형107	릴테이프	1건/1점		1968
439		이두현소형108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40		이두현소형109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41		이두현대형001(대담신극사1)	릴테이프	1건/1점		1968
442		이두현대형002(대담신극사2)	릴테이프	1건/1점		1968
443		이두현대형003(대담신극사3)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44		이두현대형004(대담신극사4)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45	양주별산대놀이	이두현대형005(양주산대놀이)	릴테이프	1건/1점		1958
446	송파산대놀이	이두현대형006(송파산대놀이)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47	송파산대놀이	이두현대형007(송파산대놀이)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48	통영오광대	이두현대형008(통영오광대)	릴테이프	1건/1점		1964
449		이두현대형009(양주달고지)	릴테이프	1건/1점		1972
450	수영야류	이두현대형010(수영야류)	릴테이프	1건/1점		1970
451	수영야류	이두현대형011(수영야류)	릴테이프	1건/1점		1970
452	송파산대놀이	이두현대형012(송파산대놀이)	릴테이프	1건/1점		1970
453	남사당놀이	이두현대형013(꼭두각시놀음)	릴테이프	1건/1점		1964
454	북청사자놀음	이두현대형014(북청사자놀음)	릴테이프	1건/1점		1966
455	양주소놀이굿	이두현대형015(소놀이굿1)	릴테이프	1건/1점		1964
456	양주소놀이굿	이두현대형016(소놀이굿2)	릴테이프	1건/1점		1967
457	양주소놀이굿	이두현대형017(소놀이굿3)	릴테이프	1건/1점		1967

458	양주소놀이굿	이두현대형018(소놀이굿4)	릴테이프	1건/1점		1967
459	봉산탈춤	이두현대형019(봉산탈춤대사)	릴테이프	1건/1점		1965
460	봉산탈춤	이두현대형020(봉산탈춤대사)	릴테이프	1건/1점		1964
461		이두현대형021(조영자무가)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62		이두현대형022(서울재수굿1)	릴테이프	1건/1점		1966
463		이두현대형023(서울재수굿2)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64	농악	이두현대형024(농악과 굿)	릴테이프	1건/1점		1971
465		이두현대형025(김금화 무 신사굿)	릴테이프	1건/1점		1972
466		이두현대형026(해주만신굿1)	릴테이프	1건/1점		1972
467		이두현대형027(해주만신굿2)	릴테이프	1건/1점		1972
468		이두현대형028(전만신백중굿1)	릴테이프	1건/1점		1974
469		이두현대형029(전만신백중굿2)	릴테이프	1건/1점		1974
470		이두현대형030(전만신백중굿3)	릴테이프	1건/1점		1974
471		이두현대형031(전만신백중굿4)	릴테이프	1건/1점		1974
472		이두현대형032(전만신백중굿5)	릴테이프	1건/1점		1974
473		이두현대형033(제주도무당굿놀이1)	릴테이프	1건/1점		1965
474		이두현대형034(제주도무당굿놀이2)	릴테이프	1건/1점		1965
475		이두현대형035(제주도무당굿놀이3)	릴테이프	1건/1점		1965
476		이두현대형036(해남무가1)	릴테이프	1건/1점		1966
477		이두현대형037(해남무가2)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78		이두현대형038(김해맹격)	릴테이프	1건/1점		1967
479		이두현대형039(제주무속)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80		이두현대형040(전남.충남.경북-장제등1)	릴테이프	1건/1점		1972
481		이두현대형041(전남.충남.경북-장제등2)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82		이두현대형042(전남.충남.경북-장제등3)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83		이두현대형043(충남서해도서1)	릴테이프	1건/1점		1973
484		이두현대형044(충남서해도서2)	릴테이프	1건/1점		1973
485		이두현대형045(충남서해도서3)	릴테이프	1건/1점		1973
486		이두현대형046(세시풍속(부락제 A))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87		이두현대형047(세시풍속(부락제 B))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88		이두현대형048(전북세시풍속1)	릴테이프	1건/1점		1970
489		이두현대형049(전북세시풍속2)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90		이두현대형050(전북세시풍속3)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91		이두현대형051(乞粒. 성조풀이. 占卜)	릴테이프	1건/1점		1967
492		이두현대형052(진도들노래)	릴테이프	1건/1점		1972
493		이두현대형053(잡가 민요)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94		이두현대형054(농악 기타)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95		이두현대형055(아악 기타)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96		이두현대형056(판소리 단가)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497	판소리	이두현대형057(판소리)	릴테이프	1건/1점		1972
498	판소리	이두현대형058(판소리)	릴테이프	1건/1점		1970
499	판소리	이두현대형059(판소리)	릴테이프	1건/1점		1973
500	판소리	이두현대형060(판소리)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501		이두현대형061(허도령곡)	릴테이프	1건/1점		1964
502		이두현대형062(일본경음악)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503	봉산탈춤	이두현대형063(봉산탈춤방송)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504		이두현대형064(KBS골든하프출품작-초분)	릴테이프	1건/1점		1977
505	봉산탈춤	이두현대형065(KBS봉산탈춤)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506		이두현대형066(한국어학본)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507		이두현대형067(한국어학본 제1부)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508		이두현대형068(French1)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509		이두현대형069(Apprenons le Francaise2)	릴테이프	1건/1점		미상
510		이두현 기증자료	35mm 필름	1건/56점	35mm필름 56장	2008
511		미구축(book1)	슬라이드필름	1건/286점	인화사진 286장	2008
512		미구축(book2)	슬라이드필름	1건/100점	인화사진 100장	2008
513		미구축(book3)	슬라이드필름	1건/302점	인화사진 302장	2008
514		미구축(book4)	슬라이드필름	1건/127점	인화사진 127장	2008
515		미구축(book5)	슬라이드필름	1건/152점	인화사진 152장	2008
516		미구축(book6)	슬라이드필름	1건/262점	인화사진 262장	2008
517		미구축(book7)	슬라이드필름	1건/115점	인화사진 115장	2008
518		미구축(book8)	슬라이드필름	1건/167점	인화사진 167장	2008

519		미구축(book9)	슬라이드필름	1건/233점	인화사진 223장	2008
520		가면극 1	CD/슬라이드 필름	1건/184점	CD 1건/슬라이드 필름183장	2005
521		가면극 2	CD/슬라이드 필름	1건/202점	CD 1건/슬라이드 필름201장	2005
522		가면극 3	CD/슬라이드 필름	1건/203점	CD 1건/슬라이드 필름202장	2005
523		무속 1	CD/슬라이드 필름	1건/44점	CD 1건/슬라이드 필름43장	2005
524		민속 1	CD/슬라이드 필름	1건/141점	CD 1건/슬라이드 필름140장	2005
525		기타 1	CD/슬라이드 필름	1건/59점	CD 1건/슬라이드 필름 58장	2005
526		무속 1	CD/슬라이드 필름	1건/275점	CD 1건/슬라이드 필름 274장	2008
527		무속 2	CD/슬라이드 필름	1건/258점	CD 1건/슬라이드 필름 257장	2008
528		무속 3	CD/슬라이드 필름	1건/243점	CD 1건/슬라이드 필름 243장	2008
529		민속 1	CD/슬라이드 필름	1건/20점	CD 1건/슬라이드 필름 20장	2008
530	양주별산대놀이 남사당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북청사자놀음 봉산탈춤 동래야류 강령탈춤 처용무 수영야류 송파산대놀이 은율탈춤 하회별신굿탈놀이	가면극 1	CD/네거티브 필름	1건/602점	네거티브필름 602장	1957
531		가면극 ①	인덱스	1건/1점	34장	미상
532	양주별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	가면극 ②	네거티브필름	1건/885점	네거티브필름 885장	미상
533		가면극 ②	인덱스	1건/1점	35장	미상
534		가면극 ③	인덱스	1건/1점	16장	미상
535	양주별산대놀이 남사당놀이 강령탈춤	가면극 ③	포지티브필름	1건/950점	포지티브필름 950장	미상
536	양주별산대놀이 통영오광대 고성오광대 동래야류 강령탈춤 수영야류 가산오광대	가면극 ④	네거티브필름	1건/742점	네거티브필름 742장	미상
537		가면극 ④	인덱스	1건/1점	29장	미상
538	양주별산대놀이 남사당놀이 북청사자놀음 동래야류 처용무	가면극 ⑤	35mm 필름	1건/717점	포지티브필름 717장	미상
539		가면극 ⑤	35mm 필름	1건/2점	포지티브필름 2장	미상
540	양주별산대놀이	가면극 (6)	35mm 필름	1건/633점	포지티브필름	미상

	남사당놀이 통영오광대 봉산탈춤 강령탈춤 수영야류 은율탈춤				633장	
541		풍물①	35mm 필름	1건/823점	35mm필름 853건	미상
542		풍물①	인덱스	1건/1점	35장	미상
543		풍물②	35mm 필름	1건/1,819점	35mm필름 1,819장	미상
544		풍물②	필름	1건/9점	필름 9장	미상
545	종묘제례	풍물③	35mm 필름	1건/717점	35mm필름 717장	미상
546		풍물⑤	인덱스	1건/1점	33장	미상
547		풍물(4)	35mm 필름	1건/116점	35mm필름 116장	미상
548		무속①-김금화굿, 양주굿	35mm 필름	1건/840점	35mm필름 840장	미상
549		무속①-김금화굿, 양주굿	인덱스	1건/1점	22장	미상
550		무속 ② - 양주 지노귀굿 외	35mm 필름	1건/297점	35mm필름 297장	미상
551		무속 ② - 양주 지노귀굿 외	인덱스	1건/1점	12장	미상
552	강릉단오제	무속 ③ -강릉 단오굿	35mm 필름	1건/384점	35mm필름 384장	미상
553	강릉단오제	무속 ③ -강릉 단오굿	인덱스	1건/1점	13장	미상
554	진도씻김굿	무속 ④ - 서울 동빈고동 사군당굿외, 진도 씻김굿	35mm 필름	1건/338점	35mm필름 338장	미상
555	진도씻김굿	무속 ④ - 서울 동빈고동 사군당굿외, 진도 씻김굿	인덱스	1건/1점	12장	미상
556		무속 ⑤ 전국 각지굿-1	35mm 필름	1건/767점	35mm필름 767장	미상
557		무속 ⑤ 전국 각지굿-1	인덱스	1건/1점	29장	미상
558		무속 ⑤ 전국 각지굿-2	35mm 필름	1건/1,099점	35mm필름 1,099장	미상
559		무속 ⑤ 전국 각지굿-2	인덱스	1건/1점	32장	미상
560		전만신 백중굿-Ⅰ	35mm 필름	1건/802점	35mm필름 802장	미상
561		전만신 백중굿-2	인덱스	1건/1점	전만신 각종굿 22장	미상
562		전만신 백중굿-Ⅱ	35mm 필름	1건/389점	35mm필름 389장	미상
563		전만신 백중굿-2	인덱스	1건/1점	전만신 각종굿 20장	미상
564	진도씻김굿	무속 6-3	35mm 필름	1건/632점	35mm필름 632장	미상
565		가(6) 풍(4) 무(6-3) 민(3) 인화지	인덱스	1건/1점		미상
566	남사당놀이 판소리 진도다시래기	민속 ①	35mm 필름	1건/1,025점	35mm필름 1,025장	미상
567		민속 ①	인덱스	1건/1점		미상
568	남사당놀이 판소리 진도다시래기	민속 ②	35mm 필름	1건/968점	35mm필름 968장	미상
569		민속 ②	인덱스	1건/1점	21장	미상
570		민속(3)	35mm 필름	1건/260점	35mm필름 260장	미상
571	진도다시래기	전국민속경연대회	35mm 필름	1건/1,137점	35mm필름 1,137장	미상
572		전국민속경연대회	인덱스	1건/1점	30장	미상
573		무속1	CD/슬라이드 필름	1건/271점	슬라이드필름 270장/CD 1건	미상
574		무속2	CD/슬라이드 필름	1건/254점	슬라이드필름 253장/CD 1건	미상
575		무속3	CD/슬라이드 필름	1건/433점	슬라이드필름 432장/CD 1건	미상
576		무속4	CD/슬라이드	1건/451점	슬라이드필름	미상

			필름		450장/CD 1건	
577		무속5	CD/슬라이드 필름	1건/317점	슬라이드필름 316장/CD 1건	미상
578		무속6	CD/슬라이드 필름	1건/350점	슬라이드필름 349장/CD 1건	미상
579		무속7	CD/슬라이드 필름	1건/362점	슬라이드필름 361장/CD 1건	미상
580	동해안별신굿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황해도평산소놀음굿	무속8	CD/슬라이드 필름	1건/334점	슬라이드필름 333장/CD 1건	미상
581		무속9	CD/슬라이드 필름	1건/243점	슬라이드필름 242장/CD 1건	미상
582		민속1	CD/슬라이드 필름	1건/391점	슬라이드필름 390장/CD 1건	미상
583		민속2	CD/슬라이드 필름	1건/412점	슬라이드필름 411장/CD 1건	미상
584		민속3	CD/슬라이드 필름	1건/394점	슬라이드필름 393장/CD 1건	미상
585		민속4	CD/슬라이드 필름	1건/414점	슬라이드필름 413장/CD 1건	미상
586		민속5	CD/슬라이드 필름	1건/302점	슬라이드필름 301장/CD 1건	미상
587		민속6	CD/슬라이드 필름	1건/353점	슬라이드필름 352장/CD 1건	미상
588		민속7	CD/슬라이드 필름	1건/348점	슬라이드필름 347장/CD 1건	미상
589		민속8	CD/슬라이드 필름	1건/308점	슬라이드필름 307장/CD 1건	미상
590		민속9	CD/슬라이드 필름	1건/357점	슬라이드필름 356장/CD 1건	미상
591		민속10	CD/슬라이드 필름	1건/322점	슬라이드필름 321장/CD 1건	미상
592		민속11	CD/슬라이드 필름	1건/127점	슬라이드필름 126장/CD 1건	미상
593		가면극1	CD/슬라이드 필름	1건/417점	슬라이드필름 416장/CD 1건	미상
594		가면극2	CD/슬라이드 필름	1건/424점	슬라이드필름 423장/CD 1건	미상
595		가면극3	CD/슬라이드 필름	1건/367점	슬라이드필름 366장/CD 1건	미상
596		가면극4	CD/슬라이드 필름	1건/372점	슬라이드필름 371장/CD 1건	미상
597		가면극5	CD/슬라이드 필름	1건/243점	슬라이드필름 242장/CD 1건	미상
598		가면극6	CD/슬라이드 필름	1건/273점	슬라이드필름 272장/CD 1건	미상
599		가면극7	CD/슬라이드 필름	1건/325점	슬라이드필름 325장/CD 1건	미상
600		기타 1	CD/슬라이드 필름	1건/429점	슬라이드필름 428장/CD 1건	미상
601		기타 2	CD/슬라이드 필름	1건/385점	슬라이드필름 384장/CD 1건	미상
602		기타 3	CD/슬라이드 필름	1건/383점	슬라이드필름 382장/CD 1건	미상
603		기타 4	CD/슬라이드 필름	1건/359점	슬라이드필름 358장/CD 1건	미상
604		기타 5	CD/슬라이드 필름	1건/379점	슬라이드필름 378장/CD 1건	미상
605		기타 6	CD/슬라이드 필름	1건/367점	슬라이드필름 366장/CD 1건	미상
606		기타 7	CD/슬라이드 필름	1건/491점	슬라이드필름 490장/CD 1건	미상
607		기타 8	CD/슬라이드 필름	1건/431점	슬라이드필름 431장/CD 1건	미상

제1회 인류학사연구회
<한국 도서 민속 연구와 의민 이두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문화와자연유산연구소

학자, 의민(宜民) 이두현(李杜鉉) 선생의 주요 저작과 몇 가지 단상

왕한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I

의민(宜民) 이두현(李杜鉉) 선생(1924. 4. 2. ~ 2013. 8. 17.)은 한마디로 교수나 교육자보다는 학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하게 표출되는 일생을 사셨고, 오늘 이 귀한 학술 모임이 만들어진 것도 바로 선생의 그러한 특성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선생 자신도 정년을 맞으면서, “지금까지 … 나의 생활에 있어서 샘솟는 삶의 기쁨은 나의 학문의 세계에서의 그때그때의 성취에 있었”다고 서술함으로써(1989『의민당(宜民堂) 수기(隨記)』‘머리말’ p. 1), 당신이 새로운 연구에 매진하는 학자로서 평생을 사셨음을 진솔하게 피력한 바 있다.
선생의 학자로서의 일생을 조감하는 ‘연보(年譜) 및 저작 목록’은『의민 이두현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편) 1989)에, 물론 정년 시까지의 것이지만, 잘 정리되어 있다(pp. iii-xi). 그리고 “나의 학문 방랑기(放浪記)”라는 그리 길지 않은 “회고록”이 선생의 논문집인『한국 무속과 연희』(1996)의 부록으로 또 실려 있다(pp. 424-457) (이 글은 위 책의 출판일이 1996년 3월 10일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아마도 1995년 하반기(또는 상반기 및 하반기) 중에 쓰인 것 같음).
위의 두 문건으로 선생의 학문 세계에 대한 개황(槪況)은 이미 잘 정리되지만, 문하생의 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배우고 선생을 가까이서 지켜본 입장에서 약간의 ‘인상적인 덧붙임’을 오늘 행하고자 한다. (또 1987년 11월 6일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가 주최한 ‘교수와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나의 학문과 인생>이라는 귀한 강연을 하였는데(오후 3~5시), 그날 말씀하신 메모를 아직 가지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Ⅱ

선생의 '회고록'의 두 번째 단락은 당신이 산 거의 평생의 시대적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우리 세대는 한마디로 '전쟁 세대'였다. 보통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이른바 만주사변(滿洲事變)이란 것이 일어났고, 중학 졸업 때는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 대학 졸업 때는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이어서 4·19와 5·16 후에는 근 30년을 군사정권 밑에서 청 장년기를 살아왔다."("나의 학문 방랑기" p. 424) 여기에 1944년 10월에는 일본군에 징집되어 1년 가까이 "몇 번이고 자살을 생각했"던 일본 군대생활을 하였고, 1946년 2월에는 "천신만고 끝에 38선을 넘"는 단신 월남을 하였으며, 1950년 한국전쟁 중에는 9.28 수복 직전 밤중에 인민군에 붙잡혀 "밤새 끌려 다니다가 요행히 총살 직전에 풀려났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어렵고 힘든 시대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결코 간단치 않은 인생의 전반기를 보낸 셈이 될 것이다.

이제 이후 학자 생활의 기본 바탕이 되는 교육 배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월남 상경 직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전문부(專門部)에 편입하여 1946년 7월에 수료하였고, 곧바로 학부(學部) 즉 국문과로 진학하여 1950년 5월에 졸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 4년간의 국문과 수학 과정이, 물론 어려운 시기라 공부 전체로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독학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다.

곧, 당시 문리과대학 국문과는 국어학 교수 중심으로 구성되고 사범대학 국문과는 국문학 교수 중심으로, 특히 경성제대(京城帝大)를 후기에 졸업한 소장 학자들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이 소장 국문학자들로부터 당시로서는 새로운 좋은 강의를 들었음을 수업 시간뿐 아니라 1987년의 공개 강연에서도 말씀하셨다. 선생의 직접적인 표현을 빌리면, 이 시기 "나에게 특히 영향을 준 것은 정학모(鄭鶴謨) 선생의 조선 연극사 강의와 고정옥(高晶玉) 선생의 조선 민요 연구, 정형용(鄭亨容) 선생의 국문학 고전 특강 등이었"다("나의 학문 방랑기" p. 436). (1987년의 공개 강연에서는 위 강의들에서 김재철(金在喆)의 『조선 연극사』(1933)와 고정옥의 『조선 민요 연구』(1949)를 교재로 썼다고 하고, 이 책들이 이후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듯하다고 덧붙였다.)

선생의 교육 배경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960년 9월부터 1961년 8월까지의 도미(渡美) 수학이다. 이 파견 교수 기간 중 후반기에는 (처음의 테네시 주 내슈빌에서) 워싱턴으로 옮겨 "대부분의 시간을 국회도서관과 스미소니언의 자연사박물관에서 지냈"고, "이때의 워싱턴 체류가 계기가 되어서 연극학에서 민속학과 문화인류학 쪽으로 내 관심과 흥미가 기울어"졌다고 하였다("나의 학문 방랑기" p. 439). 평생의 지기였던 난대(蘭臺) 이응백(李應百) 선생도 이 도미 유학의 시기가 학자 의민 선생에게 매우 중대한 시기였음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 1960년 9월로부터 1년 동안 피버디 대학으로 교육 연구차 도미한 것은 바로 오늘의 의민이 있게 한 중대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의민은 그곳에서 진작부터 관심을 가졌던 연극 분야와 새로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인류학의 청강을 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전공이었던 고전문학에서 과감하게 방향 전환을 했던 것이다. … 그리하여 의민은 문화인류학, 민속학, 가면극, 연극사, 화법(話法) 등 분야에서 항시 선두에 서서 현지답사와 연구를 계속해 나갔다." 그 결과 "의민은 사대(師大)에 몸을 담고 학문에서는 다른 밭을 갈았다."(1984 『의민 이두현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하서(賀序)' pp. 1-2, p. 2).

이 도미 수학의 귀로에서 하와이를 들렀고 거기서 마침 열리고 있던 태평양과학회의장에서 동경대학(東京大學) 문화인류학 교실의 이시다(石田英一郎) 교수를 만나고, 이시다 교수의 권유

로 동경에 들러 이즈미(泉靖一) 교수를 만나게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후 동경대학 문화인류학 교실과의 진지한 학술 교류가 진행되었음은 췌언(贅言)을 필요치 않을 것이다.

Ⅲ

이제 의민 선생의 연구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하겠다. 선생은 (1950년 5월) 대학 졸업 후 서울과 마산의 고등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다가, 1954년 4월 근화여자대학(槿花女子大學)으로 옮기고(부교수), 1958년 4월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전임강사가 된다. 사범대학으로의 출강은 좀 더 이른 시기인 1953년 6월부터인 것으로 연보에 나와 있는데, 이응백 선생에 의하면 처음에는 마산에서 부산으로 출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경력과는 별개로 첫 연구 논문은 1957년(12월)에 가서야 발표된다. 학자로서의 초기에 발표된 논문은 바로 다음 세 편이다.

1957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의 성립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8: 8-41.
1958 “한국의 가면”, 『사조(思潮)』, 10월호.
1959 “신라 오기(五伎) 고: 특히 월전(月顚)과 속독(束毒)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논문집(인문사회과학 편)』 9: 183-208.

먼저 여기서 놀라게 되는 사실은, 처음의 논문부터가 ‘신극사’의 영역이 아닌 ‘가면극 및 가면’의 영역이고, 그리고 이 세 편의 논문으로 뒤에 출간되는 주저 『한국 가면극』(1969)의 앞부분(즉, 제Ⅰ, Ⅱ, Ⅲ장)의 골격이 사실상 완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세 편의 논문 중 가장 수작(秀作)은 말할 것도 없이 “신라 오기 고”일 터인데, 선생 자신도 “나로서는 최초의 회심작(會心作)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나의 학문 방랑기” p. 438). 이 논문에서는 특히 월전(月顚)과 속독(束毒)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중국어 음운사 및 비교언어학 영역의 전문 지식까지도 다대하게 인용하고 있음을 본다.
뿐만 아니라 뒤의 글에 의하면, 산대놀이를 조사하기 위해 처음 양주를 찾은 시점은 50년대 말이고(2012 『이두현, 민속 축제와 만나다』 p. 194) (다른 책에서 양주 별산대놀이의 대사 채록은 정확히 1958년 1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함(1997 『한국 가면극 선(選): 주석본』 p. 9)), 하회탈 및 하회 별신굿 조사를 위해 하회마을을 처음 방문한 시점은 1959년 겨울방학(두 번째 방문은 1960년)이라고 한다(『이두현, 민속 축제와 만나다』 p. 179, p. 181). 그리고 통영 오광대를 조사하기 위해 충무시를 처음 찾은 시점도 50년대이며(p. 201), 수영 야류의 주 연희자를 처음 만남 시점은 60년대 초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p. 216). 결국 1950년대 후반에 한국 가면극의 역사적 발달 및 가면의 유형에 대한 힘들인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또는 그것을 마침에 바로 뒤이어) 양주와 하회, 통영과 수영을 찾아 당시 전승되던 가면극에 대한 기초적 현지답사를 시작한 셈이 된다. (참고로 양주 별산대놀이에 뒤이어 고성 오광대의 대사 채록은 1964년 8월에 이루어지고, 통영 오광대는 1964년 9월, 봉산 탈춤은 1965년 8월, 그리고 수영 야류는 1970년 7월에 대사 채록이 각기 이루어졌다(『한국 가면극 선: 주석본』 p. 318, p. 294, p. 132, p. 367).)
여기서 또 한 가지 크게 느끼게 되는 점은, 한국전쟁의 어려운 시기를 감안한다면, 본격적인 연구가 아무래도 1950년대 중반에 가서야 가능했을 터인데, 위의 논문들과 관련 현지조사의 시작 시점을 보면, 선생의 이른바 ‘공부 속도’가 통상적인 예측과는 달리 굉장히 빨랐던 것으

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선생은 이 시기에 세 개의 학회 또는 연구 모임을 결성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곧, 1957년에 선생의 발의로 (1952년에 새로이 만들어진 통합 학회인) 국어국문학회에 민속분과를 설치하고, 그해 연말(12월)에는 (임석재, 유치진 선생과 함께) 산대극보존회를 결성하며(이 산대극보존회는 1969년 3월에 한국가면극연구회로 바뀜), 1958년 11월에는 (임석재, 임동권, 김동욱, 장주근 선생 등과 함께) 한국문화인류학회를 창립하게 된다("나의 학문 방랑기" p. 438 등).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면, 이 시기에 보다 구체적으로는 1960년 9월 도미 수학하기 이전의 시점에 이미 우리가 아는 선생의 이후 연구 계획 및 활동의 큰 틀이 대체로 만들어졌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다. 물론 미국에서의 수학 과정을 통해 앞서 인용한 대로 그 틀이 보다 구체화되고 정교화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Ⅳ

선생의 다음 논문("한국 연극 기원에 대한 몇 가지 고찰")은 1965년에 가서야 발표된다. 따라서 이 시기 곧, 1960년대 이후의 연구는 논문보다는 주로 저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된다. 아래 저서 목록은 편의상 두 부류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앞의 것이 그야말로 학술적 연구 결과 또는 그에 준하는 것들이고, 뒤의 것은 이 범주를 상당 부분 벗어나는 것들이다. (선생의 저서 중 몇 권은 외국어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이 번역본 저서들은 아래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1966『한국 신극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한국 가면극』,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3b『한국 연극사』, 민중서관.
(1985 개정판 학연사, 1999 신수판 학연사.)
1974『한국 민속학 개설』, 민중서관 (장주근·이광규 공저).
(1983 개정판 학연사, 1991 신고판 일조각.)
1984『한국 민속학 논고』, 학연사.
1996『한국 무속과 연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한국 가면극 선(選): 주석본』, 교문사.

1973a『한국 생활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이광규 공저).
(1983 개정판『한국 가정 생활사』,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79『한국의 가면극』, 일지사.
1981『한국의 탈춤』, 일지사.
1989『의민당(宜民堂) 수기(隨記)』, 한샘.
2012『이두현, 민속 축제와 만나다』, 민속원.

1966년에 나온 첫 저서『한국 신극사 연구』는 "한국 연극학 수립을 위한 첫 단계로 [1902년부터 1945년까지의] 연극 단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신극사를" 정리한 것이다('자서(自序)' pp. xxv-xxvi). 그런데 이 연구는 원래 "한국 연극사 연구의 제2부 현대 편으로 착수된 것"이

다(p. xxvi).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미국 수학에서 돌아온 뒤 “4년여”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 스스로가 겪”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이 책으로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하였고(1966년 12월), 그리고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1968년 8월).

그런데 이 책의 ‘자서’에는 당시까지의 선생의 학문 관심 영역 및 그것의 이동을 짐작케 하는 다음 구절이 있어 매우 흥미롭다. 즉, “이 [연극이라는] ‘뮤우즈’의 여신에 이끌려 그동안 신극에서 고전극으로 다시 가면과 가면극, 그리고 민족학(民族學)의 세계에까지 인도되었다.”(p. xxv) 다시 말해 당시의 시점에 이미 선생의 연구 관심 및 영역은 신극과 가면극을 넘어서서 민족학 곧, 민속학 및 문화인류학의 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공식 천명한 셈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저서는 너무나 유명한 1969년간(刊)의 『한국 가면극』이다. 한마디로 이 책은 “역사민속학적 방법으로 삼국시대 이래 이조(李朝) 말까지의 한국 가면극 발달의 사적 고찰과 한국 가면 및 가면극의 민속지적 자료로서[써] 구성”된 것이다(‘머리말’ p. v). 가면극 연구를 위해 “결국 나의 30대의 대부분을 mask mania로 보내고 말았다.”(p. v)라는 학술적 고백의 최종 결과물인 이 대작(大作)의 뛰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책은 전문 사진작가에 의해 촬영된 “300여 장의 가면 사진”과 함께 구성 편집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적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위의 두 책으로써 선생의 주저(主著) 두 권이 모두 완성되는데, 그 시점이 매우 빠른 데서 다시금 경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때 선생은 막 40대 중반이었다. 아마도 다른 학자들, 특히 다음 세대의 학자들과 연구의 결실을 이루는 속도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가면극』의 원고 작성도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한국 신극사 연구』의 출간 시점이 1966년 5월이고 이 책의 출간 시점은 1969년 12월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약 9개월간(1968년 7월~1969년 4월) 일본 동경대학에 객원교수로 가 계셨다. 따라서 짐작컨대는 이 책의 원고 작성이 좀 더 이전 시기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여기서 이 두 권의 주저를 선행 연구인 김재철의 『조선 연극사』(1933)와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질의 측면은 그만두고라도 양의 측면에서 『조선 연극사』는, 물론 30여 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1939년의 재판 기준으로) 문고판의 본문이 200쪽이 조금 안 되는 작은 책이었다.

사족(蛇足) 같지만 이 『한국 가면극』의 ‘머리말’에는 “… 첫선을 보았을 때 내가 아내의 얼굴을 소무탈과 같다고 느꼈다던가, 또 임종 때의 고뇌에 찬 아버님의 얼굴을 산대의 눈끔적이 바가지탈과 같다고 느꼈다던가 하는 것은 모두다 가면과 더불어 살아온 나의 지난날의 인과요업보라고 할 것이다.”(p. v)라는 구절이 있다. 물론 이 표현은 예민한 감수성에 바탕한 문학적 필치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mask mania”로 해당 연구에만 몰두해 온 한 학자가 가진 ‘집중과 몰입’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또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구절로도 읽힐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책은 1973년에 출간된 『한국 연극사』이다. 선생은 ‘자서’에서 “… 앞으로의 과제[인] “한국연극전사(全史)”의 상재를 … [위한] 길잡이로 여기 「한국 연극사」를 내놓는다.”(p. 1)라고 적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국문학도들” 및 “연극학도들”을 위한 “길잡이” 곧, 대학 교재 수준의 서적이 될 것이다. (이 책의 개정판은 1985년에 출간되었고, 1999년에는 신수판이 또 출판되었다.)

여기서 선생의 오랜 계획이었던 ‘한국연극전사’에 대해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앞에서

소개한 『한국 신극사 연구』에서도 “원래 본 연구는 한국 연극사 연구의 제2부 현대 편으로 착수된 것이므로 한국 가면 및 가면극 연구가 끝나는 대로 제1부 고전 편을 완성하고 이어 한국연극전사를 상재코저 한다.”(‘자서’ p. xxvi)라고 분명히 적었다. 그러나 이 ‘한국연극전사’는 종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한국 가면극』이 나온 이래 선생의 공부가 연극사에서 민속학 또는 문화인류학 쪽으로 크게 방향을 틀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주 오래 전 어떤 발표 모임에서 ‘내가 연극사가인지 민속학자인지?’라는 자문(自問)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년을 앞둔) 1987년의 공개 강연에서는 ‘나의 주저가 연극사 쪽이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나를 민속학자로 부른다.’고 하였다. ‘회고록’에서는 ‘한국연극전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서술 부분이 주목된다. 즉, “… 실증주의 방법에서 나의 [가면극 또는 민속극에 대한] 민속학 연구의 방향을 찾게 되고 … 민속학의 여러 분야 중에 내가 연구 분야로 삼은 것은 민속공연예술 분야였으므로 민속극의 배경이 되는 세시풍속과 무속의 현지답사와 연구에로 자연히 기울여져갔다. 여기서 나의 연극학 연구와 민속학 연구의 접점이 이룩되었다.”(“나의 학문 방랑기” p. 442).

결국 『한국 가면극』의 출간 이래 민속극의 연구에서 그것의 배경이 되는 세시풍속과 무속의 연구로 “자연히” 또는 적극적으로 나아감으로써, 원래의 출발점인 연극학(또는 국문학)과는 점차 멀어지고 그리하여 ‘한국연극전사’를 집필할 시간을 종내 갖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1974년에는 장주근(張籌根), 이광규(李光奎) 선생과 공저로 『한국 민속학 개설』을 출간한다. 이 책 ‘머리말’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 민속학의 첫 “입문서” 또는 “개론서”가 될 것이다(p. i). 이 ‘개론서’도 앞의 『한국 연극사』와 마찬가지로 대학 교재 수준의 서적이 될 것인데, ‘머리말’에서는 “이 조그마한 교재”라고 표현함을 본다. (이 책의 개정판은 1983년에 출간되었고, 1991년에는 신고판이 또 출판되었다.)

다음 두 책은 민속극을 넘어서는 또는 그것의 “배경이 되는” 영역들에 대한 좀 더 본격적인 민속학 관련 연구 논문들을 모은 논문집이다. 대체로 보아 『한국 가면극』의 출간 이래 선생이 집중한 연구 결과들의 집성(集成)으로, 아마도 선생의 후기 학문 세계를 이루는 연구 작업들이 될 것이다.

먼저 1984년에 출간된 『한국 민속학 논고』는 서론(緖論)과 제Ⅰ편 및 제Ⅱ편으로 구성되는데, 이 책 ‘서문’의 표현을 빌리면, “… [한국 연극사 연구의] 배경이 되는 민속학 관계, 그것도 세시풍속과 무속과 부락제에 관한 민속지적 연구의 논문들”(p. 4)을 모은 것이다. 서론은 “한국의 민속학 연구”(pp. 11-27)라는 리뷰논문인데(1983년 발표), 책의 체제상 이 서론은 다음 논문집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Ⅰ편은 1968년부터 1981년까지에 발표된 주로 부락제와 무속에 관한 논문 11편으로 구성되고, 제Ⅱ편은 1971년부터 1981년까지 발표된 주로 세시풍속에 관한 논문 및 연구 보고 9편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보아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에 발표한 민속학 관련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거의 모든 글이 현지답사에 바탕한 힘들여 쓴 연구 결과이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제Ⅰ편의 “장제(葬制)와 관련된 무속 연구: 특히 초분(草墳)과 씻김굿에 대하여”(pp. 106-145) (1973·4년 발표)와 제Ⅱ편의 “한국 세시풍속의 연구”(pp. 287-363) (1971년 발표)는 매우 공들인 연구 논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개별 논문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여기서 두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먼저 “장제와 관련된 무속 연구”의 말미(末尾)에는 다음 구절이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즉, “사사로운 이야기가 되지만, 1965년 세모(歲暮)에 연이어 양친의 상(喪)을 당하고, 그때부터 장제의 민족학적 연구를 뜻하여 이제 그 첫 시고(試稿)를 양친의 영전에 명복을 빌어 바친다.”(p.

138). 학문의 과정에서 특정 연구 주제의 선정이 학술적·이론적 관심뿐만 아니라 연구자 개인의 관심이나 동기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연구 방법론 논의에서의 일반적 경향이, 선생의 경우에서도 명료히 발견되는 흥미로운 예일 것이다.

다음으로 제Ⅱ편에는 선생의 고향인 "회령군의 민속"(pp. 513-537)이라는 귀한 논문이 들어 있다.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 먼 고향 땅의 민속을 많은 문헌 자료를 이용하여 충실히 기술하는데, 이 중 많은 부분을 이른바 '재가승(在家僧)' 부락 및 민속을 기술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실로 회령군은 전(全) 재가승 부락의 중심 지대를 이루"는 곳이었다(p. 533). 재가승에 대한 관심을 선생은 어려서부터 가졌던 것 같은데, "… 근 40년 전 중학 시절에 친한 벗과 둘이서 팔을천(八乙川) 상류 영천리(靈泉里)로 재가승 부락을 찾았던 일을 회상한다."라며 당시의 기억을 한 단락으로 적고 있다. (그런데 추정이지만 선생은 매우 이른 시기에 북한의 학자 황철산의 『함경북도 북부 산간 부락의 문화와 풍습』(1960)을 읽은 것으로 본다.)

1996년에 출간된 두 번째 논문집 『한국 무속과 연희』는 "그간 10여 년간 발표한 개별 논문들"을 모은 것으로, 그 대부분이 "나의 주된 관심 분야인 무속과 연희 관계 논문들"이다('머리말' p. iii). 이 책은 '제Ⅰ편 무속'과 '제Ⅱ편 연희'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부록 1>과 <부록 2>가 덧붙여진다.

제Ⅰ편에는 1987년부터 1995년까지에 발표된 4편의 논문이 들어 있고, 제Ⅱ편에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 발표된 논문 4편과 아마도 (당시까지) 미발표 원고로 보이는 논문 3편과 그리고 1편의 (중국 화남(華南) 지방의 가면극) 답사기(제11장)가 들어 있다(따라서 제Ⅱ편은 모두 8편의 논문 및 답사기로 구성됨). 그리고 <부록 1>은 1990년에 발표된 영어 논문이고, <부록 2>가 '회고록'인 "나의 학문 방랑기"이다. 따라서 책 전체로는 모두 14편의 논문 및 관련 글들로 구성되는 셈이 된다.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다수가 전문적인 것이어서 간단하게라도 소개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제1장 "내림무당의 쇠 걸립(乞粒)"(pp. 3-50) (1987년 발표)과 제2장 "단골무(巫)와 야장(冶匠)"(pp. 51-110) (1993년 발표)으로 읽힌다. 두 논문 모두 "동북아세아 샤머니즘과 한국 무속과의 비교 연구"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선생은 앞 논문의 '머리말'에서 "이제 우리는 한국 무속의 기원과 계통을 살피는 데 있어 고고학과 역사학적 접근과 함께 인접 지역 민족의 그것과 민족학적인 비교 검토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이제 민속적 잔존(殘存)에서 한국 무속의 기원과 계통의 문제를 살피기 위하여 먼저 한강 이북 황해도 내림무당의 '쇠 걸립'에 대하여 살피고 이어 속편으로 호남의 '단골무당과 야장'에 대하여 살피기로 하겠다."(p. 5)라고 적고 있다. 한마디로 두 논문은 한국 무속지(巫俗誌)의 단순한 정리 수준을 넘어서서 무속에 대한 역사 민속학적 고찰과 (시베리아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의 샤머니즘과의 비교 연구를 시도하는 큰 연구 작업으로 읽히고, 아마도 그동안의 한국 무속에 대한 연구를 넓게 정리한 노작(勞作)일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부록 1>로 실린 "Korean Shamans: Role Playing through Trance Possession"(pp. 399-423)도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일 것이다.

<부록 2>인 "나의 학문 방랑기"(pp. 424-457)는 선생 표현으로, "… 이제 국내외 현지답사도 뜻대로 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 같아 더 이상의 답사 보고는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 그런 심경에서 끝으로 나의 학문 방랑기를 실"은 것이 된다('머리말' p. iii). 짧지만 함축적으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전체 구성은 1 '나의 어린 시절', 2 '나의 10대', 3 '광복과 월남 후', 4 '나의 주저들', 5 '해외 나들이', 6 '가면극의 해외공연단과 더불어'로 되어 있다. 대체로 앞부분, 특히 1에서 4까지가 학자로서의 의민 선생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다.
1997년에 마지막 노작이 또 출간되는데 바로 『한국 가면극 선(選): 주석본』이다. 이 책은 간단히 "… 11종목의 [한국] 가면극의 해제와 대사를 주석(註釋)"한 것이다('머리말' p. iii). 여기서 먼저 11종목의 가면극은 양주 별산대놀이, 송파 산대놀이, 봉산 탈춤, 강령 탈춤, 은율 탈춤, 통영 오광대, 고성 오광대, 가산 오광대, 수영 야류, 동래 야류, 하회 별신굿 탈놀이인데, 이 중 동래 야류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사를 선생이 직접 채록한 것이다. (개별 가면극 대사의 채록 시점은 각기 다른데, 가장 이른 것은 1958년 1월(양주 별산대놀이)이고, 가장 늦은 것은 1980년 2월(하회 별신굿 탈놀이)이다. 나머지는 1964년 8월서부터 1975년 7월까지에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해제"란 각 가면극의 역사적 유래와 특징을 간략히 정리한 것을 가리키고, "대사[의] 주석"은 실제로는 상당히 난해한 이 구비전승(口碑傳承)의 가면극 극본 원문에 번호를 달아 각주의 방식으로 의미 주석한 것을 가리킨다. 아마도 극본 원문과 각주로 처리된 주석이 거의 비슷한 양이 될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은 '주석본'이라는 부제와 또 책 표지에 '저(著)'가 아닌 '교주(校註)'로 표시되어 있는 데서 보듯이, 한국 가면극의 대사 주석에 중심을 둔 오랜 작업의 결과이다. 선생은 젊은 시절부터 이 주석본을 구상한 것으로 아는데, 정년 후에야 집중할 시간을 얻어 늦게야 비로소 이 책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각 가면극의 대사는 일찍부터 민속극 연구자로서 현지답사를 통해 모두 채록한 것이지만, 이 주석 작업은 초기의 국문학자(또는 고전문학자)로 되돌아가 장기간에 걸쳐 이 어렵고도 힘든 작업을 모두 마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선생 자신도 "필자가 직접 채록한 극본들을 주석하면서 …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을 마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였다('머리말' p. iv).
이제 위의 두 번째 부류의 저서들 곧, 학술적 연구의 일차적인 결과가 아니거나 또는 학술적 연구와 상당 부분 거리가 있는 책들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1973년에 나온 『한국 생활사』 (이광규 공저)는 당시 방송통신대학의 교재로 준비된 것인데, 이 책은 바로 다음 해에 출간되는 『한국 민속학 개설』의 초고본 같은 인상을 강하게 주는 것이다. (이 교재의 개정판도 1983년에 『한국 가정 생활사』로 출판되었다.)
1979년에 출판된 『한국의 가면극』은 가면극에 대한 (아마도 대학생들을 주 독자로 상정한) "개설서"이자 일종의 "보급판"('머리말' p.1)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내용은 앞서 출간된 선생의 주저 『한국 가면극』을 줄인 형태인데 물론 부분적으로 보완된 항목들도 있다.
뒤이어 1981년에 출판된 『한국의 탈춤』은 위 『한국의 가면극』을 더 줄이고 쉽게 쓴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설서"('머리말' p.1)로 만든 책이다. 새로이 한글체로 쓰인 그야말로 '보급판' 성격의 책인데, 분량도 200쪽 가량의 작은 책이다.
1989년 정년퇴임을 맞아 낸 다음 책은 『의민당(宜民堂) 수기(隨記)』이다. 선생은 '머리말'에서 "그간 몇 권의 주저를 남기면서 살아온 40여 년 동안에 흘리고 온 낙수(落穗)들"(pp. 1-2) 또는 "잡문집(雜文集)"(p. 2)으로 표현하나, 사실은 '잡문집' 또는 넓은 의미의 수필집 그 이상의 것이다. 물론 이 책에는 '수상(隨想)', '기행', '시론', '공연평', '대담' 등이 실려 있고, '수상'과 '대담' 중에는 선생의 생애 흔적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글들도 있다. 이들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경대학 이즈미 교수와의 만남과 교류를 담담히 적은 "泉 교수의 추억"(pp. 70-72)이 될 것이다.
그런데 '논단'으로 분류된 글 중에는 적어도 5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아마도 선생의 생각에는 좀 '가벼운' 논문이었던 것 같다. 그 5편은 바로 (선생의 두 번째 논문인) "한국의 가면"(pp. 164-173) (1958년 발표), "문화인류학과 교육"(pp. 190-209) (1966년 발표), "한국

민속예술의 본질과 그 사회적 기능"(pp. 227-234) (1978년 발표), "한국 연극의 눈물"(pp. 235-244) (1980년 발표), 그리고 "한국 축제의 방향: 역사 민속학적 고찰"(pp. 253-266) (1988년 발표)로 읽힌다. 그런데 이 중 마지막 논문은, 선생의 마음이 그동안에 바뀌었는지, 1996년에 나온 『한국 무속과 연희』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한국 축제의 방향"(pp. 381-396)으로 다시 수록되어 있음을 본다. 또 '서평'에는 그간 발표한 3편의 서평이 수록되어 있다.

선생은 대학생 시절에 희곡 작가를 꿈꾸었으나 희곡은 쓰지 못하고 대신 (연극사를 전공한) 학자가 되었다고 하였다(1987년 공개 강연). 그런데 젊은 시절 희곡 대신에 두 편의 무용 극본을 썼는데 곧, "허(許)도령"과 "지귀(志鬼)의 꿈"이 그것이다. 짧은 극본인 "초라니"와 함께 모두 이 책의 '무용 극본'(pp. 342-361)에 실려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가 평전'에는 한국 신극 및 영화의 선구자인 김수산(金水山), 나운규(羅雲奎), 박승희(朴勝喜) 세 분에 대한 선생이 예전에 썼던 평전이 다시 수록되어 있다(pp. 364-445). 전체적으로 이 책은 결코 연구의 "낙수"나 논문이 아닌 "잡문"을 단순히 모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글들을 모은 "수기(隨記)"인 것으로 생각된다.

선생의 마지막 책은 2012년에 출판된 『이두현, 민속 축제와 만나다』이다(아마도 이 책은 선생의 '회고록' 마지막 부분에서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는 「세계 민속 기행」을 완결 지으려고 생각"한다는("나의 학문 방랑기" p. 457) 바로 그 책인 것 같음). 그간 오랜 기간 참관해 온 미국, 유럽, 아시아에 걸친 세계의 여러 민속 축제에 대한 기행문을 많은 사진과 함께 싣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분량은 적지만, 한국의 여러 민속 축제를 방문 관찰한 기록도 많은 사진과 함께 정리 소개하는 책이다.

(도서관의 검색에서는 『한국의 나무꼭두』 (1998 열화당)라는 작은 책이 선생의 저서로 나오지만, 이 책에 실린 선생의 글("나무꼭두의 역사와 쓰임새"(pp. 7-22))은 "한국의 전통 목우(木偶)"라는 제목으로 『한국 무속과 연희』의 제8장(pp. 278-300)으로 이미 수록되어 있음을 본다.)

V

선생의 학술 저서 출간은 위 목록에서 보듯이 1990년대 후반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때 선생은 70대 초반의 연세였다. 그러나 두 번째 논문집인 『한국 무속과 연희』(1996)의 출판 이후에도 수편의 논문 및 그에 준하는 글들이 발표되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글은 아래 목록과 같다.

1997 "Ancient – 1945: A History of Korean Drama", *Korean Performing Arts: Drama, Dance & Music Theater.* by Yi Tu-hyŏn et al., Seoul: Jipmoondang Publishing Company, pp. 15-35.

1998a "탈놀이 주석본의 제 문제", 『한국의 민속과 문화』 1: 277-281.

1998b "서평: 유진 I. 크네즈 박사 저, 한국 3개 마을의 현대사, 1951~1981. 그 사람들의 물질문화의 예시적 연구", 『비교민속학』 15: 595-614.

1999 "한국 연극사: 고대에서 1945년까지", 이두현 외 13인 (공저), 『한국 공연예술의 흐름: 연극·무용·음악극』, 현대미학사, pp. 19-41.

2001 "한국 무속 연희 연구",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 편)』 40: 87-145.

2002 “기악(伎樂) 재고”,『민속학연구』11: 5-24.

2007 “건국 시조(始祖)신화와 무조(巫祖)신화 연구”,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46(1): 63-156.

2008 “마마배송굿”, 『한국문화인류학』41(2): 225-267.

위 목록에서 1997년과 1999년의 글은 고대에서 1945년까지의 한국 연극사를 개관 소개하는 글인데, 영어 번역본이 먼저 출판되고 한국어 원본이 뒤에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98a의 글은 가면극의 주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론적 또는 분석적 문제를 간략히 논의하는 글이다.

1998b의 ‘서평’은 선생의 오랜 지기였던 미국의 인류학자 크네즈(Eugene I. Knez) 박사의 한국 문화 특히 물질문화에 관한 저서(*The Modernization of Three Korean Villages, 1951~1981: An Illustrated Study of a People and Their Material Culture*. Washington, D. C.: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7, xi, 216 p. (Smithsonian Contributions to Anthropology, no. 39))를 서평의 형식으로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는 글이다.

남은 4편은 모두 힘들여 쓴 학술 논문인데 그 양의 면에서도 결코 간단치 않은 것들이다. 먼저 2002년의 “기악(伎樂) 재고”는 한 일본 예능인의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있은 이른바 ‘진기악(眞伎樂)’의 공연을 계기로, 한국 가면극의 기원설과 관련하여 기악을 다시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다. 기악의 원류(原流) 및 내용에 대해 최근의 연구들까지 섭렵하여 정리하는데, 한국 가면극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의 관련 가면극(또는 극(劇)과 무(舞))을 세밀히 비교하는, 그야말로 선생이 아니면 쓸 수 없을 것 같은 논문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것이다.

위 논문이 가면극 또는 연극사 영역의 것이라면, 다음 3편은 모두 넓은 의미의 무속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다. 먼저 2001년의 논문은 연극의 기원을 샤먼의 의식에서 찾으려는 (연극학 내의) 이론적 가설에 주목하여, 해당 가설에서 제시되는 여러 샤먼 제의의 연극성과 연극으로의 진화 과정에 대한 분석에 대체로 평행하는 한국 무속 및 무속극의 여러 양상들을 광범위하게 기술 분석하는 글이다. “동북아세아 무속권(巫俗圈)에서 우리의 굿이 어느 지역의 굿보다 연희성이 강한”(p. 116) 특성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논문의 분량은 59쪽이다.

다음 2007년의 논문은 “제주도에 현존하는 무조(巫祖)신화인 초공본풀이가 고대 건국 시조(始祖)신화인 고구려 동명왕 주몽 신화의 변모 잔존 형태임을 논증”(p. 147)하는 큰 논문이다. 전체 내용은 “신화소인 모티프의 변이(變移) 양상”(p. 65)을 세밀히 분석하는 것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천년을 두고 건국 시조신화의 신화소인 모티프가 현존하는 제주 무조신화 속에 변모 잔존하여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p. 148)라고 적는다. 무려 95쪽의 소책자 분량의 논문이다.

마지막 2008년의 논문은 “역사적으로, 민족학적으로 천연두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고찰”(p. 225)하는 것으로, 한국의 마마배송굿을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나아가 일본과 인도의 관련 사례를 비교하는 작업이다. 43쪽 분량의 논문이다.

위에서 정리한 목록이 정확한 것이라면 선생의 학술 논문 발표는 2008년으로 끝나게 되는데, 당시 선생은 80대 중반의 연세였다. 짐작으로는 몇 편의 논문을 더 구상하였을 것 같고, 또 한두 편은 이미 집필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그런데 선생의 평상시 학문에 대한 열정이나 쉼 없이 공부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위의 논문 및 관련 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느낌도 솔직히 든다. 여기에는 물론 연세에 따른 건

강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아마도 1997년에 마지막 학술 저서를 출간한 이후 많은 시간을 "이제까지 모아온 노트와 [녹음]테이프와 사진 자료를 정리하는 일"(1996『한국 무속과 연희』p. iii)에 들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 정리된 '[녹음]테이프와 사진 자료'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고마운 노력으로 엄청난 양의 자료집으로 출간된다. 크게 다음의 세 종류이다.

2006『(대담) 한국 연극 이면사』.
2009-2010『이두현 기증 사진집』, 전 6권.
2011-2013『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전 20권.

위 목록에서「사진집」전6권도 놀라운 양이지만, 무가의 채록집인「무가연구」는 무려 전20권에 달한다. 이 20권 중 뒤의 10권(제11~20권)은 안타깝게도 선생의 별세 직후에 모두 출간되어 최종 완간되었다.
여기서 선생의 두 권 논문집과 방금 소개한 마지막 논문들을 살펴보면, 선생의 '후기 학문 세계'를 이루는 이른바 민속학 영역의 연구는, 물론 부락제와 세시풍속 그리고 연희의 영역에 속하는 논문들도 많이 있지만, 그 중심은 점차 무속의 연구에로 모아졌던 것으로 이해된다(선생의 '회고록'에도 "점차 무속의 역사 민속학적 고찰에 흥미를 더 갖게 되어"라는("나의 학문 방랑기" p. 443) 구절이 있음). 녹음테이프의 전사 자료집이 20권의「무가연구」로만 한정되어 출판된 것도 그 한 방증일 수 있겠다. 선생의 한국 무속 연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참여관찰에 의한 (굿에 대한) 무속지의 기술과 그것의 역사 민속학적 그리고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의 비교인) 민족학적 연구를 지향한 것이 될 것이다. 선생의 이러한 무속에 대한 연구 관심은 물론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을 터인데, 이즈미 교수를 회고하는 글(1971 "泉 교수의 추억")에도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즉, "泉 교수의 이야기로서는 … 언제나 자기 학문의 출발점이었던 한국이나 북방(北方) 필드에 돌아오고 싶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면의 테마는 샤머니즘 연구라고 했을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나로서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나 혼자 소중히 감추어 두었던 테마를 지적당한 기분이었다고나 할까."(1989『의민당 수기』p. 71).
지금까지의 선생의 주요 저작에 대한 검토에서 얻게 되는 한 가지 인상은, 전기의 연구와 후기의 연구가 갖는 차이점에 대한 것이다. 곧, 전기의 신극사 및 가면극 또는 연극사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단행본 저서의 형태로 출간됨으로써 연구가 나름대로 완결된 느낌을 준다. 이에 반해 후기의 다양한 주제들에 걸친 민속학 연구는 논문집과 개별 논문의 형태로 출판 발표됨으로써, 미완은 물론 아니겠지만, 전체 체계를 보여주는 데서는 다소간 미흡한 느낌을 준다. 이는 어쩌면 선생의 세대에서 학자로서 가장 귀중한 시기인 '30대'를 온전히 바친 연구와 그렇지 않은 뒤에 이루어진 연구의 필연적 차이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러한 차이에서 선생의 주저는, 선생 자신의 의견대로, 아무래도 (연극사에 관한) 전기의 저작들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선생은 '회고록'에서『한국 신극사 연구』와『한국 가면극』을 "주저"로 표현하였고, 1987년의 공개 강연에서도 이 두 책을 '가장 보람 있었던 업적'이라고 표현하였다.)
또 이 간단한 검토에서 한 가지 (억지) 아쉬움도 갖게 되는데, 그것은 후기 학문의 중심 주제였던 무속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활발히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선생은 수편의 무속에 관한 논문을 틀림없이(?) 더 구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논문들이 완성되고 그리하여 앞서 발표된 것들과 함께 한국 무속에 관한 독립된 논문집이 간행되었더라면, 선생의 후기 학문 세계가 좀 더 명료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하는 실현될 수 없는 상상을 혼잣말처

럼 해본다.

Ⅵ

김윤식(金允植) 선생은 의민 선생의 “학문적 업적은 넓고도 깊은 것”(1984『의민 이두현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간행 후기’ p. 531)이라고 썼다. 이 표현은 흔히 하는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그야말로 선생의 학문 세계에 잘 들어맞는 적확(的確)한 표현인 것으로 여겨진다. 선생의 공부는 치밀한 깊이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넓은 학문의 세계였다.

이제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선생의 학자로서의 몇 가지 모습 또는 특색에 대해 간단히 적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선생의 학술적 글쓰기의 스타일(style)에 대한 것이다. 아마도 상당히 압축적이고 정제된 학술 문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 수준의 추상성(抽象性)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데, 중요 사항이나 용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나 사례를 들어 보다 쉽게 설명하는 방식 등은 거의 채택하지 않는 글쓰기이다. 그리하여 선생의 글은 따져가면서 좀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당시의 학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어려운 한자식 표현이 또 많다. 아마도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한글세대의 경우에는 상당히 읽기가 어려운 학술적 글쓰기가 될 것이다.

또 선생의 연구에서는 그것이 오늘날의 민속지적 기술이거나 역사적 문헌 기록에 대한 것이거나 간에 일차적 자료 수집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충실한 자료 수집이 물론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 되겠지만, 선생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 및 그것에 대한 일차적 기술에서 보다 철저한 경우가 될 것이다. (선생 자신은 이를 “실증주의 방법”, “고증적 정확성”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반하여 결론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맺는 경향을 보인다. 추론에 의한 일반화를 잘 하지 않으려는 이 경향은, 아마도 당시의 연구 상황 곧 비교 분석할 관련 연구가 사실상 거의 없었던 (해방 및 6·25전쟁 직후의) 초기의 연구 상황과도 연관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생 개인의 특성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선생은 공부를 좀 깊이 오랫동안 천착(穿鑿)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다. 쉽게 표현하면 반짝이는 ‘얕은’ 공부보다는 좀 무거운 ‘깊은’ 공부를 당연히 선호했으며, 그리하여 쉽게 많이 쓰는 것보다는 제대로 적게 쓰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여러 번에 걸쳐 ‘공부는 좀 익혀야 한다.’고 하였고, 또 ‘무슨 공부든 10년은 걸린다’고도 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재주 있는 소장 학자들이 너무 일찍 자신의 주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 의견을 사석에서 개진하기도 하였다.)

선생의 철저한 자료 수집 및 기술 또는 ‘실증적인 공부’는 완벽을 지향하는 선생의 평소 성향과도 바로 연결될 것이다. 한 지친(至親)이 표현한 “따지고 쪼개는 것”이 공부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거의 체화된 듯한 느낌을 많이 주었는데, 가령 쉬운 예로 내게 주신 저서나 논문 별쇄본은 언제나 붉은 볼펜으로 오자나 탈자를 이미 바로잡아 놓은 것이었다. 이 허술함을 허용치 않는 완벽주의가 선생의 학문 연구에 기본 바탕을 이루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선생은 학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시간의 유한(有限)함을 일찍부터 깨달은 듯하였다. 시간을 잘 분배하고 아껴 당연히 공부에 집중하려는 것이었을 게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것은 옛 용두동(龍頭洞) 캠퍼스의 1층 교수 휴게실에서 바둑을 두거나 신문을 보며 환담을 나누는 동료 교수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시간이 아까워서 어떻게 바둑을 두고 저렇게 환담을 하나?’라고 하였

다. 그것도 여러 번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1987년의 공개 강연에서는 나로서는 처음 듣는 다소간 놀라운 다음의 말씀을 하셨다. '지금 생각하면 [30-40대에?] 연극 공연을 본 시간이 가장 아깝다. 그때 시간을 아껴 좀 더 깊은 공부를 했어야 했다는 후회를 지금도 한다.'
선생은 학문 연구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아카데미즘(academism)의 신봉자였다. 특히나 1987년의 공개 강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학문으로서의 연극을 하되 시평(즉, 비평)은 쓰지 않겠다고 고집'하였고, 또 '[민속극 및 민속학 연구에서] 현지조사자이자 연구자이지 수집가(collector)는 아니겠다는 고집'을 하였다며, '이 두 생각으로 스스로 아카데미즘을 고수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술회하였다. 덧붙여 서울대학교 자체가 아카데미즘의 중심지로 뿌리를 내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의민당 수기』의 '공연평' 부분(pp. 277-317)에서 연극 공연평은 사실상 없음을 볼 수 있다.) 철저한 아카데미즘을 지향하고 고수하려는 학자로서의 삶은 조금 넓게 다음과 같이도 표현되었다. "이순(耳順)을 넘긴 이제 와서 성인군자(聖人君子)는 못 되었어도 최소한 선비로서의 삶을 마치고 산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소원일진댄 … "(1989 『의민당 수기』 p. 79). 평생의 지기 이응백 선생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에 쓴 '하서'의 마지막 구절이다.
끝으로 선생의 성격 내지 행동 특성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은 언급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이 특성이 선생의 학자로서의 다른 면들과 밀접히 연관되는 것으로 모두들 이해해 왔다. 하여 외람되지만 간략히 정리하겠는데, 바로 선생의 평상시 많은 불평과 비판들에 대한 것이다.
장주근 선생은 의민 선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이 교수는 안일한 타협은 용서치 않고, 깐깐하며 남달리 비판정신이 강하다. 그의 동년배나 윗사람들은 그를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고 놀리는 일이 많다. 그러나 나는 그것은 이 나라 선비가 지녀야 할 비판정신으로 보며, 그렇게 견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1989 『의민 이두현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하서(賀序)" p. i). 김택규(金宅圭) 선생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 의민은 학문에 대한 의욕이 늙지 않는 분이다. 그 의욕은 불같은 불만으로 피력되기도 하고, 때로는 후진들에 대한 냉혹한 질타로도 나타난다. 과격하리만큼 신랄한 그 표현들 속에는 … 결국 학문에 대한 강한 의욕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1983 『한국문화인류학』 15(의민 이두현 선생 화갑 기념호) "하사(賀詞)" p. 7)라고 하였다. 선생의 이 성격 또는 행동 특성에 대한 가까운 지인들의 평가 중에서,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응백 선생의 다음 해석이 가장 깊이가 있고 전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눈인 것으로 생각된다. 곧, "의민은 늘 불평에 차 있다. 당(唐)나라 한유(韓愈)는 「맹동야(孟東野)를 보내는 글」 속에서 모든 것이 평정(平靜)을 잃으면 울린다고 했다(大凡物不得其平則鳴). 평정을 잃었다는 것은 뜻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만큼 의욕이 큼을 뜻한다. 그러기에 의민은 그 많은 불평을 평정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실을 지키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 것이다."(1984 『의민 이두현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하서(賀序)" p. 2).
정상박(鄭尙卞) 선생은 선생의 별세 후 추도사(追悼辭)에서, 의민 선생을 한마디로 "척박한 학문의 황무지에 우뚝 선 거목"(2013 "고 이두현 선생님 추도사" p. 3)이라고 표현하였다. '학문의 황무지에 우뚝 선 거목' 학자, 의민(宜民) 이두현(李杜鉉) 선생을 학술적으로 추모하는 오늘의 연구 모임에 깊이 감사드린다. 지금도 책상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실 것만 같은 선생의 명복(冥福)을 맑은 마음으로 빌며, 이 작은 정리가 앞으로 학자 의민 선생을 이해하는 데에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인용문헌>

*아래 목록에서 이두현 선생의 논문 및 저서는 생략함.

김윤식
1984 “간행 후기”, 의민 이두현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의민 이두현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학연사, p. 531.
김재철
1939[1933] 『조선 연극사』, 학예사.
김택규
1983 “하사(賀詞)”, 『한국문화인류학』 15: 7-8 (의민 이두현 선생 화갑 기념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편)
1989 『의민 이두현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이응백
1984 “하서(賀序)”, 의민 이두현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의민 이두현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학연사, pp. 1-3.
장주근
1989 “하서(賀序)”,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편), 『의민 이두현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pp. i-ii.
정상박
2013 “고 이두현 선생님 추도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동문회보』 53: 3.

문화인류학을 지향했던 이두현

전경수

1. 서

학사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두현(1924-2013) 교수(이하 편의상 존칭은 생략함)의 업적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한 학자의 업적을 일별하는 것이 한 오리가 되어서, 또 다른 한 오리와 얽히고 엮어지는 과정이 축적되어야 학사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일본학계에서는 이 단계를 "군상"(群像)이라고 이름한다. 학사가 구축되는 전 단계인 셈이다.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한오리의 실낱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에서 이두현 교수를 사례로 선택하였다. 개인사가 학문사와 단단하게 얽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지극히 일부분의 개인사를 학사의 측면에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서전의 이력서를 나열하는 식의 전개 아니라 특정한 사건들을 짚어서 이두현이라는 인물을 한국인류학사 나아가서는 인류학사의 차원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다. 인류학사는 인류학적인 작업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민속지를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 인류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인류학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확함과 세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며, 말리노브스키가 강조하였던 "솔직한 설명"(a candid account, Malinowski 1922: 2)이 절실하다. 광범위한 의미의 거짓을 완벽하게 배척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 솔직함이라는 현상 자체가 표현방식과는 무관하게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또는 될 수 있는) 제삼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코 선입견적인 도덕적 가치판단이 개입된다면, 필자의 의도를 곡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필자의 관심에 맞추어서 이두현의 연보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1958년 4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전임강사
1958년 11월 한국문화인류학회 창립동인
1960.9.-1961.8. 미국의 피버디대학과 카톨릭대학에서 연극학과 인류학 청강
1968.7.-1969.4. 동경대학 문화인류학과 객원교수
1968.9. 제8차 국제인류학및민족학대회 참석(동경/경도, 일본)
1971.8.-1972.3. 록펠러재단 연구기금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연극사 및 인류학 연구
1973.8.-9. 제9차 국제인류학및민족학대회 참석(시카고, 미국)
1975.10.-1976.4. 독일 보쿰대학 객원교수
1979년 가을학기 국내교류교수로 제주대학에서 강의와 제주민속조사.

선생께서는 함경북도 회령의 한의사 나형권(나운규의 부친)씨 집의 문간방에서 태어났다. 선대는 함경남도 영흥이 고향이었으나, 부친께서 직장 관계로 함경북도의 회령에 근무하고 있을 때, 이두현은 회령에서 출생하였다. 회령이란 곳은 일본제국의 조선군(朝鮮軍) 제19연대가 주둔하였던 곳이었으며, 동시에 국경도시로서, 요즈음 표현을 빌리면, 상당히 국제적인 감각을 다양한 방면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일본서점이 있었고, 조선군 제19연대의 군악대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공연에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정도의 분위기를 자아낸 곳이었다. 그곳에는 허북풍(許北風)이라는 조선인이 경영하였던 '북풍서점'(北風書店)이라는 인쇄소 겸 서점

도 있었고, ‘북풍서점’의 주인은 송석하의 <조선민속>(朝鮮民俗)과도 일말의 연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선생께서는 ‘북풍서점’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으셨다.
호적상으로는 1924년생이지만, 생전의 이두현은 필자에게 여러 차례 자신은 1923년생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였다. 그해는 나운규가 1년 6개월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출옥하였고, 1924년에 ‘조선키네마’로 갔으니, 아마도 이두현이 태어나던 1923년 즈음에 나운규는 출옥 후 잠시 동안이나마 친가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나운규가 출옥하고, 이두현이 출생하였다. 이두현은 생전에 자신의 출생지가 “나운규네 문간방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러한 인연으로 이두현은 연극과 관련된 연구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연극연구가 자신의 필생의 과업이었다는 점과 연관된 인연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것으로 기억된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선생께서는 연극사 분야의 업적이 혁혁하다. 연극사에 관한 한 선생의 업적은 국내외로 또 자타가 인정하는 바다. 연극사에 문외한인 필자가 선생께서 펼치신 연극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되고, 필자가 주로 공부해온 인류학 또는 문화인류학 분야의 입장에서 선생께서 펼치셨던 학문적인 오리엔테이션과 경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해 보는 것으로 본고의 소임을 다 하고자 한다. 선생께서는 한국문화인류학회의 창립회원이자, 제2대 회장을 역임하셨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선생께서는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두현과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의 관계’는 어떠한 정도였을까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 본고를 작성하는 목적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풀어보는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2. 본: 1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하였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학문을 하는 사람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어졌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두현은 대학 3학년 2학기(1948년도)에 정학모(鄭鶴謨) 교수의 ‘국문학강독’을 수강하였고, 그 과목의 교재로 김재철의 <조선연극사>와 고정옥의 <조선민요연구>를 읽었으며, 그 강의를 통하여 연극사와 민속학을 알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1957년 11월 9일 한국연극학회 주최의 양주별산대 공연을 이화여고 노천강당에서 처음 보았다. 이어서 1957년 12월 16일 산대극보존회의 결성에 유치진과 임석재와 함께 참여하였다. 1958년 1월에는 양주산대극 강습회, 1960년 8월에는 봉산탈춤 강습회, 1964년 1월에는 통영오광대 강습회에 참여하였고, 1969년 3월 2일 한국가면극연구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연극사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어 신극사의 자료를 정리하고 이어서, 근대극에서 전통극으로 옮겨가면서 가면극대본을 채록하고 그것의 유래를 설명하였다. 현장에 나가는데서부터 학문이 시작되고 야첩(野帖, field work, 후주1)의 축적에서 학문의 골격을 갖추게 되는 실증주의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역사적 문헌과 고고학적 성과를 활용하는 역사민속학적 연구방법을 취하였다” (이두현 2009.11.30). “현장에 나가는데서부터 학문이 시작”되었다는 술어에 고개가 숙여진다. 한편 그 “현장”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된다.
1960년 9월부터 1961년 8월까지 1년간의 도미(渡美) 수학(파견교수) 기간 중 후반기에는 워싱턴디시(Washington D.C.)로 옮겨 “대부분의 시간을 국회도서관과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에서 지냈고, 이때의 경험이 계기가 되어서 연극학에서 민속학과 문화인류학 쪽으로 내 관심과 흥미가 기울어졌음”(“나의 학문 방랑기” p. 439)을 자전적으로 기록하였다. 이미 1958년 11월에 한국문화인류학회의 창립에 참가하였다는 사실과 위의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문화

인류학에 대한 학문적 깊이가 미지수인 상태에서 학회의 창립에 참여하였다는 생각이 가능하다. 당시의 한국문화인류학회 창립회원 8명이 모두 유사한 입장이었다는 전언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즉 이런저런 인연과 관심의 갈래로부터 민속학을 공부하던 분들이 뜻을 모아서 학회를 결성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한국민속학회'라는 이름이 존재했기 때문에, 차선으로 문화인류학이란 명칭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전언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필자는 당시의 민속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과연 당시 민속학을 전공한다는 분들의 학문적 오리엔테이션이 무엇이었으며, 어느 정도의 학문적 축적의 경험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투성이라고 생각한다. 1930년대와 40년대에 민속학을 하였던 송석하의 오리엔테이션과 비교하는 것이 허락한다면, 오십년대의 오리엔테이션이 학문적으로 후퇴하였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일찍부터 에드워드 타일러(Edward Tylor)를 읽고 독학으로 민속학을 하였던 송석하는 분명하게 인류학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학회의 명칭을 문화인류학으로 내세웠던 분들이 지향했던 민속학조차 조각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오십 년대의 민속학이었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1949년 이병기(李秉岐) 선생의 추천으로 김삼불(金三不)이 도식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국문학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민속학을 적용하였던 경향으로서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음과 국어학을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민속학을 적용하였던 경향으로서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전자는 신화와 전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사문학의 경향을 보였고, 후자는 방언학의 경향으로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다. 국문학으로 입문하였던 이두현은 제삼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전경수 2023.12.30: 369-370). 이두현은 연극사를 전공하는 과정에서 민속학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두현이 한국문화인류학회의 창립 직후,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발행되었던 <大學新聞>에 2회에 걸쳐서 "韓國民俗學의 過去와 將來: 韓國文化人類學會의 發足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李杜鉉 1958.12.15 & 1959.2.9). "갑오경장이후 한국민속학의 선구자로 내세울 수 있는 분은 역시 崔南善씨인 것 같다. 그의 薩滿 교찰기나 삼국유사해제 조선상식문답 같은 저술은 후진을 위하여 좋은 지침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李能和씨의 조선무속고 조선여속고 해어화사 조선불교통사 등 저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술들은 거의 재래하는 문헌자료에서 엮어진 것이고 민속학적 방법의 본령이라고 할 현지답사에 의한 민속학의 출발은 지금으로부터 약 이십여 년 전 임석재, 손진태, 송석하, 이혜구, 오청 같은 분들이 활약하기 시작할 때부터"(李杜鉉 1958.12.15)라는 기록은 시간적인 입체성을 생략한 지극히 평면화된 리뷰라고 말할 수 있다. 간략한 신문 투고 형식을 취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에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글은 주로 민속학의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신문기사에 걸맞는 겉핥기식의 일별이었다. 문화인류학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약 1년 뒤에 <大學新聞>(280호)에서 "季節과風俗"이라는 제하의 특집을 구성하였는데, 이희승(李熙昇, 文理大敎授)이 "습속"(習俗)이라는 제목으로, 정병욱(鄭炳昱, 文理大敎授)이 "전설"(傳說)이라는 제목으로, 이두현(李杜鉉, 師大助敎授)은 "민속극"(民俗劇)이란 제목으로 각각의 원고를 게재하였다. 당시 민속학에 대한 인식이 습속과 전설과 민속극을 포함하는 것이란 표현일 수도 있다. 이두현은 "部落祭에는 儒禮風의 洞祭와 巫覡에 의한 都堂굿, 城隍堂굿, 別神굿의 巫祭를 주로 하는 것과 두 類型이 있으며, 後者가 더 原初的인 것으로 民俗藝能도 주로 이 후자와 더불어 이루어졌던 것"(李杜鉉 1960.2.8)이라는 평과 함께 안동의 별신굿놀이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볼 때, 1960년 초까지 이두현의 학문적 오리엔테이션은 연극사와 민속학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

선생께서는 1961년 여름에 일년 간의 미국 연구유학을 끝마치고, 서울로의 귀로에 두 사람의 인류학자를 만났다. 순서대로 기록하자면, 미국 워싱턴디시의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이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유진 크네즈(Eugene Knez, 1916-2010) 박사와 일본에서 동경대학 문화인류학연구실의 이즈미 세이이치(泉 靖 一, 1915-1970) 교수다. 두 사람과의 만남이 연극사를 주전공으로 학문을 하고 있었던 이두현을 문화인류학으로 급격히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말하고 싶다(박영정 2005: 101). 크네즈 박사는 이두현을 자신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유물 수집을 위한 대리인으로 이용한 면이 있다. 대표적인 증거가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유물 수집을 위한 작업의 의뢰와 수집대행 역할로 나타난 사실이다. 이 문제 관한 연구자는 "이두현 기증자료"(방인아 2017.6.)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두현의 "기증"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크네즈의 주문의뢰에 의한 수집대리 역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물론 양자 사이의 호혜적 협력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음은 물론이며, 그 과정에서 이두현의 문화인류학적 오리엔테이션의 천착도 심화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어렵지 않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후, 정부측의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분야 지정 조사를 시작하여 1964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의결하였다. 당시 이두현은 1962년부터 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만들어진 보고서가 <꼭두각시놀음>(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第一號)(朴憲鳳.李杜鉉 1964.6.)과 <鳳山탈춤>(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第十二號)(金千興.李杜鉉 1965.12.)이다. 당시 문화유산 전승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각 분야의 대가들인 박헌봉(후주2)과 김천흥(후주3)과 함께 작업을 하여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담당하였던 이두현의 업적은 이 분야 최초의 작업이었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공교롭게도 거의 동일 기간 동안에 스미소니언 박물관 인류학부의 큐레이터였던 유진 크네즈 박사로부터 이두현에게 한국의 유물 수집 의뢰가 왔었다. 1963년 7월 25일자와 동년 8월 18일자 및 1964년 11월 13일자의 편지(방인아 2017.6.: 135-136)가 있었고, 그 결과가 아래의 표(방인아 2017.6.: 138, <표1>)로 나타났다. 1963년도와 1966년도, 2회에 걸쳐서 한국민속품들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으로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7종 246점(방인아 2017.6.: 153)중 무속분야 119종 133점(방인아 2017.6.: 154)이 가장 많다.

〈표 1〉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 소장 이두현 기증자료 현황

분야	유물번호	수량	주요 소장품	수집 연도
무속	E403168~E403230	62종 68점	무악기, 무복, 명두 및 명다리, 싸리말, 신칼, 신장기 등	1963
무속(제기)	E403231~E403289, E404298	57종 65점	떡살, 다식판, 목기, 접시, 탕기, 술잔, 새발심지와 접시 등	1963, 1966(새발심지 1건)
갓일	E403290~E403341	52종 57점	진사립, 흑립, 총모자, 양태판, 죽도, 조름대, 갓판, 총모자골, 칠그릇, 귀얄 등	1963
봉산탈춤	E404242~E404272	31종31점	상좌탈, 목중탈, 노장탈, 소무탈, 취발이탈, 양반탈, 염주, 족두리, 정자관 등	1966
꼭두각시놀음	E404273~E404297	25종25점	박첨지, 꼭두각시, 홍동지, 평양감사, 이시미, 꿩, 매, 상여, 만사, 절, 부쇠 등	1966

스미소니언 박물관 큐레이터 크네즈 박사의 유물 수집 요청과 문화재관리국의 무형문화재조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였던 이두현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동일한 기간 동안에 수행된 작업이 이원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물들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으로 이동되었고, 보고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간행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고찰할 경우에는 양자를 결합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재맥락화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갓일'과 관련된 부분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와 보고서(이두현.정상박 1964.1.)가 함께 교차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재맥락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봉산탈춤과 꼭두각시놀음의 경우에 대해서도 자료와 보고서가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문화파편화의 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문화과정이라는 이론적 틀 속에서 맥락의 문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집 행위와 보고서 작성의 관련성에 대해서 심층적인 차원의 논의가 가능하다. 외국 박물관의 유물수집 대행이라는 역할과 정부의 "문화재조사" 프로젝트 참여를 기반으로 학문적인 행위의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임을 확인하고 싶다. 연극사와 민속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초창기 역할을 맡았던 이두현의 학문적 업적과 그 업적의 기반이 되었던 에너지원으로서의 외국 박물관과 정부라는 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방문 일정을 완료하고, 공로의 귀국 길에 이두현은 하와이대학을 방문하였다. "1961년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제10회 太平洋学術会議(Pacific Science Congress, 후주4)가 하와이 호놀루루 하와이대학에서 개최되었다"(日高孝次 1962: 1). 그 학술회의는 미국 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와 비숍 박물관(Bernice P. Bishop Museum)의 후원으로 하와이대학(University of Hawaii)에서 개최되었고, 인류학이 포함된 사회과학부문은 제7부회에 소속되었다. 이두현이 찾아간 곳이 바로 제7부회였던 것이다. 당시 공로는 "하와이까지 직행편이 없었고, 웨이크섬에서 급유를 받는 시대였다. 일본에서 이시다 에이이치로(石田英一郎, 1903-1968)、마부치 토이치(馬渕東一, 1909-1988)、야하타 이치로(八幡一郎, 1902-1987)、코쿠부 나오이치(国分直一, 2908-2005, 후주5)、카네코 에리카(金子エリカ, 후주6)、아사이

에린(浅井恵倫, 1894-1969, 후주7) 선생들께서 출석"(青柳まちこ 2011.7.20: 5, 연도는 필자 추가)하였다. 그야말로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인류학자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경대학 문화인류학연구실에서 제작하였던 <研究室だより> No. 6 駒場祭 特集号(November 1961)에는 (1961년) 9월 25일에 이시다 에이이치로가 "하와이의 태평양학술회의로부터 돌아와서"(ハワイに於ける太平洋學術會議から歸て)라는 제목의 발표회를 가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두현의 안전에 펼쳐진 일본인류학계의 면모가 어떻게 각인되었을까? 궁금한 부분이다. 과객(過客)으로 태평양학술회의에 들렀던 이두현에게 이시다 에이이치로 교수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이시다가 이두현에게 명함을 주면서 "동경 경유 도중에 동경대학의 이즈미 세이이치를 꼭 만나라"는 권유를 하였다. 이두현은 1961년 8월 26일 東京大學 本鄕 캠퍼스로 이즈미를 방문하였다. 필자가 입수한 아래의 사진 이면에는 "1961년 8월 26일"이라고 수기되어 있는데, 의복과 주변의 가로수는 한여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사진은 낙엽이 지고 있는 1968년 가을의 사진이라고 생각된다.

이즈미 세이이치와 이두현

이즈미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이시다가 두 사람의 관계를 주선한 것이다. 그 만남은 두 사람에게 공히 후일 새로운 방향의 학문적 길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이 지면에서 소개하고 싶다. 당시 이즈미는 안데스 고고학에 몰입했던 시기였지만, 그의 "조선"에 대한 관심이 급선회하여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정상화를 위한 외교적인 접촉이 진행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었던 국제정치적인 분위기가 동경대학 문화인류학연구실에서도 감지된다. 연구실에서 발행하였던 <研究室だより> No. 6 駒場祭 特集号(November 1961)에는 "(1961년) 5월 20일 F. モ-ス: 朝鮮人類學について(朝鮮にて社會科學研究の現況)라는 기록이 보인다. 동일한 문서의 研究室OB名簿의 "舊職員及び舊講師"난에 "Moos Felix(S 34-S 35, Kansas)"란 기록을 보아서 "F. モ-ス"는 미국 캔자스대학 인류학과의 펠릭스 무스(Felix Moos, 후주8) 교수를 지칭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研究室だより> No. 7(July 1962)의 研究會發表 내용에는 "1961.11.27 金宅圭(金東旭著'韓國歌謠の研究'論文紹介)"와 "1962.5.21 泉 靖一(濟州島の村落構造, 若い時の想い出)"이 기록되었고, "舊研究生" 3명중 金宅圭(S 36-S 37, 韓國大邱市大明洞 靑丘住宅16号 自宅)라고 소식난에 표기하였다. 즉 이두현이 이즈미를 방문하는 1961년 8월 26일 전인 5월에는 미국의 인류학자 펠릭스 무스 교수가 강연을 하였고, 직후에는 김택규가 동경대학 문화인류학연구실의 연구생으로 재적하면서 연구회에서 발표를 하였으며, 이즈미는 자신의 1938년 졸업논문인 제주도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즈미가 한국사회의 현실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글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조선통일에 관련된 정치가와의 대담 사회를 맡기도 하였고(泉靖一. 高碕達之助 1962.3.), 1951년 9월 동경에서 실시한 통계조사에 나타난 조선인에 대한 혐오(니그로가 최하위이며 그다음이 조선인)의 인종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의 글을 발표하였다(泉 靖一 1962.12. & 泉 靖一 1963.3.). 당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기본적 인식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문의 기회를 기다리던 이즈미는 국교정상화 후 제1차 단체관광여행단의 일원으로 20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1965년 10월 22일 김포 공항에 도착하였고, 판문점의 유엔군 병사들의 반원형 퀀셋(quonset) 군대 막사를 보고 "카마보코 병사"(カマボコ兵舍)(泉 靖一 1965.12.: 192)라고 기록하였으며, 당시 서울 거리에서 목격되었던 맹호부대 파병 행렬을 보고 대동아전쟁 중 뉴기니아로 향하던 자신으로 착각(泉 靖一 1965.12.: 193)할 정도의 센티멘탈한("感傷") 여행이었다. 이즈미는 총 19일간의 방문 기간 중에 삼분의 일을 제주도에 있었다(泉 靖一 1965.12.: 194). 당시 서울에서는 이두현이 안내를 맡았고, 김택규가 동행하였던 제주도에서는 현용준이 안내를 하였다(필자가 오래전에 현용준 교수와 인터뷰를 하였음). 그 기간에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 간담회(1965년 11월 6일 오후3시)에 참석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이시다 에이이치로, 이즈미 세이이치(泉 靖一), 타무라 요시토메(田村義止) 등이 참석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이홍직(李弘稙), 정재각(鄭在覺), 김정학(金廷鶴), 최학근(崔鶴根), 김방한(金芳漢), 이두현(李杜鉉), 김택규(金宅圭)가 참석하여 '국가기원의 문제'와 '일본민족의 기원'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동일한 내용이 東京大學文化人類學研究室 研究會記錄(1965.6.14-1967.1.23)에는 다음과 같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1965년) 11월 15일(월요일) 泉 先生("朝鮮から歸て"), 24명이 참석하였다. 방문기간은 10/22-11/10 기간(18박 19일: 필자주)이며, 대구와 제주도 및 경성이었다. 1)제주도의 모노그라프 수정, 2)학계는 국어학과 국사학이 압도적 강세이고, 사회학은 증가하는 경향이다. 문화인류학 전문가 없고, 고고학은 국사학 쪽에서 증가의 경향이다. 문화인류학회는 80%가 국어학 및 국문학 관계와 신화학이나 고고학 중심이다. 京城大學(서울대학을

말함: 필자주)의 인류학고고학연구실에는 김원룡이 있다. 3)'ethnological treasure'는 東京에서 45분 거리의 장소에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제주도의 모노그라프 수정이라는 내용으로부터 그의 저서 <濟州島>(1966년) 발간이 예고된 것이다. 또한 '민족학적 보물'이라는 단어의 등장으로부터 이즈미의 장래 연구 행보가 충분히 느끼지는 대목이다.

이즈미 세이이치 서거 40주년 기념 학술회의(2010년10월6일, 제주대학교 인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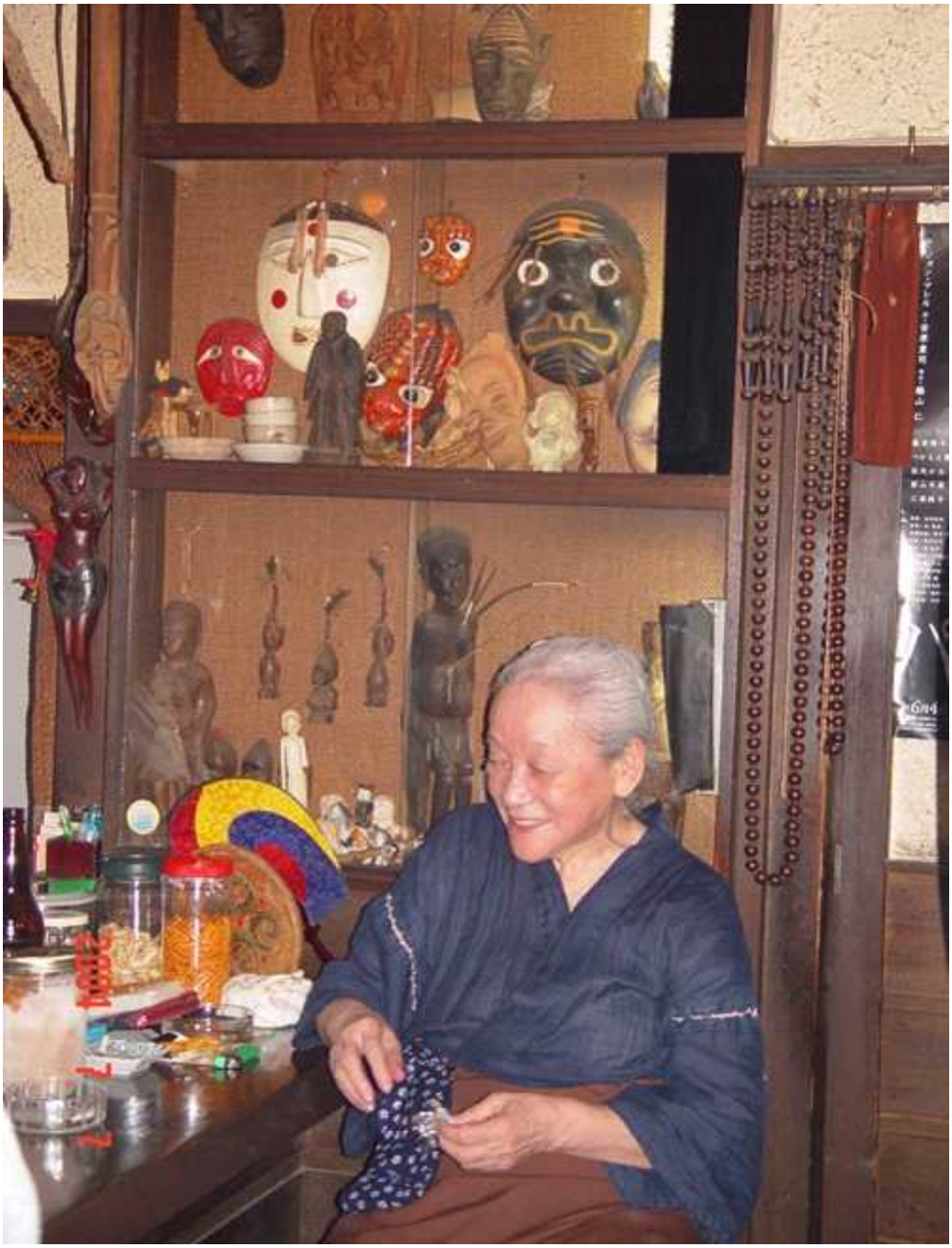
이즈미는 자신의 경성제국대학 졸업논문이었던 "제주도의 사회인류학적 연구"를 보완하고 개고하여 <濟州島>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泉靖一 1966.5.). 한편 한 차례의 한국 방문을 통하여 한국의 1960년대 중반의 학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글을 남기면서, 특별히 이두현의 학문 행적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였다(泉 靖一 1966.2.). 제삼자의 객관적인 평가라는 점에서 이즈미의 글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震檀學會의 <韓國史>, 高大民硏의 <韓國文化史大系> 소개와 아울러 孫寶基, 金廷鶴, 金元龍의 고고학적 발굴을 소개하였다. 민족예능학을 하는 李杜鉉은 가면예능으로부터 문화인류학 이론에 접근하고 있고, 청구대학 金宅圭 조교수는 문학에서 민속학과 다시 사회인류학적조사의 第一步로 <同族部落の生活構造硏究>를 발간함으로써 해방 후 실시된 최초의 노작"(泉 靖一 1966.2.: 35)이라고 평가하였다. "대학에는 문화인류학의 강좌가 없는"(泉 靖一 1966.2.: 36) 상황을 지적하였다. 1961년에 설립된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의 인류학 부분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임교수가 없는 상태를 이즈미는 "강좌가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1965년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이즈미의 학문적 관심은 샤머니즘으로 집중하였다. 대학의 강의과목부터 샤머니즘이 새롭게 개설되었다. 동경대학 문화인류학연구실의 1967年度便覽(1967.4.-1968.3.) 社會學硏究科授業科目表 文化人類學專門課程(修士課程.博士課程)에는 "文化の同時的硏究(シヤーマニズム硏究, 泉 靖一)", 1968年度便覽 社會學硏究科 文化人類學專門

課程에는 “文化の同時的研究(東アジアにおけるシヤーマニズム, 教授 泉 靖一)”, 1969年度便覽 社會學研究科 文化人類學專門課程에는 “文化の同時的研究(東アジアにおけるシヤーマニズム, 教授 泉 靖一)”, 1970年度便覽 社會學研究科 文化人類學專門課程에는 “民族誌 I (東アジア. シヤーマニズムの研究, 教授 泉 靖一)”라는 기록이 있다. 이즈미는 샤머니즘에 대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즈미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巫堂來歷>이라는 채본 책자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샤머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도를 하였다(泉 靖一 1969.3.). 이 자료는 이두현이 이즈미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즈미는 1967년 가을, 과거 자신의 은사인 아키바 타카시(秋葉 隆)가 조사하였던 양주군의 무당을 방문하였다(泉 靖一 1968.2.1: 227). “S씨(최길성을 말함: 필자주)와 韓國民俗博物館의 C씨(장주군을 말함: 필자주)가 동행하였다. C씨는 제주도의 샤머니즘의 연구를 하였고, 서울로 돌아와서 민속박물관의 건설에 일생을 걸고 있는 신진의 문화인류학자”(泉 靖一 1968.2.: 228)라고 적었다. 그가 1967년 즈음에 샤머니즘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그의 학문의 고향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36년 연초에 한라산에서의 조난 사고로 친구를 잃은 후, 그해 5월에 찾은 친구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목격된 제주도의 무속 의례가 국문학을 전공하던 이즈미를 아키바의 연구실로 전향하도록 하였음을 상기하게 된다(전경수 2023.12.25: 395). 이어서 이즈미는 동북아시아의 샤머니즘이라는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장주근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이즈미는 동북아시아의 샤머니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이와나미문고(岩波文庫)의 여성 편집자를 포함하여 시리즈로 책자를 발행할 계획까지 세웠다. 그 프로젝트가 왕성하게 진행되는 도중에 급서한(1970년 11월 15일) 이즈미의 역할이 종료됨과 함께 샤머니즘 연구는 정지되었다. 그러나 후일 이두현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국무속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즈미의 희망이 이두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鹿兒島短期大學 南日本文化研究所 소장인 나가사와 카즈토시(長澤和俊, 1928-2019, 후주9) 교수에 의하면, “(1968년 7월) 이즈미는 타네가시마(種子島)에 서울대학의 이두현 선생과 함께 왔다. 1969년 3월에도 이즈미는 이두현과 함께 苗代川에 와서 심수관(沈壽官)을 만났다”(長澤和俊 1971.7.: 121)고 하였다. 나가사와 교수는 鹿兒島短期大學에 南日本文化研究所를 설립하고, 顧問으로서 行動科學分野의 泉靖一 선생을 모셨다. 이즈미는 1967년 6월 녹아도를 방문하여 7월에 屋久島綜合學術調査에 참가하였고, 1968년 7월에는 種子島綜合學術調査, 1969년 3월에는 苗代川窯綜合學術調査, 1970년에는 奄美大島綜合學術調査에 참가하였다. “젊어서 京城大學의 朝鮮.滿蒙 샤머니즘 연구에 동행했던 선생은 奄美에 남아있는 샤머니즘 연구에 대해서 최근 상당히 의욕적인 연구대상의 하나로 삼았다. 테라다 카즈오(寺田和夫)씨의 증언으로는 최근 선생은 朝鮮과 奄美 및 沖繩에 빈번하게 다녔다. 주제는 샤머니즘이라고 했다“(長澤和俊 1971.7.: 123). 1970년 7월 20일-26일 사이 아마미오오시마(奄美大島)의 야로(野勞 fieldwork)에 참가한 이즈미는 “7월 22일 코니야(古仁屋)에 사는 무녀(巫女)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타’(무녀)를 만난 이즈미 선생의 눈이 빛났다. 무녀는 북(太鼓)을 두드리면서 ‘신초가’(神招歌)’를 불렀다. 동북아시아 샤머니즘에 밝은 선생은 남도(南島)와의 관련성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7월 24일 요로시마(与路島)에서는 85세의 ‘노로’를 만났다. 이즈미는 빙의 상태를 관찰하였고, 그날 나는 선생에게 천부적 인류학자(Geborener Anthropologist)라는 별명을 붙였다. 7월 25일 ‘유타’ 모리오카 테츠코(森岡鐵子) 씨를 다시 만났다. 작년에 101세로 사망한 조모의 목소리가 나왔다”(內田るり子 1971.7.: 125-127). 함께 동행하였던 에스노뮤지컬러지스트인 우치다 루리코(內田るり子, 후주10)의 눈에 비친 이즈미의 행적이 눈에 선하다.



이즈미의 단골‘스낙쿠’(カントリ)와 후키상(2004년7월7일)

이즈미는 이두현을 연구협력자와 샤머니즘 연구를 위한 동료로서 적극적으로 대우하였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산견된다. 이즈미의 안내 덕분에 이두현은 하나마츠리(花祭)를 관찰하기 위하여 아이치현(愛知縣)의 오쿠미카와(奥三河)를 비롯해서 타네가시마(種子島)의 샤머니즘 현장을 찾아 다닐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의 답사에 대한 야장(野帳, fieldnote)이나 사진이 발견되기를 기대해 본다. 1968년부터 1969년 사이에 1년간(실제로는 1968.7.-1969.4.) 이즈미는 이두현을 동경대학 문화인류학연구실 객원교수로서 초빙하여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하도록 주선하였으며, 1968년 국제인류학민족학협회 동경대회의 조직을 맡았던 이즈미 교수는 이두현으로 하여금 한국 측 발표 참석자들을 위한 조직을 의뢰하고, 경비를 제공하였다. 동경대학 문화인류학연구실에 소장되어 있는 1967年度便覽(1967.4.-1968.3.) 社會學研究科授業科目表 文化人類學專門課程(修士課程.博士課程)에는 "民族誌I(東北アジア民族誌, 講師 李 杜鉉)"이라는 기록이 있고, 社會學研究科教官住所錄(文化人類學, 1968年度)에는 "教授(協) 泉 靖一 東洋研, 助教授 曾野壽彦 教養, 同 增田昭三 同, 同(外) 中根千枝 東洋研, 同 寺田和夫 教養, 同 大林太良 同, 同 渡辺直經 理, 講師 祖父江孝男, 外國人講師 ゴードン T ボ-ルス, 同 李 杜鉉"이라고 하여, 당시 문화인류학연구실의 강의교수명단으로 "외국인강사"난에 Gordon T. Bowles(1904-1991 후주11)와 함께 이두현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후 동경대학에 문화인류학연구실이 설립될 수 있도록 후면부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일본통인 고든 보울즈는 당시 미국의 시라큐스대학 인류학과의 교수였다. 이즈미가 어느 정도로 깎듯이 학자로서의 이두현을 대우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즈미가 급서한 것은 이두현에게도 큰 충격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두현의 인류학적 행보가 순조롭지 못하게 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필자와의 대화 속에서 이두현은 <花祭>(早川孝太郎 1930.4.15)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찬사를 그칠 줄 몰랐다. 1969년 정초에 이즈미 세이이치와 함께 오쿠미카와(奥三河)의 하나마츠리(花祭)를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그 책은 前篇 1719페이지와 後篇 1855페이지로서 총 157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하기도 하지만 치밀한 민속지(ethnography)이다. 이두현은 <花祭>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그 책이 갖는 의미에 심취하고 있었다. 인류학과 민속학의 작업으로 드러나는 민속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던 이두현이기에 하야카와의 작업을 입이 닳도록 칭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업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말리노브스키의 Coral Gardens and their Magic(1935년 발행)보다도 두터운 민속지이며, 말라노브스키의 저서보다도 먼저 출판된 책이다. 그 책의 저자 하야카와 코우타로(早川孝太郎, 후주12)는 "민간전승 채집의 귀재"(民間傳承採集の鬼才)(匿名 1932.7.1)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두현이 <花祭>를 정독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후일 자신의 필드웍에서 <花祭>와 같은 작업 결과를 추구한 흔적은 발견할 수 있다. 이두현이 1970년대 이후 줄기차게 추적한 작업이 무속의 현장이었고, 그것은 명백하게 이즈미 세이이치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두현의 무속 현상 답사는 사진기와 녹음기의 도움으로 남은 무가(巫歌)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족적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노력과 지원으로 <이두현 기증 사진집>과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가 자료집으로 탄생하였다. 제대로 된 작품을 완성하지는 못한 상태의 자료집만을 남기게 되었지만, 하야카와의 <花祭>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두현
기증 사진집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이하에 사진집과 무가연구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았다.

<이두현 기증 사진집> 목록
홍태한 2009.11.30a 제의(이두현 기증 사진집1권).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홍태한 2009.11.30b 무속1(이두현 기증 사진집2권).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홍태한 2009.11.30c 무속2(이두현 기증 사진집3권).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진태 2010.4.23a 가면극1(이두현 기증 사진집4권).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진태 2010.4.23b 가면극2(이두현 기증 사진집5권).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진태 2010.4.23c 놀이(이두현 기증 사진집6권).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목록
홍태한.권선경.문봉석 2011.11.25 경기양주유양리국수당굿I(이두현 기증 무가연구1).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홍태한.문봉석 2011.11.25 경기양주 대지동유양리국수당굿II(이두현 기증 무가연구2).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윤동환.정연락.손동진 2012.8.31a 경북 포항 다릿돌 별신굿I(이두현 기증 무가연구3).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윤동환.정연락.손동진 2012.8.31b 경북 포항 다릿돌 별신굿II(이두현 기증 무가연구4).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윤동환.정연락.손동진 2012.8.31c 경북 포항 다릿돌 별신굿III(이두현 기증 무가연구5).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윤동환.정연락.손동진 2012.8.31d 경북 포항 다릿돌 별신굿IV(이두현 기증 무가연구6).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이경엽.김혜정 2012.10.26a 전남 영암 씻김굿I(이두현 기증 무가연구7).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이경엽.김혜정 2012.10.26b 전남 영암 씻김굿II(이두현 기증 무가연구8).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홍태한.김경희 2013.8.9a 황해도 진오기굿(이두현 기증 무가연구9).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홍태한.김경희 2013.8.9b 황해도 만수대탁굿(이두현 기증 무가연구10).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정식.황나영 2013.10.11a 제주도 성주풀이(이두현 기증 무가연구11).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강정식.황나영 2013.10.11b 제주도 수산본향당 신과세제(이두현 기증 무가연구12).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윤동환.손정진.정연락 2013.11.25a 동해안 수망오구굿I(이두현 기증 무가연구13).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윤동환.손정진.정연락 2013.11.25b 동해안 수망오구굿II(이두현 기증 무가연구14).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윤동환.손정진.정연락 2013.11.25c 동해안 수망오구굿III(이두현 기증 무가연구15).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윤동환.손정진.정연락 2013.11.25d 동해안 수망오구굿IV(이두현 기증 무가연구16). 대전: 국립

문화재연구소.
윤동환.손정진.정연락 2013.11.25e 동해안 망자혼례굿I(이두현 기증 무가연구17).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윤동환.손정진.정연락 2013.11.25f 동해안 망자혼례굿II(이두현 기증 무가연구18).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윤동환.손정진.정연락 2013.11.25g 동해안 망자혼례굿III(이두현 기증 무가연구19).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윤동환.손정진.정연락 2013.11.25h 동해안 망자혼례굿IV(이두현 기증 무가연구20).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만4년에 걸쳐서 연구자 12명의 노력으로 정리된 사진과 무가연구의 자료집은 앞으로의 연구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두현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현장의 맥락화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숙제일 것이다. 좋은 민속지들이 간행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구슬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부터 생각하면, 많은 공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본: 2

필자는 문리과대학 고고인류학과의 학생 시절 4학년 때, 1970년 봄학기에 선생의 강의과목인 '한국민속학'을 수강하였다. 그 과목은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되었다. 선생의 학점이 "짜다"는 소문이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고고인류학과 학생들도 수강을 기피하는 과목 중의 하나였다. 당시 대학의 강의는 대학의 소요 사태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1968년도에만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 이외의 해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휴강으로 일관되기도 하였다. '한국민속학' 강의도 마찬가지였다. 선생께서 직접 강의를 하셨던 시간이 몇 회 되지 않았다. 따라서 강의 내용이 거의 기억이 되지 않을 정도다.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학기말 시험은 레포트 제출로 대신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한국민속학'의 경우도 그렇게 종료되었다. 당시 선생께서 저술하신 <한국 가면극>(1969년 발행)이 출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필자는 거금(거의 일 개월 하숙비에 달했던 것으로 기억됨)을 투자하여 무거운 그 책을 구입하였다. '비매품'이었는데, 구입할 수 있었다.
한국문화인류학회에서는 월례발표회라는 것을 열었는데, 가끔 그러한 장소에서도 뵐 수 있었다. 그 모임에 오시는 분은 거의 정해져 있었고, 참석자를 모두 합해서 10 명이면 많이 모인 셈이었다. 학생 시절이었는데, 언젠가 월례발표회가 있었고, 방청자로 오신 분들 중에 낯선 분이 나의 뒷자리에 앉으셨다. 발표회가 끝나고 나면, 핵심 멤버들이 모여서 문리대 앞의 '진아춘'이라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씩 먹는 것으로 뒷풀이를 하였다. 항상 내가 발표회장의 말석에 앉았는데, 나보다도 뒤에 앉은 분이 계셨다. 나는 그분을 그런 식으로 두 번 뵈었다. 그분은 키도 크신 어른으로서 옅은 검정 색깔의 안경을 끼고 계셨고, 발표회가 종료되면 그분은 곧바로 퇴장하셨다. 중국집에서 주문한 짜장면을 기다는 시간에 잡담들이 오갔다. 이두현 선생께서 안경 낀 그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발언을 하셨고, 참석자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그분이 최상수(崔常壽, 1918-1995) 선생이었다.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필자는 학회의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학회 일로 선생께 어쩌다가 한 번씩 연락을 드린 정도로서, 그리 가까이서 뵈온 적은 거의 없었다. 소문대로 선

생께서는 상당히 까탈스러운 성품의 소유자셨고, 잘 웃으시지도 않으셨다. 가급적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편한 상대였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패싱'하는 대상이었다. 말씀하시는 스타일도 퉁명스러운 쪽에 가깝다고 말하면 실례가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필자는 그렇게 느꼈다. 고고인류학과로 학사편입을 하였던 장철수(張哲秀, 1945-2000) 형이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직접적인 제자였기 때문에, 장형을 통해서도 선생의 근황과 분위기를 가끔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장형은 선생께 어쩌다가 한 번씩 '딴지'를 거는 식의 말투를 내뱉고는 웃어 버리고 얼버무리는 장면을 목격한 경우도 있었다.

필자는 한국문화인류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종료되었던 2008년 이후 선생께 약속을 드리고, 퇴근길에 댁을 찾아뵙고, 댁에서 지근 거리에 있는 사당동의 '거상'이라는 식당에서 소찬으로 모시고 지나간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몇 차례 가질 수 있었다. 당시 선생께서 거주하시던 사당동의 연립 주택은 운전을 해서 들어가기 좀 불편한 골목길 안쪽에 자리하였다. 연립주택의 가장 윗 층에서 사모님과 함께 살고 계셨기 때문에, 가파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 않으셨다. 모시고 나와서 운전석의 옆자리에 선생을 모시고, 선생의 단골 식당으로 갔다. 그 가게의 주인은 선생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곤해하셨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함께 할 수는 없었다. 저녁을 잡수시고, 차를 마시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자주는 못 모셨지만, 최소한도 서너 번은 모셨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필자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오늘 본고를 작성하는 행위로 드러난 셈이다. 선생께도 필자의 의도를 말씀드렸다. 필자는 가능한 한 선생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대화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팔십 대 후반이 되신 선생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2012년 가을에 마지막으로 뵈었다. 특히 당신께서 출생하신 내력에 관해서는 거의 만나 뵐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의 학자들은 "리토켄" 선생이라고 지칭하였다. 선생님의 업적은 일본학계에서도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 선생께서는 2013년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당시 필자는 일본 야마구치대학(山口大學)의 동아경제연구소(東亞經濟硏究所)에서 만주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느라고 선생의 부고에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하는 결례를 범하고 말았다.

필자는 이두현 선생의 논문들 중에서도 초분(草墳)에 관한 논문을 심도 있게 정독하였다. 선생께서 평생 동안 학자로서 발표하신 논문들 중에서 내용과 조직 그리고 논리전개의 측면에서 가장 문화인류학적인 논문이라고 표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논문이며, 필자는 선생의 연극사와 관련된 글들 이외에 가장 잘 된 글이라고 생각한다. 모친의 상을 당하였던 기간을 계기로 초분에 관한 논문을 쓰게 되었다는 감회가 서린 글이었다. 그 논문은 일본의 문화인류학자 코쿠부 나오이치(國分直一, 1908-2005, 후주8)의 "중국해 제지역의 복장"(シナ海諸地域の複葬) 연구에 인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초분 연구의 기준(西村美惠子 1985.9.30)이 되는 논문으로 간주되었다. 이 논문은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영어로도 발표되었다. 그 논문의 전후로 선생은 자신의 학문적 오리엔테이션을 문화인류학으로 굳혀가고 있었으며, 1974년 연말과 1975년 연초에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여 스스로 전문적으로 공인된 인류학자의 길을 가려는 시도를 하였다.

서울대 종합화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필자가 알고 있는 만큼의 사실들을 기록한다. 군대 제대 후 1974년 6월에 문리과대학 무급조교 발령을 받았던 필자는 한상복 선생의 연구실에 책걸상을 한 벌 들여놓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해 가을학기에 문리대 고고인류학과로 강의를 나오시던 이광규 선생(당시 사범대학 교육학과 소속)께서 가끔 한상복 선생의 연구실에 들렀다. 그때마다 나는 자리 비우기를 요구받았다. 두 분께서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논의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름 아닌 국립서울대학교 종합화의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인류학과에 관한 논의였다. 두 분이 함께 새로운 학과의 살림을 맡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의 대학원생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한상복 선생께서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신 기회도 있었다.

당시 종합화 프로젝트를 위해서 서울대학교건설본부(이훈섭 본부장)라는 조직이 있었다. 건설본부 산하에 설계통제실(김웅세 실장)이라는 곳이 있었고, 실장을 했던 분이 필자의 부친의 이종사촌 동생이었다. 나의 첫째 아이가 그해 12월 4일에 태어났고, 아저씨에게 전화로 보고 겸 인사를 올렸더니 저녁을 함께 하자는 부름이 있어서 눈덮힌 관악캠퍼스를 찾았다. 신림동 사거리에서 버스를 내려서 건설본부(현재의 교수회관)까지 걸었다. 설계통제실장실의 입구는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고, 방안에는 커다란 탁자들 위에 도면들이 늘어져 있었다. 아저씨께서 "인류학과에는 교수가 세 분이네"라는 말씀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의 반문에 아저씨는 도면을 보여주셨다. 6동의 4층에 나란히 교수연구실이 있었고, 맨 왼쪽의 코너 방에 "교수 이두현", 다음 방에 "부교수 이광규", 그 다음 방에 "조교수 한상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제 총장 결재만 남았네"라는 말씀이 있었다.

당시의 종합화라는 계획의 내용 중에는 교수들의 재배치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음악대학에서 영어교수를 하시던 분과 공과대학에서 영어교수를 하시던 분들이 모두 인문대학 영문학과 또는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로 이동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동 대상이 되는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곳을 적어 내는 절차가 있었다. 1968년부터 설립되었던 교양과정부라는 곳이 공과대학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던 최홍기 선생은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로 이동하였고, 상과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던 김진균 교수도 사회학과로 이동하였다. 사범대학의 지리교육과에 계셨던 김상호 교수와 이찬 교수 두 분께서는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로 이동하였다.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상당수의 교수들이 학과를 이동하였다. 그러한 과정에 이광규 선생은 사범대학 교육학과로부터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로 이동할 것을 희망하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마찬가지로 이두현 선생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 새로 설립되는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로 이동할 것을 희망하는 서류를 대학본부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서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필자가 보았던 설계통제실장실의 설계도면에 반영되어 있었다. 당시 전 대학에서 이동을 희망하였던 교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보류되었던 사례가 이두현 선생의 경우라고 알고 있다. 그것은 소위 대학정치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서류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두현의 이동 과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던 분이 한상복 선생이다.

인류학과 하에 "교수 이두현"이라고 기록되었던 문서는 필자가 아는 한, 현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기억 속에만 있는 사실이다. 1975년 문리과대학 고고인류학과로부터 분리된 인류학과가 사회과학대학에 신설되었고, 인류학과의 전임교수는 "부교수 이광규"와 "조교수 한상복"으로 살림을 시작하였다. 당시 학과의 유급조교는 박부진(69학번)이었다. "교수 이두현"이라고 기록되었던 교수연구실은 수년간 비어 있었고, 후일 사회복지학과의 신임교수 연구실로 배정되었다. 7동 4층에서 6동 4층의 왼쪽으로 꺾어지는 부분의 연구실이다. 공간이 부족하였던 대학의 실정을 생각하면, 그 연구실 공간이 왜 장기간 비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 1974년 가을에 문리대의 한상복 선생 연구실로 몇 차례 찾아오셨던 이광규 선생께서 이두현 선생의 이동 희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보면, 한상복 선생께서는 이광규 선생이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공유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

다. 1974년 여름 환희리의 산골짜기에서 함께 멱감던 두 분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1974년 여름 한국문화인류학회의 충청북도 민속종합조사 때, 십여 일간 정도 충청북도의 산골로 다니면서 선생을 가까이서 뵐 수 있었다. 임석재 선생께서 함께 다니셨는데, 선생께서는 임석재 선생을 지칭하실 때는 "임석재 영감"이라고 말씀하셨다. 두 분 사이의 연령차가 꼭 20년이나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칭이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해 여름 8월 5일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의 산골짜기에서 해거름에 흘러내리는 개울 물로 나체로 멱 감던 일이 생각난다. 하루종일 산골을 헤매고 돌아다니고 나서 온몸의 땀을 씻는 시간이 순간의 행복이었다고나 할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이두현 선생과 한상복 선생, 그리고 필자였다. 그리고 누군가가 좀 떨어진 곳에서 역시 나체로 몸을 씻고 있었다. 그 장면이 필자에게는 오랫동안 상당히 인상적으로 각인되었다. 당시 이두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곧 벌어질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 전혀 사전 언급을 하지 않은 채로 침묵을 지켰던 시간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당동의 "거상"이라는 식당에서 필자는 1968년의 일에 대하여 선생께 질문을 드린 한 적이 있다. 1968년의 일이란, 제8차국제인류학및민족학대회가 동경에서 개최되었고, 그 대회의 프러시딩스에는 발표자의 명단과 논문제목에 "HAN Sang-Bok"과 그의 논문제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한국에서 여러분이 참가하였고, 참가자들은 여행비용을 동경의 사무국으로부터 지원받았다. 당시 대회의 사무국장이 이즈미 세이이치(泉 靖一) 교수였고, 이즈미 교수는 한국으로부터의 방문자들을 교섭하고 조직하는 일을 이두현에게 일임하였다. 그리고 이두현은 한국으로부터의 참가자를 인선하는 과정에서 한상복을 제외하였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당시 한국의 대학에서 인류학 전임교수는 유일하게 한상복 선생 한 분이 계셨다. 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다. 이두현 선생의 답변은 "그때 내가 실수를 했어"였다. 제8차국제인류학및민족학대회가 개최되던 시간에 한상복은 전라남도 가거도(可居島)에서 필드웍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다.

영남대학교개교3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1977년 5월 17일-19일)의 주제는 "東아시아諸民族文化의 共通性과 特殊性"이었고, '제1부'부터 '제4부'까지는 고고학과 역사학 중심이었다. 당대 한국학계의 원로들께서 논문 발표를 하였다. '제5부'(19일)는 인류학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제5부'의 좌장은 이두현(李杜鉉)이었고, 발표자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부치 토이치(馬淵東一: 中部 및 北部臺灣의 두 土着民族의 文化的對照), 탕 메이춘(唐美君: 東 아시아에 있어서의 父系複合의 文化的共通性에 關하여), 이광규(李光奎: 東洋三國의 家族制度의 三類型), 강신표(姜信杓: 東亞三國文化의 認知的 構造)(嶺南大學校文理大學報 編輯委員會 1977.12.25). 마부치 토이치는 동경도립대학 사회인류학교실 명예교수, 탕 메이춘은 국립대만대학 고고인류학과 교수, 이광규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강신표는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였다. 좌장을 맡았던 이두현만 인류학 전공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명분이 중요한 문화적 가치인 한국사회에서 '인류학자로 공인됨'이라는 이두현의 희망이 좌절되었던 1975년 서울대학교 종합화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의 결과인 셈이다. '제5부'를 조직한 사람은 분명히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김택규(金宅圭)였을 것이다. 김택규도 이두현의 희망과 관련된 사건의 깊은 내막을 몰랐던 모양이다. 알았더라면,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했더라면, 위와 같은 구도로 조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미칠 수 있다.

4. 결

<한국 가면극>의 서두에는 국립박물관에서 실시하였던 경주의 호우총(壺杅塚) 발굴(1946년)에서 나온 목심칠면(木心漆面)을 황금사목(黃金四目)의 방상씨(方相氏)라는 판별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발견된 최초의 가면이라는 주장을 하셨다. 나무에 눈알은 유리로 박았고, 칠은 홍채에 해당되는 부분만 푸른 빛, 눈의 가장자리는 황금환(黃金環)을 둘렀고, 두 쪽의 뿔은 부식된 것이며, 뿔과 뿔 사이 칠면의 상부의 테를 이루는 곳은 철로 되었고, 그 위에 황금으로 점을 박았다는 설명이었다. 가슴에 단 것이며, 주례하관(周禮夏官)에 보이는 방상씨라는 설명이었다(李杜鉉 1969.12.30). <한국 가면극>에서는 스스로 “mask mania”라고 적었고, “역사민속학적 방법”이라는 표현을 담았지만, 인류학 또는 문화인류학이란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이 책의 원고 탈고는 1968년 7월 동경대학 객원교수로 가기 전에 이루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2000년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과학적 복원 분석에 의하여, 이것은 화살통의 장식면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최소한도 방상씨 탈은 아니라는 것이다. 화살 과녁을 잘 맞추기 위한 주력(呪力)을 상징하는 눈과 눈 주위의 장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낫다는 설명이다.
필자는 이두현과 관련된 기록 자료들과 필자의 기억을 엮어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학문의 원숙기에 접어 들면서 본격적으로 문화인류학을 추구하였던 이두현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의 희망은 대학정치라는 벽으로 인하여 임계치를 넘지 못하는 좌절을 경험하였다.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호. 불호의 도덕적 가치판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두현의 초분(草墳)에 관한 논문이 한국문화인류학계가 생산한 수작의 한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오십여년 동안 수많은 문화인류학적 논문들이 생산되었지만, 사실상 대부분은 후학들에 의해서 거의 인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두현의 초분 논문은 앞으로도 두고 두고 인용되어야 하는 수작이다. “인류학 교수 이두현”이라는 타이틀은 적용될 수 없었지만, 이두현이 분명히 문화인류학적인 작업을 논문으로 보여 주었음은 인정되어야 한다.
인류학이란 학문의 입장에서 본다면, 즉 총체성을 지향하는 인류학이란 학문의 입장에서 숙고해 본다면, 이두현은 분명히 한국인류학계에 그의 족적을 남겼다. 어느 누구가 이두현을 인류학자라고 평가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앞으로 언젠가는 한국인류학사의 선구자들 중의 반열에 이두현의 이름은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두현이 남긴 다음과 같은 또 다른 글을 읽으면서, 고개가 숙여진다. 일본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주로 농촌인 하회와 어촌인 후포의 별신굿(李杜鉉 1981.7.31)을 소개하였다. 이 글에는 “문화인류학” 또는 “인류학”이란 단어는 일체 등장하지 않는다. “민속학”이란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지극히 간결하게 하회별신굿의 내용을 주로 소개하고, 동해안 후포의 별신굿에 대해서는 간략한 소개를 하였다. 그야말로 ‘예능사’ 전공자에 걸 맞는 논문으로 지극히 절제된 글을 발표하였다.

감사의 말씀:

본고를 작성하는 과정에 수집된 자료들을 제공하신 분들께 인사를 드린다. 경도대학 이즈미 타쿠라(泉 拓良) 교수, 영남대학교 이창언교수, 국가유산청 조사연구기록과 강경혜 선생, 국립민속박물관 윤경식 학예사. 본고에는 이미 작고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함자들이 등장한다. 선생님들의 함자에 경칭을 붙이지 않은 것은 글쓰기의 편의상이었음에 대해서 제현의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후주

1) “야첩(野帖, field work)”이라고 기록한 것의 영어 표기는 fieldnote로 고치는 것이 낫겠다.

2) 박헌봉(1906-1977)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길리에서 출생하였다. 1921년 상경하여 한성강습소(漢城講習所)와 중동학교를 다녔다가 휘문고보에서 졸업하였다. 1923년 민속악(民俗樂)을 연구할 결심으로 진주(晋州)를 왕래하면서 가야금과 판소리를 배웠다. 그는 김덕천씨에게 가야금, 장단은 신고주씨, 가야금병창은 김종기씨, 창악은 이선유씨에게 배웠다. 박헌봉은 진주음률연구회(晉州音律硏究會)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그후 1936년 정악전습소(正樂傳習所)에 들어가 정악을 연구하고, 1937년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에서도 활동하였고,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硏究會)에 입회하여 당대의 남도 명창 이동백, 정정열, 송만갑 제씨와 창법(唱法)을 강구(講究)하였다. 1938년에는 조선가무연구회(朝鮮歌舞硏究會)에서 최경식 및 박춘재와 京.西道 지방의 가무를 연구하였다. 해방후 ‘국악건설본부’를 창설하였으며, 그해 10월 5일에 ‘국악원(國樂院)’이라고 개칭하여, 초대 원장에 함화진씨가 취임하였고, 그는 부원장에 선임되었다. 1946년 7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한국의 악성(樂聖)’이란 연제로, 1947년에는 동국대학에서 ‘국악의 의의 및 국악의 역사’란 연제로 국악 강의를 하였으며, 1954년 6월에는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주최로 국악 강의를, 1957년 11월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국악 강연을 하였으며 학생국악연구회를 지도하기도 하였다. 1960년 3월 5일 ’국악예술학교(國樂藝術學校)‘가 그 문을 열고, 박헌봉이 초대교장으로 취임하였다(출처: 기산(岐山)박헌봉(朴憲鳳)의 한국음악사적 행적-국악신문사 https://www.gugakpeople.com/154).

3) 金千興(1909-2007)은 해금, 아쟁, 양금 연주자이자 궁중무용의 명인이었으며,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기도 했다. 1922년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 2기생으로 입학하여, 1926년 졸업함과 동시에 이왕직아악부 아악수보가 되었다. 1940년에는 아악수장이 되었다. 1951-2007년간 국립국악원 예술사 자문위원을 거쳐 원로사범으로 재직하였다.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고, 1971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기능보유자가 되었다.

4) 제1회(1920년) 미국 호놀루루 하와이대학, 제2회(1923년)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멜버른, 제3회(1926년) 일본 동경/경도, 제4회(1929년) 네델란드령 자카르타/반둥, 제5회(1932년) 캐나다 뱅쿠버, 제6회(1939년) 미국 버클리/샌프란시스코/스탠포드, 제7회(1949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제8회(1953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대학, 제9회(1957년) 타일랜드 방콕 출라롱콘대학, 제10회(1961년) 미국 호놀루루 하와이대학, 제11회(1964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바 있다.

5) 경도제국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였던 코쿠부는 대학 시절에 프란츠 보아스(Franz Boas)를 존경하였던 사람이었고, “세계적으로 가장 일찍이 에스노아케올로지ethnoarchaeology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世界で最も早いエスノ.アーケオロジーの人だつたと思います)(安溪遊地. 平川敬治 編 2006.3.16: 241)는 평가받을 수 있는 업적을 이룬 문화인류학자이자 고고학자였다.

6) 金子에리카는 첫 남편이 영국인이고,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다. 그 아들이 비엔나대학 민족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이름은 Purse라고 하였다. 둘째 남편이 일본인 카네코 노보루(金子 登, 1911-1987)는 1952~1956년간 비엔나대학에 유학하였다. 베토벤과 모차르트 연주를 주로 하였다. 지휘자였으며 동경예술대학(東京芸術大学)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데, 시세이도(資生堂) 모델이었다.

7) 淺井惠倫(1895-1969)은 대만원주민연구자다. 대북제국대학의 언어학강좌 오가와 나오요시(小川尙義, 1869-1947)가 정년 퇴임하면서 아사이가 언어학강좌를 맡았다. Asai, Erin 1936 A Study of the Yami Language-An Indonesian Language Spoken on Botel Tobago Island. Leiden: Universiteitsboekhandel en Antiquariaat J. Ginsberg. 네델란드의 라이덴대학 박사학위 논문이다.
아사이는 1936년 대북제국대학 언어학교실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1936년 7월-1937년 1월과 1938년 1-3월에 헤이포족(平埔族) 언어를 조사하였고, 민속학과 긴밀한 연계를 시켰다. 아사이는 phonetic과 text 우선주의의 철저한 보아스 방식을 습득하였다(土田 滋 1984.5.30: 6).
8) Felix Moos의 저서로는 The New Religions of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Volume XLIII, Seoul, Korea 1967)가 있다. 그는 1929년생으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경력이 있으며, 시애틀의 워싱턴대학 인류학 박사호를 취득하였고, 캔자스대학 인류학과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만년에는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운영하였던 '인간지역체계"(Human Terrain Systems)의 옹호자로서 유명하였다.
9) 長澤和俊(1928-2019): 동양사학자이며, 전문은 실크로드사다. 1967년에 카고시마단기대학 조교수가 되었고, 1968년에 교수가 되었다. 1975년 와세다대학 교수로 보임되었다.
10) 内田るり子(1920-1992) 는 성악가이면서 동시에 민속음악학 연구자이기도 하다. 1942年에 동경음악학교성악과(東京音楽学校声楽科)를 졸업하였고, 1956년 국립음악대학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1962년에 비엔나대학 철학과를 중퇴하였다. 저서로는 <田植ばやし研究>(雄山閣出版 1978), <奄美民謡とその周辺>(雄山閣出版 1983), <沖縄の歌謡と音楽 Ethnomusicological considerations>(第一書房 1989) 등이 있다.
11) 고든 보울즈는 선교사의 아들로서 동경 태생이며, 일찍이 제1고등학교 영어교사를 하였고, 하버드대학 인류학과에서 체질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동안에는 미국 국무성에서 근무하였으며, 동경의 맥아더사령부의 추천으로 경주 호우총 발굴에도 참관하였다.
12) 早川孝太郎(1889-1956)는 화가로부터 민속학자로 전업하였다. 그는 대동아전쟁 동안에 농촌갱생협회의 업무를 맡아서 만주로의 분촌이민(分村移民)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조선에 관한 그의 논문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고, 그의 전집에 대하여 간략한 소개를 한다.
早川孝太郎 1941.2.1 "朝鮮の穀神", 旅と傳說 14(2): 1-17. 주로 동제(洞祭)를 다룬 이 논문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상황을 보여준다. 평북강계군만포진, 함남갑산보천면, 함남풍산군, 전북익산오산면, 전남제주도서귀포청홍리(高正浩씨댁). 경남합천합천읍, 경북 등 여러 곳이다.
<早川孝太郎全集>(未來社) 發行 現況

卷號	題目	發行日	備考(企劃과 最終의 對照)
1	民俗藝能 1	1971.9.30	기획대로 발행
2	民俗藝能 2	1972.7.20	기획대로 발행
3	藝能と口承文藝	1973.4. 15	口承文藝と民謠その他
4	山村の民俗と動物	1974.3.31	기획대로 발행
5	農村問題と農村文化	1977.7.30	기획대로 발행
6	農村更生	1977.11.30	追加
7	農經營と技術	1973.12.25	農業生活と技術
8	案山子のことから	1982.9.25	農業と信仰儀禮
9	島の民俗	1976.1.10	南島の民俗文化

10	食と儀禮傳承	1988.11.5	追加
11	民俗研究法.採訪錄	2000.8.30	民俗研究法と民俗採訪
12	雜纂.繪と寫眞	2003.5.31	追加
別	日記.書簡その他/索引	次回配本	民家圖.ノート.書簡集.年譜.總索引

참고문헌

金千興.李杜鉉 1965.12. 鳳山탈춤(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第十二號). 서울: 文化財管理局.

박영정 2005 "이두현 구술 채록문",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66.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Pp. 101-102.

朴憲鳳.李杜鉉 1964.6. 꼭두각시놀음(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第一號). 서울: 文化財管理局.

방인아 2017.6. "스미소니안 국립자연사박물관 소장 이두현 기증자료의 성격과 의미", 무형유산 2: 129-159.

嶺南大學校文理大學報 編輯委員會 1977.12.25 文理大學報 8.9.10: 371-451.

李杜鉉 1958.12.15 "韓國民俗學의 過去와 將來: 韓國文化人類學會의 發足에 즈음하여", 大學新聞 第244號, 2面.

李杜鉉 1959.2.9 "韓國民俗學의 過去와 將來: 韓國文化人類學會의 發足에 즈음하여(下)", 大學新聞 第246號, 2面.

李杜鉉 1960.2.8 "民俗藝能의現代的意義: 民俗劇", 大學新聞 280號, 3面.

이두현.정상박 1964.1. "양태 및 갓 공예", 고문화 3: 24-39.

李杜鉉 1969.12. 한국가면극. 서울: 문화재관리국.

李杜鉉 1973.10. "草墳", 韓國農村の家族と祭儀. 中根千枝 編.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李杜鉉 1974.8. "葬制와 관련된 巫俗硏究 -특히 草墳과 씻김굿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6: 7-44.

李杜鉉 1981.7.31 "韓國の村祭リと假面", 藝能史硏究 74: 1-5.

이두현 2009.11.30 "탈판과 굿판에서 15년", 이두현 기증 사진집 1 제의.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이두현 기증 사진집 1-6.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이두현 기증 무가연구 1-20.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전경수 2023.12.25 경성학파의 인류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전경수 2023.12.30 송석하의 민속학. 서울: 학연문화사.

青柳まちこ 2011.7.20 "私のオセアニア学ことはじめ その１", 日本オセアニア学会 NEWSLETTER

100: 1-8.

安溪遊地.平川敬治 編 2006.3.16 遠い空: 國分直一, 人と學問. 福岡: 海鳥社.

泉靖一. 高碕達之助 1962.3. "座談會", 文藝春秋 40(3): 92～105.

泉 靖一 1962.12. "朝鮮の現實に目をふさぐな", 世界 204: 95-96.

泉 靖一 1963.3. "日本人の人種的偏見: 朝鮮問題と關聯して", 世界 207: 80-89.

泉 靖一 1965.12. "韓國感傷旅行", 日本 1965年 12月号. pp. 187-195.

泉靖一 1966.5. 済州島.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泉 靖一 1966.2. "韓國の'國學'", 圖書 198: 32-36.

泉 靖一 1968.2.1 "シヤ－マニズムの世界: 韓國の巫俗を中心として", 世界 267: 224-231.

泉 靖一 1969.3. "巫堂來歷考", 東洋文化 46·47: 129-150.

泉 靖一 1970.8.29 “シヤーマニズム的發想”, 日本文化會議 第16回月例懇談會.

內田るり子 1971.7. “素晴しかつたフイールドワーク: 泉靖一先生の思い出”, 南日本文化 4: 125-127.

國分直一 1975.6.1 “シナ海諸地域の複葬(3): 朝鮮半島の複葬をめぐつて”, どるめん 6: 149-162.

土田 滋 1984.5.30 “淺井惠倫”, 社會人類學年報 10: 1-28.

長澤和俊 1971.7. “故泉靖一先生を悼む”, 南日本文化 4: 119-127.

西村美惠子 1985.9.30 “韓國の草墳をめぐる民俗”, 日本民俗學 161: 35-49.

早川孝太郎 1930.4.15 花祭. 東京: 岡書院.

日高孝次 1962 “太平洋学術会議と太平洋学術協会”, 地学雑誌 727: 1-2.

匿名 1932.7.1 “編輯後記 ”, ドルメン 4號.

東京大學文化人類學研究室 1961.11. 研究室だより No. 6 駒場祭 特集号.

東京大學文化人類學研究室 1962.7. 研究室だより No. 7.

東京大學文化人類學研究室 1967年度便覽, 1968年度便覽, 1969年度便覽, 1970年度便覽.

LEE, Du-hyun 1976 “A Multiple Burial Custom of Korea: Ch'obun”, The Realm of the Extra-Human(vol.2): Ideas and Actions. Ed. By Agehananda Bharati. The Hague: Mouton.

Malinowski, Bronislaw K. 1922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An Account of Native Enterprise

and Adventure in the Archipelagoes of Melanesian New Guinea.

London: George Routledge & Sons, Ltd.